

2020年 7月 10日 創刊發行

文化領土研究

JOURNAL OF CULTURE-TERRITORY STUDIES

2020년 7월 10일 創刊 (通卷 第5號)

第3卷 2號

2022年 12月 31日 發行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題字：友山 宋河璟

文化領土研究

2022년 12월 26일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우)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47

전화 : (02)741-1690

FAX : (02)741-1691

E-mail : kish1691@naver.com

<http://www.rict.or.kr>

進行/洪起哲・編輯/張熙一

印刷 製作/大洋文化社

文化領土研究는 비매품입니다.

차례



〈권두논문〉 왜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05
문화영토 개념의 확장성 연구를 위한 소고
홍성걸(국민대학교 교수)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인물, 손암 정약전(巽菴 丁若銓)/29
김윤선(고려대학교 교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유형 연구/71
박미희(단국대학교 강사)

『웃소매 붉은 끝동』으로 본 고전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109
이상우(한성대학교 강사)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분석/145
이주현(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원 강사)

문화영토연구 회칙/176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185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191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199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201

제3권 2호 논문 심사 경위/207

임원 명단/208

왜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 문화영토 개념의 확장성 연구를 위한 소고

홍성걸¹⁾

[국문초록]

이 글은 문화영토 연구의 확장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토’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지리적·공간적 배타성으로 인해 문화영토도 폐쇄적인 개념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념적 차원에서 문화영토는 개방성과 포용성, 공유성, 공감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영토에서 서로 다름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투입 요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천이다. 문화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문화가 낮은 곳으로 흘러들고 스며들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곧 문화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과거 한 때 서구문화를 맹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이 열광하며 함께 즐기고 있다. 서구문화의 한국 사회 진출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수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익힌 우리는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켜 이를 다시 세계로 수출하는 한류를 만들어냈다. 오늘날 한류를 수입해 배우

1) 국민대학교 교수

고 즐기는 세계인들이 다시 자신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우리에게 역수출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영토의 확장성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즐기고 누리는 것이지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류에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성, 즉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주의, 효사상,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 접근, 인본주의 등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한 요소들이 한류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우월성이 반한 혹은 혐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와 지방소멸 등으로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특성들이 사라지는 것도 위기의 원인이다.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는데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성이 큰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문화영토의 확장성을 제고하려면 열린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포용성, 공개성, 공유성, 공감성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열린민족주의, 포용성, 공개성, 공유성, 공감성

1. 들어가는 말

지난 수년간 우리 한국의 문화영토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로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한국적인 것을 이해하고 함께 즐기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직접 감상하기 위해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우리의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한국사람보다 더 맛깔스럽게 부르는 외국인아 한둘이 아니다.

한민족 5천 년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 국력도 강성해졌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우리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며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백범 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문화대국의 꿈이 광복 후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세계인들은 이처럼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일까? 국력이나 부존자원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라의 힘으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 중 한국보다 약한 나라는 거의 없다. 보유자원으로도 중국과 인도는 13억 인구를 넘거나 그에 가깝고 문화적 소재와 역사의 역동성도 다양하여 문화콘텐츠로서의 작품화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우며, 인적 자원이나 전문성, 창의력의 수준도 결코 한국에 뒤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근계일학으로 서구 선진국은 물론, 동양의 전통적 선진국이었던 중국과 20세기 이후 선진국으로 부상한 일본으로 꼭 짜여있던 세계문화시장의 벽을 성큼 뛰어넘어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민족의 문화

상품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문화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문화영토의 확장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대중음악 아바 그룹이나 홍콩의 무술 영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막대한 자본과 무한대에 가까운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미국의 할리웃 영화계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오랫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적 소재와 문화의 원류의 무엇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한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향후 우리 문화영토의 확장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영토의 개념과 문화영토

지금은 일종의 보편적 단어처럼 쓰고 있지만 ‘문화영토’라는 개념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초, 당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장으로 계시던 홍일식 교수가 연구소 내에 영토문제연구실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문화영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당시 문화영토는 ‘국가적·정치적·법적’ 영토에 대비한 ‘역사적·문화적’ 영토 개념으로, 전자가 ‘국가 상호간의 날카로운 대립만을 야기시켜 온 종래의 영토 개념’이라면 후자는 ‘평화, 화합, 타협을 존중하는 확대·승

화된 영토 개념'으로 규정되었다.²⁾ 여기에 무역을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장적 영토'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시장적 영토는 '자본주의의 발달, 국가 간 무역의 확대, 국가 및 지역 간 무역수지의 불균형, 다국적 기업의 등장 및 성장, 글로벌 기업의 독점력 강화 등으로 인해 형성된 영토 개념'으로 설명된다.³⁾ 이를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적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장과 그로 인한 국제 분업화(Global Division of Labor)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과 인재들의 경쟁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화영토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시각에서 그 국가 혹은 민족문화의 세계화의 결과로 확장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화영토의 확장을 문화제국주의의 위험성 증가로 오인하기도 한다. '문화공토'의 개념을 주장하며 '문화영토'를 대체하자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⁴⁾ 이에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간략하게나마 영토의 개념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문화영토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영토는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하며 특정 국가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공간적, 그리고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현대 사회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베버

2) 홍일식,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 육문사, 1983, 453쪽;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문화영토연구원, 2020, 99쪽에서 재인용.

3) 김정우, 앞의 논문, 99쪽.

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술,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37-86쪽' 참조. 이 논문은 문화영토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류에 대한 세계시민의 대응 중 부정적 대응인 '협한'의 증가도 고려해 배타적 개념으로서의 '영토'보다 공유를 전제로 한 '공토'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영토가 갖는 기본적 특성인 배타성에 바탕을 둔 논의로 타당성이 있으나 문화영토의 개념을 폐쇄적으로 이해하는 한계가 있다.

(Max Weber)는 국가를 ‘제한된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단체’로 정의했는데, 영토는 이처럼 다른 공간과의 분리와 국가의 독점적 권력 행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성이 있다. 여기서 ‘합법적 폭력’이란 국가가 자신의 의지와 이익 실현을 위해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하는데, 조세권, 경찰권, 군사력, 사법권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 국가운영 과정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합법적 규정과 절차를 거쳐 행사된다.

문화영토가 ‘영토’라는 점에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문화가 향유되는 공간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처음엔 한류가 환영을 받고 그에 열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나라와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협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타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문화상품이 자국 영토와 사회를 침탈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은 결국 이러한 공간적 배타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영토를 분류하는 방식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영토, 경제영토, 그리고 문화영토로 구분하기로 한다. 정치적 영토는 앞에서 소개한 막스 베버의 국가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 배타성을 가장 강하게 갖는다. 17세기 서구에서 오늘날의 국경이 대부분 확정되고 각 국가의 영토고권이 인정된 이후 사람들은 국가간 경계를 넘는 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부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서슴지 않았고, 19세기에는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아직 발전의 단계가 낮은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적 침탈이 보편적 현상이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명의 살상과 정치영토의 상실 또는 획득이 이루어졌

다. 인류 역사가 한정된 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정치적 영토를 확대하려는 욕심으로 인권은 무시되거나 침탈되고 오직 강한 국가들이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반복된 것은 결국 정치영토가 갖는 공간의 제한성과 배타성 때문이었다. 함께 공간을 사이 좋게 나누기 보다 내가 남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인류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핵전쟁의 위협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바로 이런 정치영토의 확장을 위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적 생산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만으로 이익 극대화가 어렵게 되면서 대규모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금융 자본들은 세계 시장에서 각종 모험적 투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고 모험적 투기자본이 발달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기업을 비롯한 이익단체들도 정부에 영향을 미쳐 개방적인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배타성보다 경쟁과 협력(competition + cooperation = competeteration)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나타난 것이 소위 '경제영토'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경제영토 확대는 대상 국가들에게 종종 경제적 침탈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주로 선진국의 상품과 투자가 개도국 경제에서 그 국가의 기업들이 새롭게 일어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개도국 토종 자본가들과 연계된 선진국 자본이 개도국 경제를 수탈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매판자본론이고, 개도

국 저발전의 원인을 선진국의 착취 구조에서 찾는 ‘종속이론’이 나타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 진출을 비판한 때 판자본론이나 종속이론은 문제만 지적했을 뿐, 처방으로 제시한 고립주의가 개도국 자립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도국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오히려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 정치경제 체제에 적극 참여해 허리띠 졸라매고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두드리는 경제개발전략을 선택한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경제영토 확대 경험이 사실상 개도국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경제영토의 확대는 세계 정치경제 체제의 모든 국가들을 긴밀한 공급망과 소비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정치영토와는 달리 ‘개방성’ 및 ‘경쟁 속의 협력’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화영토는 이런 영토 개념의 확장과 함께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할리웃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서구의 대중가요가 세계 각국을 휩쓸며 오빠부대를 양산했지만, 문화영토 확대의 속도를 문자 그대로 광속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혁명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금융과 투자도 광속으로 바꿨지만 무엇보다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에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게임과 e-스포츠의 증가는 세대 간의 소통마저 어려울 정도의 새 시대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는 원작과 복제품의 품질이 똑같고, 복제의 비용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정치영토에 의해 제한된 국내 시장은 의미가 없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세계인들이 동시에 소비하고 세계인의 공감을 자아낸다.

디지털 시대 문화영토 확장의 원천은 위에서 소개한 개방성, 경쟁과 협력에 더하여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공유성, 및 공감

성 등이다. 과거 인종차별과 소득 수준에 따른 선후진국 간의 차별이 있었고 인류사회에는 여전히 여러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문화영토의 확대는 이러한 차별보다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발판으로 함께 공유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특정 국가의 문화영토가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 공통의 문화영토를 확대한다. 디지털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실시간 공유와 공감, 그리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따른 증가하는 포용성은 이질적 문화 간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갈등보다 화합, 배타적인 문화적 우월성보다 대등하고 수평적인 문화적 교류를 추구한다.

공감과 공유는 서로 다름을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투입 요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문화영토의 확장은 상대적 우월성에 바탕을 둔 갈등보다 수평적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에도 수준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낮고 높음에 따른 질서와 갈등보다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더욱 발전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간다. 그래서 문화영토의 확장은 세계시민의 공감과 공유, 포용성의 증진을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진다.

개별 민족문화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류의 문화영토 확장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존재다. 즉 다양한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보편적 문화가 형성되고 반대로 이를 토대로 민족문화의 특수성이 재형성되는 무한반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문화영토다. 이것이 문화영토 개념이 세계시민주의와 세계평화주의에 기여하게 되는 근본 이유다. 즉 문화영토는 특정 국가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공유

하고 공감하는 개방적 영역이다. 디지털 기반의 사이버 공간에서 국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문화영토에는 국경을 비롯한 경계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왜 세계인은 한류에 열광하는가? 한류의 특수성

돌이켜보면 한국 문화의 잠재력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다. 1950년대는 한국동란 직후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다. 어떻게 하면 잘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우리나라를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너나없이 힘든 시기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우리 것은 모두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서구 선진국의 문화는 더욱 크고 위대해 보인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때 태권도가 세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우리 태권도의 세계 진출은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참전과 함께 그곳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고, 그것에 열광한 많은 외국 정부들과 해외 동포들이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수많은 호신무술이 있고 태권도와 비슷한 일본의 가라테가 이미 앞서 서구사회에 진출해 있어 태권도가 자리잡기 쉽지 않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인들은 도장을 개관하고 서서히 서구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그 바탕에 바로 태권도에 내재된 우리 고유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 예의 등이 있었다.⁵⁾

5) 태권도의 세계 진출과 한류의 관계에 관해 자세한 것은 '박종범·홍성길, 「한류의 원조: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영토 확장」,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23-162쪽' 참조.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메달 경쟁도 치열하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초기에 태권도장에서 수련한 서구의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품행이 방정해지는 등 당시 부모님들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태권도장에 다니더니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을 배려하는 등 모범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FTA 협상을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영토가 확장되는 것과 같았다.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국산 영화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이라며 문제삼기 시작했다. 스크린쿼터 제도란 국내의 모든 영화관에서 연 146일은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 한국 영화의 경쟁력 수준으로는 외국산 영화와 경쟁이 어려우니 규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상영 기간을 보장해 준 전형적 보호무역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거대 할리웃 영화로 세계의 문화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한국 영화시장을 개방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은 당연하다.

물론 국내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였는데, 영화감독이었던 이창동 씨를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해 영화예술인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가 문화주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갈수록 반대는 거

세지기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크린쿼터의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 일수는 연 7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스크린쿼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미국과 일본의 문화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한국 영화나 문화콘텐츠가 모두 죽을 것이라고 삭발까지 하며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이 없이 여전히 한국 영화와 각종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실 스크린쿼터 축소의 결과는 문화예술인들이 걱정한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죽이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었다.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높아진 경쟁 압력에 살아남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디지털 혁명과 만나면서 오늘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K-Pop 등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히 경쟁 압력에의 대응만으로 오늘날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 제패 현상을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다. 경쟁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할리웃 스타와 감독,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드는 인도나 1만 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역사문화적 소재의 풍부함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인적 자원과 자본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쟁우위 요소는 그리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감독과 가수들이 세계 시장의 선두에 서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재미가 있고, 스토리 전개나 내용이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관심과 공감의 기저에는 우리 민족문화의 특수한 여러 요소들이 그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이라 하겠다. 관찰에 의한

짧은 소견이지만 한류의 초기부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과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오랫동안 세계 전역에서 방송에 재방송되곤 했는데, 이란 국민은 85% 이상이 대장금을 시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장금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세계인들의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와 음식을 소재로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참혹한 비극적 종말로 그려낸 ‘기생충’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것도 자본주의가 해결해야 할 빈부격차의 문제의식을 한국적 정서로 잘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미나리’도 한국의 이민 세대가 겪는 세대 간의 갈등과 아픔이 제목인 미나리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특성과 어우러지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할머니의 자책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문화적 정서에 세계 영화계가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그러한 한국적 정서가 한국과 미국의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감독과 배우들의 연기와 잘 어우러져 한 세기 전 이민 후 이미 정착기를 거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미국 시민들이 20세기 중반 새로 이민을 와 어려움을 겪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계 이민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 낸 ‘오징어게임’은 어려서 해본 치기 어린 게임의 패자는 죽는다는 극단적 상황 설정에서 한국의 인본주의적 특성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의 K-PoP의 대표적 선두 주자가 BTS(방탄소년단)라는 보이그룹이다. 수백만 아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BTS는 발표되는 신곡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물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 메시지는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이면서도 한국적 안무와 터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즐기고 떼창하는 세계인들 속에 역시 한국 문화영토의 확장성을 느끼게 된다.

한류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한류의 문화콘텐츠나 한류 자체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한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 뮤직 콘텐츠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광수입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예컨대 이충기·정혜진(2020)이 연구한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협의의 한류 관광객은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7.4%, 광의의 한류 관광객은 무려 55.3%로 분석되었고, 그들이 관에서 소비하는 1인당 지출액도 협의의 한류 관광객은 1,007 달러, 광의의 한류 관광객은 1,034 달러로 추정했다. 총 지출액은 협의 한류 관광객의 경우 약 9억 9,678만 달러, 광의 한류 관광객은 약 76억 7,659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들에 생산이나(140억 3,024만 달러) 소비에의(28억 7,775만 달러)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약 10만 명)까지 계산하면 한류는 원부자재 투입이 필요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만하다.⁶⁾ 문화영토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고 듣고 돌아가서 갖게 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가 효과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 자료가

6)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이충기·정혜진, 「협의와 광의의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관광연구(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제22권(제1호), 한국호텔관광학회(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020, 1-12쪽' 참조.

없어 확인이 어렵다.

4. 한류의 잠재적 위기

문화영토의 개념을 이처럼 개방성과 포용성, 공유성, 공감성 등으로 정의할 때, 최근의 한류 현상은 문화영토 확장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현상이 세계로 뻗어 가는 문화영토 현상의 제1단계인 것이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다. 한류를 바탕으로 K-Culture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문화영토도 확장되지만, 동시에 그 방향성 때문에 문화수용자의 불편함이나 반발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한류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한국인들에 의해 문화적 우월감으로 표현되거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더욱 커져 혐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BTS나 블랙핑크, 기생충과 미나리, 오징어게임, 신병, 재벌집 막내아들 등 수없이 많은 한류의 문화콘텐츠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바야흐로 문화대국 대한민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한 문화적 우월감이다.

과거 우리도 서구의 문화적 우월성에 탄복하고 서구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으로 숭배한 적이 있었다. 서구의 문화상품에 열광하다가 서서히 그에 대한 식상함을 넘어 일부는 반감까지 쌓아갔던 우리의 기억처럼 지금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수용하는 일부 지역과 국가들에서 반한 감정, 혹은 혐한 정서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특히 과거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다고 자부하거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이웃나라들, 예컨대 중국과 일본에서 더욱 그러하다. 험한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일부 한국인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내며 상대의 문화적 열등감을 자극하는 경우다. 이럴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이 한국과 한국인, 한류에 대해 갖는 반한 내지 혐한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서구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열등감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열등감도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과학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기업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제 및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도 창의적 인재들이 나타나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한류에 대해 문화적 열등감을 갖는 국가나 국민도 우리가 걸어 온 길을 똑같이 가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오늘날 한류로 승화시킨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구적 문화콘텐츠에서 기획, 창작, 제작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힌 다음, 우리 고유의 문화적 요소들과 접목시켜 새로운 콘텐츠로 세계에 역진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을 더욱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한 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이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1단계 문화영토의 확장이지만, 서구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2단계 문화영토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구에서 발달된 문화상품 개발과

보급의 제 과정에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입혀 다시 서구로 반사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류 현상이다. 국경 개념을 초월한다면 문화영토의 확장성은 1단계와 2단계의 문화교류가 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면서 세계인이 공감하고 공유하며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근거 없는 문화적 우월감이다. 우리의 전통적 민족문화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주의와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 효 사상, 그리고 21세기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의식과 처방 등이 한류의 가치를 증진시키지만, 그것이 문화적 우월성으로 오해되어 반한 혹은 혐한 감정을 자극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문화영토의 확장성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의 35%에 근접하고 있고,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홀로 사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TV에서는 ‘나혼자 산다’거나 ‘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모습이나 드라마 대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3 이하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되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적 요소들도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한류에 반영되어 세계에 소개되고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징어게임에 소개된 여러 놀이문화는 대부분 어릴 때 수없이

해봤지만 최근 이삼십년 간에는 아이들의 놀이로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 평균연령이 더욱 고령화되어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지면 그 지역사회에 얽힌 전설이나 옛이야기, 또는 그 사회의 특수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향후 한류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문화적 원자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그 원자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문화영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의 수입단계와 수출단계, 그리고 재수입과 재수출이 무한 반복되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현상으로 세계 시민의 일부로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세계 문화와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조한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소멸은 원자재에 해당하는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적 요소의 공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영토의 확장성에 잠재적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내부조차 개방성과 포용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다. 사실 단군신화와 단일민족 의식은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온 것이지 결코 우리가 혈연적 의미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라는 의식공동체를 형성해 왔고, 이것이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의 세기에 단일민족 의식은 폐쇄적 민족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이는 문화영토의 특징인 개방성과 공개

성, 공유성, 공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귀화해 살고 있고, 결혼이민자들도 크게 증가하여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다.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는 동일 혹은 단일민족 의식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 지역에 상관없는 열린 민족주의로 재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폐쇄성과 차별의식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은 재미, 재일동포라고 부르며 존중하지만, 러시아에 사는 동포는 고려인, 중국에 사는 동포는 조선족 등으로 부르며 멸시하는 성향이 있고, 탈북주민들조차 내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내면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폐쇄성과 차별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서의 개방성을 견지해야만 세계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영토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의 전제는 무엇보다 폐쇄적 단일민족의 개념을 버리고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아독존적 차별의식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유아교육 단계부터 다문화, 다민족, 열린 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5. 맺음말

얼마 전,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새벽 4시에 중계하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

의 8강 전 방송을 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새벽잠을 설쳤고, 젊은이들은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우리는 비록 졌지만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패배였다. 세계 언론도, 축구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애국심과 부상 투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벤투 감독의 지휘하에 월드컵 대표팀은 4년여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월드컵 직전의 A매치 친선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소집해 놓고도 단 한 차례도 출전시키지 않는 벤투 감독을 비난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강인 선수는 물론,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선발 출전 선수의 선택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임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카타르 월드컵을 치렀다

월드컵 경기는 물론, 이후 전 세계를 감동시킨 우리 대표선수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여실히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가 세계 문화영토로 확장되는 원천임을 확신했다. 그것은 바로 남다른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예의와 도덕성, 그리고 자기희생의 정신이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선수들은 이러한 우리 문화와 정신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와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뛰어서는 안될 손흥민 선수였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조국을 위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고 모든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여 결국 우리나라를 16강으로 끌어 올렸다. 일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천억 몸값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프로 선수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

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선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길을 택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실력이 좋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떨어진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니다. 경기에서 패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남 탓을 한다. 감독의 작전 실패였다는니, 어느 선수가 이기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그렇다는니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한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달랐다. 경기에 패했을 때 하나같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주장으로서 자신이 부족했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추켜세웠고, 부상당한 김민재 선수나 첫 두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도, 모두가 자신이 제대로 뛰지 못했다고 자책을 할 뿐 남의 탓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장 손흥민 선수는 자비로 물리치료를 대동해 선수들이 최적의 컨디션에서 뛰 수 있도록 했고, 번호도 없이 자신이 뛰지 못할 것에 대비해 카타르에 함께 간 오현규 선수에게는 남몰래 1억 원을 주었다고 한다. 트레이너의 아들 수술비와 치료비도 대주었다니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가 소속팀 토트넘에서 보여준 행태가 세계인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한국적 선비정신에 바탕을 둔 그의 인성에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근본 이유다. 한국이란 나라의 민족문화 개념의 전형이 바로 이번 월드컵에서 보았던 우리 문화의 힘이다.

손흥민 선수 개인의 성품과 리더십 때문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문화의 힘일 수 있겠는가 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개인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고 손 선수

는 아버지 손용정 씨의 지도로 그렇게 성장했으니 결국은 우리 문화의 힘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인성과 리더십에서 보이는 특성은 과거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의 전형과 같다. 선비정신을 되살려 올곧은 인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키워낸다면 그것이 곧 우리 문화영토의 확장이고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우리 문화의 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며 권두 논문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홍일식,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 육문사, 1983.

□ 참고논문

김 솔,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37-86쪽.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문화영토연구원, 2020, 97-118쪽.

박종범·홍성걸, 「한류의 원조: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영토 확장」,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23-162쪽.

이총기·정혜진, 「협의와 광의의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관광연구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제22권(제1호), 한국호텔관광학회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020, 1-12쪽.

ABSTRACT

Opening Article

Why are People around the World so Excited about the Korean Wave? -A Note on the Study of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Territory

Hong, Sung-gul⁷⁾

Why do people like the K-Culture so enthusiastically? This paper reviews mai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territory (CT)” compared to political and/or economic territories, and explains the causes of recent K-Culture phenomena. It also points out the possibility of potential crisis of K-Culture and suggests the ways to overcome it.

Unlike the traditional concept of territory, CT is characterized by openness, sharing, perceptual commonality, and inclusiveness among different cultures. CT is not monopolized by certain country or ethnic group, but shared by all the people in the world. Sometimes certain cultural products such as western ones may proliferate the globe. Korea had imported western cultures and viewed them as something we had to learn. But now we make our own cultural products by adding our own cultural

7) Kookmin University

factors to those we have learned from the westerners in the past. In the future, some developing countries also export their own cultural products by adding their own cultural factors. This is how CT works.

K-Culture may continue to flow to world market for a time being, but not forever. In fact, there are already signs of potential crisis. First, the very success of K-Culture becomes the trap. People boast of being Korean and Korean culture, but those who import K-Culture begin to feel anti-Korean sentiments. Second, Korea's own cultural diversities are being decreased over time due to low fertility rates and regional extinction. Third, Korea is already multi-culture society, but many Koreans still stick to the concept of single race or mono-ethnicity concept. This may become a critical barrier to become truly multi-culture people, which is necessary to expand CT in Korean society. A key to overcome these crises is education. Raising creative young generation is the only possible solution to get over these potential crises.

Keywords: cultural territory, inclusiveness, openness, sharing, perceptual commonality

홍성걸

전자우편 : sghong@kookmin.ac.kr

논문 접수일 : 11월 28일

심사 완료일 :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 12월 21일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인물, 손암 정약전(巽菴 丁若銓)

김윤선¹⁾

[국 문 초 록]

본고는 역사적 인물 정약전이 문화콘텐츠의 인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은 조선 영정조와 순조 때 인물로, 성리학자 실학자 수산학자 해양학자 생물학자로 불린다. 또한 그는 서학에 심취하여 조선천주교회 창설을 이끈 천주교인이었다. 신유박해 때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형을 받고 16년 동안 우이도와 흑산도에서 유배자로 살다 죽었다. 무엇보다도 정약전의 대표저술인 『자산어보』는 흑산도 지역의 어류와 해조류에 대한 백과사전식 어류도감으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저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약전은 2000년대 이후 학문의 대상이기보다는 문화콘텐츠 안에서 더 많은 창작물로 생산되고 있다. 본고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콘텐츠 안에서 재탄생하고 있는 정약전 인물의 특성을 정약용이 남긴 기록과 정약전의 글, 그리고 영화 <자산어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전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이 시대의 문화콘텐츠 특히 영화 <자산어보>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가능성, 문화콘텐츠로 생산되는 양상을 밝혔다. 또한 <자산어보>와 같은 역사물 혹은 역사적 인물

1) 고려대학교 교수

을 원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시도 하였다.

주제어 : 정약전, 〈자산어보〉, 정약용, 문화콘텐츠, 흑산도, 우이도, 천주교

1. 들어가며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은 조선 영정조와 순조 때 인물로, 성리학자 실학자 수산학자 해양학자 생물학자로 불린다. 또한 그는 서학에 심취하여 조선천주교회 창설을 이끈 천주교인이었다. 신유박해 때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배교를 선언했지만, 생물학적 죽음을 면했을 뿐 사회적 매장과 다를 바 없었던 유배형을 받았다. 그는 흑산도와 우이도에서 16년간의 유배생활로 생을 마감한 유배자이기도 했다. 정약용과 정약종의 형으로 그의 가족들은 천주교 박해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정약전은 가문이 몰락한 중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정약용이나,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여 한국 천주교회에서 순교자가 된 정약종에 비해, 역사적 평가도 높지 않았고 대중적 인지도는 더욱 낮았다. 정약용이 학문의 대가로, 정약종이 순교자로 추앙받을 때, 정약전의 위상은 오랫동안 그들의 형으로서의 존재감 정도로 인식되었다. 학적 연구에서도 정약전은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정약용 연구를 위한 일부로서, 혹은 정약용 연구에 추가 정보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 안에서 정약전의 비중은 두 형제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그는 여행기와 소설, 아동용 도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로 재탄생했다. 이태원은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현산어보를 찾아서』를 다섯 권으로 발표한다. 7년여 동안 흑산도를 다니며 흑산도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약전의 삶을 복원하고자 한 저자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저술한 200년 전의 『자산어보(茲山漁譜)』를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2005년

한승원은 『흑산도 하늘길』이라는 작품으로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소설화했으며, 2011년 김훈 역시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을 다룬 『흑산』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한국 소설계의 두 거장이 정약전을 소설로 호출함으로써 정약전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리고 2021년 이준익 감독은 정약전의 저술인 『자산어보』와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 <자산어보>를 제작·발표한다.

영화 <자산어보>는 2021년 제57회 백상예술대 영화부문 대상을 비롯하여 부일영화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제42회 청룡영화상, 제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제8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2022년 제20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영화부분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준익은 <사도>, <동주>, <박열> 등 역사 속 인물에 집중하는 시대극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은 영화 감독이다.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 역시 역사 속 인물 정약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여행기와 소설을 거쳐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로 성공한 작품이 영화 <자산어보>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화 <자산어보>가 개봉되면서 정약전은 영화의 인물에서 다시 역사의 인물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의 저술인 『자산어보』 오리지널 초판본이 출판되는가 하면, 새로운 번역본들과 자산어보 관련 도서 출판과 재출판이 이어졌다. 오세영의 역사소설 『자산어보』 1·2권, 한창훈의 에세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어린이 인문고전 『정약전과 자산어보』 시리즈, 그림책 『물고기 선생 정약전』 등 정약전과 그의 저술인 『자산어보』 관련 콘텐츠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화 <자산어보>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역시 증가했다.²⁾

2) 정약전과 『자산어보』 관련 작품에 관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을 참조하시오. 『자산어보』 외

정약전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처럼 부상하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정약전 관련 콘텐츠들 특히 영화 <자산어보>이다. 정약전은 정약전 관련 콘텐츠들의 도움으로 정약용과 정약종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자산어보』를 쓴 저술가로 확고한 자신의 입지를 확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전은 학문연구의 대상으로서 역사적인 인물보다는 대중서와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 소비되는 문화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영향으로 역사를 다시 쓴 인물이 정약전이고, 문화콘텐츠를 통해 자기 서사를 완성하는 인물이 정약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힘은 어디에서 파생되었으며, 동시에 또 문화콘텐츠로 소비되는 정약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문화적 현상으로 정약전 관련 다양한 콘텐츠들의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역사적 인물에서 영화적 인물로의 변모과정을 정약용이 남긴 기록과 정약전의 저술 『자산어보』, 그리고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약용의 기록과 『자산어보』 서문은 영화 <자산어보>의 원천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자산어보>는 이들 내용에 근거하여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고찰하고, 역사적 인물 정약전에서 문화콘텐츠 인물 정약전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본고는 영화 <자산어보>에 대한 영화 비평이나 분석보다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정약전이라는 인물 서사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궁극적으로는 역사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역할과 기능 및 가치를 정립하는 데

정약전 관련 다른 도서와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 관련 도서는 생략한다.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정약용이 쓴 「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을 중심으로 정약전의 생애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영화 <자산어보>를 중심으로 역사의 기록에서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정약전 인물의 캐릭터 변화와 서사의 변모 과정을 고찰한다.

2. 『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과 정약전

1) 생애 구축을 위한 원천자료의 활용

정약전의 생애는 관변 기록 외 주로 정약용의 글을 통해 알려져 있다. 정약용과 정약전이 함께 주고받은 서간뿐 아니라 정약전이 죽은 후에 정약용이 쓴 「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은 정약전의 생애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은 대표 사료로 인정받아 온 글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정약전의 전기적 생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사실 그대로로 확증할 수는 없다. 이 글 역시 정약용의 관점으로 바라본 정약전을 기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약용의 의도하지 않은 착각, 기억의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역사기록물처럼 「선중씨묘지명」 역시 본격적인 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사료 비판이 전제되어야 할 텍스트이다. 이 장에서는 「선중씨묘지명」을 통해 정약용에 의해 재구성된 정약전의 생애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영화 <자산어보>에 삽입되거나 다시 재구성된 서사들을 분석한다.

또한 「선중씨묘지명」은 정약전 관련 콘텐츠들의 원형, 원천자료

라 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³⁾ 「선중씨묘지명」을 정약전 관련 문화콘텐츠의 출발 텍스트로 본다면, 사료 비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글을 통해 드러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 형상화 방식에 주목할 수도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콘텐츠의 매체적 특성과는 다르지만, 이 글 역시 현재적 관점에서 보자면 “묘지명”이라는 콘텐츠 생산 방식을 통해 구현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묘지명이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일생의 행적을 개괄하고 평가하는 글 또는 그 글을 비석에 새긴 것이다. 무덤에 사용하는 비를 묘비라고 하는데, 묘비에는 지상에 세우는 신도비(神道碑), 묘갈(墓碣), 묘표(墓標), 신도표(神道表) 등과 지하에 묻는 묘지(墓地)·묘지명(墓誌銘) 등이 있다. 묘 앞에 세우거나 묘에 묻는 비에 새기는 모든 양식의 문장을 묘도문자(墓道文字) 혹은 비지문(碑誌文)이라 부르기도 한다.⁴⁾ 묘도문자 가운데 묘지명만을 보면, 묘지명은 크게 지(誌)와 명(銘)으로 구성된다. 지(誌)는 죽은 이의 성씨·본관·일생 등을 산문으로 나타낸 부분이고, 명(銘)은 앞에 산문으로 지은 내용을 운문으로 개괄한 부분이다. 지와 명 가운데 한쪽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지와 명 앞에 서(序)를 두는 것은 묘지명병서(墓誌銘并序)라고 한다.⁵⁾ 당·송 이후로 많은 문인들이 묘주인 망자의 악을 감추고 선을 추켜드는 아첨하는 글인 유묘(諛墓)의 글을 팔았으니 묘지명도 당시로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되는 문화콘텐츠의 특성

3)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라는 의미에서 ‘문화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문화원형’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모호성과 심오함이 문제가 되어, 문화원형보다는 본고에서는 문화콘텐츠 작품의 “source”라는 의미로, 출처, 근원, 원천의 의미로 ‘원천자료’, ‘원천텍스트’, ‘출발텍스트’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문화원형’에 대한 개념 문제는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6, 2005’를 참고할 것.

4)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개정판, 547쪽.

5) 위의 책, 548쪽.

을 보여준 것들도 있었던 셈이다. 묘지명은 묘역의 표지와 점유, 가계(家系)의 지난 일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하는 일 등에 유효하다.

작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묘지명도 있었는데,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이 대표적인 예다. 묘비나 묘지는 묘주의 덕행과 학문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묘주와 학문 및 정치상 대립되었던 인물의 경우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 이때는 상대방 측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⁶⁾ 묘주를 칭송하는 것으로든 반대로 묘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든 묘지명은 이미 사실 그대로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왜곡과 변주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글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묘지명을 사료적 가치로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학문연구 자료로서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입장에서 더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정약용이 정약전의 묘지명을 비롯하여, 자신의 묘지명, 지인들과 가족들의 묘지명을 쓴 것도 일반적인 묘지명 쓰기의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정약용은 죽은 이들의 삶과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서만 묘지명을 쓰지 않았다.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인한 가문의 몰락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변호하고자 묘지명을 남겼다. 그가 남긴 지인들의 대부분은 서학과 관련하여 가문의 멸문지화와 얽혀있던 인물이다. 때문에 그의 묘지명은 자신과 가문의 복권을 희망하며 쓴 기록이기도 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묘지명이 여타의 묘지명과 다른 특징이다. 정약용이 정약전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긴 「선증씨묘지명」도 마찬가지다.

정약전과 함께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던 정약용은 18년 만인 1818년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후 1823년 자

6) 위의 책, 563쪽.

신의 회갑연을 지내고, 자신의 자찬묘지명과 가족들, 지인들의 묘지명을 여러 편 쓴다. 정약용은 집중본과 광증본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자찬묘지명 두 편과 자신의 선친인 정재원, 형제 정약현, 정약전, 서모 김씨, 맏형수 공인 이씨, 정약전의 아들 학초, 자신의 아들 농아 광지의 묘지명을 각각 남겼다. 지인으로는 녹암 권철신, 정현이가환, 복암 이기양, 매장 오석충, 남고 윤지범, 무구 윤지눌, 금리 이유수, 웅산 윤서유 등의 묘지명도 남겼다. 특히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인물들의 묘지명을 여럿 남긴 것이 특기할 만하다. 정약전의 묘지명 역시 그중 하나였다. 이 묘지명은 1816년 정약전이 죽은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7년 후인 1823년 이후에 정약용이 쓴 글이고 당시 정약용의 의식 세계가 반영된 글이다. 이를 전제로 「선중씨묘지명」을 통해 정약전의 생애와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중씨묘지명」은 묘지명이 지닌 일반적 형식에 따라 산문으로 된 지(誌)에서 정약전의 본관, 성씨, 일생과 그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계도와 성장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약전의 자는 천전(天全), 누호는 일성재(一星齋), 호는 매심(每心)이며 섬으로 귀양간 후로는 손암(巽菴)이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삼웅(三雄)이다.⁷⁾ 1801년 신유박해로 처음에 신지도로 유배갔고,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흑산도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죽는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의 아버지 정재원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의령 남씨가 정약현을 낳은 후 사망하여, 고산 윤선도의 후손인 해남 윤씨와 재혼하였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정약전이

7) 어렸을 때 이름이 '삼웅', 셋째 아들을 연상하는 이름인데, 실제로 정약전은 둘째였다. 혹시 정약현과 정약전 사이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지만, 현전하는 기록으로는 정약전은 정재원의 둘째 아들이자 해남윤씨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다.

었다. 1758년 3월 1일에 태어나 1816년 6월 6일 현재의 우이도,⁸⁾ 당시의 내흑산도에서 생을 마쳤으며 묘는 충주 하담을 거쳐 현재는 천진암 천주교 성지에 있다.⁹⁾ 해남 윤씨도 정약전이 13세, 정약용이 9세 때 일찍 세상을 떠난다. 여기까지는 전기적 사실을 그대로 정리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정약전의 성격 부분이나 천주교 관련 부분은 정약용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진술이다.

정약전은 어려서는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고, 커서는 사나운 말이 길들어지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지내며 넓게 듣고 뜻을 고상하게 하였다. 성호 이익의 학문을 이어받아 학업을 연마하고 글을 익혔다. 녹암이 주도하는 주어사 강학에 참여하였고, 이승훈을 비롯하여 권철신 문하에서 함께 배우고 수양에 힘썼다. 1783년 계묘년이었던 26세에 진사가 되었으나, 대과(大科)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영화 <자산어보> 첫 장면, 정조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인용된다. 정약전은 정약용이 이벽을 따라 역수(曆數)의 학문에 대해 듣고 연구했으며, 천주교의 학설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기술한다. 성호 이익을 비롯하여 정약전이 교류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학자들이었고, 녹암 권철신, 이승훈, 이벽 모두 이후 정약전과 함께 한국 천주교 초기 교회 설립을 주도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정약전 역시 한국 천주교 설립을 주도한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였다. 정약전을 통해 정약종, 정약용, 윤지충 등이 입교하게 된다.¹⁰⁾

8) 현재의 우이도는 당시 내흑산도, 소흑산도로도 불렸다. 흑산도로 유배간 정약전은 현재의 우이도인 내흑산도에서 유배를 시작하여 현재의 흑산도로 옮겨가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으며, 다시 우이도로 돌아와서 죽었다.

9) 「선증씨묘지명」에서는 정약전이 죽은 지 3년 만에, 즉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정약전을 충주 선산에 모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옮김,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299-303쪽.

그러나 정약용은 「선중씨묘지명」에서 정약전이 “몸으로 종교를 믿지는 않았다”고 서술한다. 이는 정약용이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천주교의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약용은 열수 즉 현재의 마재로 강진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 묘지명을 썼던 회갑 당시까지도 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천주교는 당시에 경계해야 할 종교였다. 때문에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묘지명에서 정약전은 그들을 변호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¹¹⁾

정약전은 큰형 정약현과 동생 정약중, 정약용, 서자였던 정약형까지 5형제 중 둘째였다. 정약용의 묘지명 중에는 「서모김씨묘지명」이 있는데, 서모 김씨는 약형의 친모로, 1773년 정약용이 12세 때 들어온 분이다. 서모 김씨뿐 아니라 정약용은 정약현의 처였던 큰형수의 묘지명 「말형수공인이씨묘지명」도 남기는데, 큰형수는 이벽의 누이로 1780년 서른한 살의 나이로 죽었다. 특히 큰형수의 제사는 정약전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묘지명 부록이자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갑진년(1784, 23세) 4월 보름날 큰형수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 형제가 이덕조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물결을 따라 내려오다가 배 안에서 천지조화의 시초와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의 이치에 대해 듣고 황홀하고 놀랐는데 마치 은하수의 끝없음과

11) 정약용은 1836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말년에는 천주교에 다시 귀의하여 회개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천주교 기록에는 남아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배교자보다는 ‘회개자’로 명명되곤 한다. 그러나 학계서는 그를 천주교 신자로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묘지명을 쓸 당시까지, 또 그 이후의 정약용 자신이 남긴 기록에서 천주교 관련 내용을 현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았다. 서울에 온 후 또 덕조로부터 『실의』와 『칠극』 등 여러 권의 책을 보고 혼연히 그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때는 제사지내는 일을 폐한다는 설이 없었는데 신해년(1791년) 겨울 이후로 나라에서 더욱 엄중히 금하자 한계가 드디어 구별되었다. 다만 얽혀 매인 것은 풀기가 어려웠으니 칩이나 등나무 얽히듯 하여 명확하게 화란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막아낼 수가 없었다.¹²⁾

위 인용문에서 정약용은 정약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천주교 입교 과정과 천주교에서 멀어진 내력, 천주교로 인한 집안의 화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784년 정약용과 정약전의 형수 4주기 제삿날에 누님의 제사를 찾아왔던 이벽을 통해 이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배에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 천주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정약전과 정약용은 큰형수 제사 때문에 서학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1790년 당시 북경 교구장이었던 구베아 주교가 조선 천주교인들에게 제사 금지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진산사건 이후 천주교를 떠났다. 제사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천주교를 떠난 것 역시 제사가 계기가 된 셈이다. 이미 천주교를 떠난 이후였지만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연루되어 정약종은 참수당하고 정약전과 약용은 각각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천주교 때문이었지만 정조 승하 이후 노론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이

12) 정약용, 박석무 역주, 「선증씨묘지명」, 『다산산문선』, 창비, 2014년 개정증보판, 257-25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甲辰四月之望 既祭丘嫂之忌 余兄弟與李德操 同舟順流 舟中聞天地造化之始 形神生死之理 愉悅驚疑 若河漢之無極 入京又從德操見實義七克等數卷 始欣然傾嚮 而此時無廢祭之說 自辛亥冬以後 邦禁益嚴 而哇畛遂別 唯其綰結之難理也 如藤如葛 明知禍患之來 而亦莫之爲矣 嗚呼 與其骨肉相殘 以保其身名 曷若順受顛覆 而無 愧乎天倫 後世必有知其心者矣”

기도 하였다.

천주교와 관련한 내용에서 정약용은 이미 정약전이 천주교에서 떠났음에도 “쫓이나 등나무 얽히듯 하여 명확하게 화란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회한을 고백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유배에 대한 억울함의 표현이자, 천주교와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후 자신의 가문을 더 이상 그 화에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한 의도를 반영한 표현이다. 정약용은 묘지명 마지막에 “오호, 골육이 서로 싸워 자기의 몸과 이름만을 보존한 것과 순순하게 받아들여 얻어지고 뒤집혔으니 천륜에 부끄럼 없음이 어떻게 같을 것인가. 후세에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정약전 가문은 천주교와 관련해서 정약종, 정약용, 정약전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벽, 황사영, 이승훈, 윤지충 등 가족 방계로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의 대부분과 얽혀있다. 자신들이 천주교를 떠났다고 해도 이미 가족 중에 천주교와 얽힌 이들이 많았다.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천주교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때문에 정약용은 가족이 서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천륜을 지킴으로써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화를 알아줄 이, 자신들의 억울함과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리라는 목적과 희망을 지니고 묘지명을 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약용이 쓴 묘지명은 죽음의 기록, 망자를 기억하는 추모의 글이기보다는 사회적 생명을 되찾고자 하는 생명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조가 태어난 1790년 경술년에 증광별시가 실시되었고, 정약전은 이에 응시해서 과거에 합격하여 병조좌랑을 지냈다. 정약용은 정약전이 서학 즉 천주교와 연루되면서 벼슬길부터 평탄치 못했다고 기록한다. 신유년인 1801년에 사학죄인으로 정약전은 흑산도

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을 갔는데 신유년 11월 하순에 나주성 울정점에서 헤어진 후 형제는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나주성 울정점에서 헤어질 때의 소회를 이후에 정약전과 정약용은 시로 남겼다. 이 시는 영화 <자산어보>에서 울정점 장면에서 함께 소개된다. 이러한 시의 삽입과 흑백 영화를 통한 수묵화 같은 이미지는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하다. 또한 원천자료를 활용한 좋은 예이기도 하다.

정약전은 1816년 6월 6일 내흑산 우이보에서 59세의 나이로 죽는다. 정조의 명에 따라 조정에 있을 때 『영남인물고』를 편찬했으며, 유배지에서 『논어난』, 『역간』, 『송정사의』, 『표해시말』, 『자산어보』 등의 저술을 남겼다. 현재 『자산어보』뿐 아니라 『송정사의』와 『표해시말』이 발굴되어 번역 소개되었으며,¹³⁾ 영화 <자산어보>에서 『송정사의』와 관련한 내용, 『표해시말』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재구성되어 삽입되었다. 결국 영화 <자산어보>는 동명의 저술인 『자산어보』만이 아니라 정약전이 유배 시절에 쓴 모든 저술과 유배 기간 전체를 흑산도에서 쓴 『자산어보』 저술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고 각색하여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대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영화의 양식으로 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콘텐츠로의 전이와 확산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생애를 「선중씨묘지명」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선중씨묘지명」에 기반한 생애의 기본

13) 『표해시말』과 『송정사의』는 이강희 문집에 전한다.

이강희, 김형만·김정섭 옮김, 『운곡잡저(雲谷雜稿)』, 신안문화원, 2004.

이강희, 김형만·김정섭 옮김, 『유암총서(柳菴叢書)』, 신안문화원, 2005.

서사를 따르면서도 영화의 내용은 「선중씨묘지명」의 변이와 확장을 통해 구축된다. 이때 영화 <자산어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캐릭터, 인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이다. 정약전을 둘러싼 인물들과 인물 관련 스토리들이 삽입되면서 묘지명이나 시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약전의 일상을 영화에 담는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원형적 문화 요소를 발굴하여 새로운 미디어 및 장르와 융통합 하는 도전적 시도를 통해, 문화의 자생력을 이해하고 재구력을 실천하는 창조적 경험의 장이다.¹⁴⁾ 다양한 현대적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각 분야의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유기적 영역이다.¹⁵⁾ 이러한 문화콘텐츠로서의 면모를 영화 <자산어보>는 잘 반영하였다.

묘지명에 따르면, 정약전의 아내는 풍산 김씨로 김서구의 딸이고, 그 사이에서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두었다. 아들은 학문을 좋아하였지만 장가들고 요절한 학초이며, 민사검에 시집간 딸이 한 명 있었다. “첩에게서 학소와 학매 두 아들을 낳았다.”는 한 구절을 덧붙이는데, 이는 영화에서 가거택과 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이른다.

공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때부터 더욱 술을 많이 마셨는데 상스러운 어부들과 천한 사람들과 패거리가 되어 친하게 지내며 다시는 귀한 신분으로서의 교만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섬사람들이 기뻐하여 서로 다투어 자기 집에 있어주기를 원했다. 그러는 동안 우이로부터 흑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약용

14) 조은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콘텐츠」, 『콘텐츠 문화』, 1,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12, 101쪽.

15) 이남희, 「문화원형사업과 공연문화콘텐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2009, 263쪽.

이 석방된다는 것과 또 이미 대계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차마 내 아우로 하여금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나를 보러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마땅히 우이보에 나가서 기다려야지.”라고 하고 우이로 돌아가려 했다. 흑산도 사람들 중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공을 붙들고 떠나지 못하게 하자 공이 우이보 사람을 시켜서 야밤을 틈타 안개 낀 때에 첩과 두 아들을 배에 싣고 돛대도 내리고 몰래 빠져나갔다.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자 흑산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서 급히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와 배를 빼앗아 돌아오니 아무리 사정해도 방법이 없었다. 한해가 넘도록 공이 섬사람들에게 약용과의 정리를 가지고 애걸하여 겨우 우이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중략) 공이 우이보에서 나를 기다린 것이 3년이나 되었지만 약용이 끝내 오지 않자 마침내 아우를 만나보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시고 말았다.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나서야 (1818) 겨우 울정의 길목을 거쳐 돌아올 수 있었으니 악한 자들의 착하지 못함을 쌓던 것이 이와 같았다.¹⁶⁾ (밑줄 논자)

인용은 「선중씨묘지명」의 끝부분이다. 특히 구체적인 정황 소개와 경과보고를 통해 서사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유배 생활 중 정약전의 인간관계, 그의 성품과 일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약전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어부들과 사귀었으며, 첩을 얻어 두 아들을 낳았고, 죽는 날까지 동생 정약용을 그리워했다. 이

16) 정약용, 앞의 책, 254-25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公自入海中 益縱飲 與魚蠻鳥夷爲儔 侶 不復以驕貴相加 島氓大悅 爭相爲主 聞自牛耳入黑山 聞鏞蒙放 既又臺啓停止曰 不忍使吾弟 涉重溟以見我 我當於牛耳堡待之 將歸牛耳 黑山人其豪桀竝興 執公不可動 公潛令牛耳人乘夜 霧中載妾與二子剗船去 平明黑山人覺之 急以船追至中洋奪還之 無可奈何 積歲餘 公與鏞以情 理哀乞 僅還牛耳 會姜浚欽疏沮之 禁府不發關 公待我於牛耳者三年而鏞不至 竟含恨以歿 既 歿又三年 乃歸 由栗亭路 惡人之積不善如是矣”

내용은 정약전 관련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인데, 영화 <자산어보>에서도 주요 등장인물을 구성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흑산도에서 정약전의 가족관계, 일상, 캐릭터 설정에 반영되었다.

현대의 문화콘텐츠에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야밤을 틈타 안개 낀 때에 첩과 두 아들을 배에 싣고 돛대도 내리고 몰래 빠져나갔다.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자 흑산도 사람들이 알아차리려고서 급히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와 배를 빼앗아 돌아오니 아무리 사정해도 방법이 없었다.”와 같은 장면은 시각화를 통해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다, 밤안개, 배와 돛대, 흑산 그리고 정약전의 가족의 모습은 그대로 영화 <자산어보>의 영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면이며 감독은 이를 영화 <자산어보>에 담아냈다. “묘지명”이라는 과거의 고루한 양식 안에 현대적인 영화 매체로도 잘 구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영화 <자산어보>는 「선중씨묘지명」의 한 부분을 영화라는 현대화한 문화콘텐츠로 담을 수 있었다.

또한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을 정약전의 일상으로 재구성한다. 그는 술을 마시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동생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를 떠날 때 흑산도민들이 만류한 예화를 통해 흑산도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유추할 수 있다. 유배인이었지만 지배층이었던 정약전이 사람들과 신분에 무관하게 어울렸던 면모는 그가 『자산어보』를 집필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자산어보』는 섬사람들 특히 정약전이 언급했던 장창대 및 흑산도 어민들의 도움 없이는 쓸 수 없었던 저술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악한 자들(惡人)’은 정약용의 해배를 반대하고 상소를 올린 강준흠과 같은 이들이다. 그들이 가

로막지만 앓았어도 정약용의 해배는 진행되었을 것이고 두 형제는 재회할 수도, 또 정약전이 더 오래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원통함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정약전이 죽고 2년여 후인 1818년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글을 쓴 것이 정약전이 죽은 지 7년째, 정약용이 회갑을 맞은 1823년이니 그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은 원통함이 ‘악인’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¹⁷⁾ 정약용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다 겸하여 지기(知己)까지 되어준 것도 또한 나라 안에서 한 사람뿐”이었다며, 정약전을 형으로뿐 아니라 자신의 지기라고 고백한다.

무성하게 숲이야 우거졌지만
 묘소의 지세가 농사도 지을 만한 곳이라
 예리한 쟁기로 갈아엎지나 않을까
 우선 묘지명을 기록해둔다.
 이 묘는 진실로 철인(哲人)의 뼈가 묻혀 있는 곳으로
 드러나게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일찍부터 주공과 공자를 사모하느라
 우리들과는 벗도 삼지 않았네.
 하류의 평민들과 노닐었으나
 살육의 위험만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도 터졌건만
 가로막는 사람 때문에 큰 벼슬 못하고

17) 정약용의 묘지명에는 ‘악인’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고종 때 1885년에서 1886년 고종의 명령으로 정약용의 글들을 필사하여 고종에게 올린 『어람본 여유당집』에는 정약용 자신의 묘지명 및 정약전의 묘지명, 이가환, 권철신, 이기양, 오석충 등의 묘지명들이 제외되어 있었다. 『어람본 여유당집』은 현재 규장각본이다. 이는 정약용 후손들이 악인이라고 지칭된 이들에 대한 보복에서 당시까지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뒤집히는 난리를 만나
 먼 바닷속 풀집으로 귀양살이 갔었네.
 정밀한 지식과 밝은 식견을
 묵묵히 마음속에만 감추어두고
 못 잇을 것은 부모님 곁인 양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와 묻혔네.¹⁸⁾

묘지명 중에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해배된 후 정약전의 묘를 선산이 있었던 충주로 이장하였다. 정약전을 ‘철인(哲人)’으로 호명하면서, 공자를 사모하고, 하류의 평민들과 어울렸으며, 정밀한 지식과 밝은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먼 바다 풀집”으로 귀양을 가고, 지식과 식견이 높았던 정약전이 신분을 막론하고 사람들과 어울렸으나 시대의 불운 속에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음을 애석해하는 정약용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정약전은 정약용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우이도로 이주했다. 정약전은 우이도에서 흑산도로, 다시 흑산도에서 우이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우이도는 당시 소흑산도 혹은 내흑산도로 불렸으며, 흑산도에 속한 지역이었다. 현재의 흑산도는 대흑산도, 현재의 우이도는 내흑산도 혹은 소흑산도로도 불렸다. 정약전의 유배지는 흑산도로 알려졌지만, 정확하게는 현재의 흑산도가 아닌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했다. 유배를 마치고 죽은 곳 역시 우이도

18) 정약용, 앞의 책, 257-25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행 구분 생략)

“纍纍之叢 地又宜耕 犁刀攸觸 先獲我銘 是固哲人之骨 毋暴毋嬰 夙慕姬孔 友不我與 游乎祿祿 待以刀俎 翱翔乎朝廷 闕而弗敘 遂遭顛躋 竄于海苔 精知慧識 默焉內斂 是唯先人之域 遙遙來窆”

다. 그러나 현재 우이도보다는 흑산도가 정약전 관련 문화콘텐츠들을 통해 역사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곳이 무엇보다도 정약전의 대표저술인 『자산어보』가 집필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흑산도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신안군이 협력하여 순례지이자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유배공원이 조성되었고, 손암 정약전 유배 적거지와 그가 섬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산어보』를 집필하였던 장소로 알려진 사촌서당이 복원되었다. 문헌에 남아 있는 실제 이름은 ‘사촌서실(砂村書室)’이다. 그런데 이 서실이 구전을 통해 ‘복성재’로 와전되다가 정약전 유배지 개발과 함께 ‘사촌서당’으로 복원되었다. 사촌은 그 지역의 이름인 사리마을의 한문 지명이다. 역사적 고증이 이미 밝혀진 이름인데도 서실이 아니라 서당으로 복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신안군에서는 이 서실을 복원하면서 사촌서당의 현판을 정약용의 서체로 제작하였다. 영화에서는 ‘복성재’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자산어보>의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이 영화를 찍고 『현산어보를 찾아서』의 저자인 이태원에게 <자산어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복성재라는 것은 이태원이 자신의 책에서 쓴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⁹⁾ 이상과 같이 정약전의 생애와 저술은 텍스트나 영상 콘텐츠로서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도 확장되고 있다. 영화 <자산어보>가 개봉되면서 흑산도만이 아니라 영화의 세트장이 있었던 도초도까지도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19) 조연경, 「인터뷰 ② : 창작과 날조 사이, 이준익 감독 밝힌 역사물의 가치」, 『일간스포츠』, 2021.03.27. (검색일자: 2022.10.05.) 이 인터뷰 기사에서 이준익 감독은 “‘자산어보’를 번역한 정명현이라는 저자에게 시나리오를 줘 고증과 관련된 50 몇 군데를 지적받아 수정했다. 또 ‘현산어보’ 이태원 작가에게도 시나리오를 보내 수 십 군데를 지적받았고 수정했다. 물론 고증의 뜻을 100% 수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3. 영화 <자산어보>로 구현된 정약전

1) 정치적 인물에서 일상의 이웃으로 : 수평적 관계의 구축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대표저술인 『자산어보』와 동명의 제목이다. 『자산어보(茲山魚譜)』는 흑산도 근해에 서식하는 어류를 기록한 조선시대 어보이며, 이 책의 서문과 본문에 장창대라는 인물의 이름이 인용된다.²⁰⁾ 『자산어보』는 1814년에 정약전이 유배지 흑산도에서 만난 장창대와 함께 저술했으며, 그의 사후에 정약용의 제자 이청에 의해 보완된 책이다. 자산(茲山)은 흑산(黑山)의 별칭이다. 영화에서도 인용된 자산에 대한 정약전의 설명은 『자산어보』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자산은 흑산이다. 나는 흑산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흑산이라는 이름은 어두운 느낌을 주어서 무서웠다. 집안사람의 편지에서는 번번이 흑산을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자’ 역시 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²¹⁾

『자산어보』가 어보이며 해양생물학 서적이라고 한다면,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쓰게 된 경위와 집필 과정을 정약전과 관련 인물을 통해 서사화한다. 때문에 영화 <자산어보>는 『자산어보』의 내용보다는 정약전의 유배지 생활이 중심이다. 영화의 시작은 정조와의 대화, 정조 사후 신유박해로 처벌받는 정씨 가문 형제들, 그리고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의 유배 장면으로 시작한

20) 서문과 본문에 장창대는 모두 아홉 번 인용된다.

21) 정약전·이청,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30쪽.

다. 정조는 천주교를 믿는 두 형제에게 남들에게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명했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었던 정조가 죽은 후 천주교가 빌미가 되어 그들의 정적들에 의해 정약충은 참수,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형을 받는다. 영화는 이러한 과정을 영화 도입에 전면화시키면서 종교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유배의 배경으로 드러낸다. 은폐와 변명의 방식으로 기술해야 했던 정약용이 남긴 묘지명에서와는 달리 종교 및 정치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오히려 영화의 흥미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드러내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종교나 정치적 갈등을 주제로 한 영화는 아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대에 맞게 영화의 배경으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전면화했을 뿐이다.

정약용의 글에서 천주교는 은폐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되었다. 61살의 정약용은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온 처지였지만, 그에게 천주교는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위해 여전히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정약용은 정약전과 생전에 나눈 편지에서도 또 그의 사후에 쓴 묘지명에서도 천주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거론하지 않으려 했다. 배교를 했는데도 자신들에게 천주교인이라는 누명을 씌운 노론 때문에 유배당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 전략이 그의 글에는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영화는 천주교를 전면으로 부각시킨다. 신유박해로 정약전 형제가 옥에 갇히고 처벌받고 귀양을 가는 장면이 강조되었고, 유배 이후에도 정약전은 천주교인으로서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로 등장한다.²²⁾ 종교적 언술도 영

22) 이 부분은 천주교와 사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같은 천주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점이다. 정약용, 정약전이 배교 이후에도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지니고 유배 생활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다.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서 자유로운 창작물로서의 장르적 성격을 이용하여 정약전이 유배 생활 중에도 천주 신앙을 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에서는 적극적으로 표명된다. 유배 이후에 정약전의 말과 삶은 그가 배교자이기보다는 여전히 천주교인으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약전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보다 동생과 다른 가족의 안위를 헤아려 배교를 과도하게 표명한 인물로 강조되었다. 영화 <자산어보>는 원천자료의 몇몇 요소들을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한다. 특히 천주교인으로서의 갈등은 유배의 원인으로서는뿐 아니라 유배 이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서사적 전략으로 활용된다.

정약전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정약용의 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약전은 새로운 저자들, 감독과 제작자들에 의해 정약용의 형으로서의 정약전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콘텐츠에 맞게 다시 창조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영화 <자산어보>이다. 정약전은 역사적 인물에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한 인물로 변모한다. 이를 위해 천주교가 새로운 서사전략으로 활용된다. 영화 <자산어보>에서 천주교는 정치적 갈등과 유배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유배인으로서 정약전의 일상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한다. 무엇보다도 영화에서 『자산어보』를 함께 썼던 장창대가 사학죄인 정약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화 <자산어보>의 정약전은 흑산도의 서자 신분인 장창대와 소통하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영화는 정치적 인물이었던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장창대를 비롯하여 가거댁 등 섬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웃의 한 명으로 부각시킨다.

장창대, 가거댁 역시 정약전 관련 원천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인물이다. 그들은 유배 이후 정약전의 일상을 함께하는 영화 <자산어

보)의 주요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천주학 때문에 정약전과 장창대가 같았다는 내용은 묘지명이나 서간, 시문, 『자산어보』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정약용은 자신의 묘지명에서 정약전이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당시 유배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정약전이 처음부터 흑산도의 주민들과 친근하게 어울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를 영화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장창대와의 같음을 통해 사학죄인으로 유배를 온 정약전이 겪은 고충으로 극화한다. 또한 천주교를 빌미로 왕권과 지배층인 노론과의 정치적 갈등보다는 영화는 성리학을 주축으로 한 지배층의 이념이 내면화되어 있는 장창대와 성리학만을 추종하지 않는 정약전의 같음을 통해 정약전의 고난을 일상 안에서 보여주고 그의 좌절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정약전은 인내와 포용으로 창대와의 소통을 꾀하는 개방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배교를 선언했던 영화 도입부와는 달리 장창대와의 대화 내용에서 정약전은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된다. 장창대 역시 그를 배교자로 보고 있지 않다. 역사적 기록인 원천자료에서와 다르게 새로운 콘텐츠 안에서 정약전은 배교 이후에도 천주교인으로 혹은 천주교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는 한승원 소설 『흑산도 하늘길』, 김훈의 소설 『흑산』에서도 마찬가지다.²³⁾

가거택도 장창대와 마찬가지로 원천자료에 근거한 인물이다. 영화 <자산어보>에서 가거택은 유배자 정약전을 거두어 보살피며 지내다가 혼인을 하여 두 아들을 낳은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유배지

23) 이들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연구로 이어간다. 『흑산도 하늘길』이나 『흑산』에 서는 특히 영화 <자산어보>의 가거택으로 설정된 인물인 거무와 순매가 모두 천주교인의 딸이다.

에서 정약전의 첩이었던 여인을 모티프로 한다. 정약용이 남긴 묘지명을 비롯한 그의 글, 또 정약전과 나눈 서간, 족보에 따르면,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첩을 얻어 두 명의 아들, 학소와 학매를 얻었다. 정학소(1805.9.14 ~ ?)는 전주 이씨와 결혼하여 아들 정대빈(1836 ~ 1859)을 두었는데, 정약전의 후손은 정대빈의 계보로 이어진다.²⁴⁾ 그런데 정학소의 모친, 영화 속에서 ‘가거댁’은 실제로는 박 씨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향리의 우두머리였던 호장의 딸이었다. 그러나 영화에서 정약전의 첩이었던 여인은 가거도에서 시집을 와서 과부로 지내다가 정약전을 거둬들인 여인으로 등장한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함께 지낸 첩은 정약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한승원의 『흑산도 하늘길』(2005)과 김훈의 『흑산』(2011)에서도 등장한다. 『흑산도 하늘길』에서는 거무이고, 『흑산』에서는 순매라는 인물이다. 둘 다 처녀로 등장하며, 거무는 흑산도로 도망을 온 천주학생이의 딸이고 순매는 유배를 온 천주학생이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

정약전은 가거댁의 도움으로 흑산도에 정착한다. 가거댁과 함께 흑산도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이웃으로 변화한다. 금송정책 때문에 소나무를 캐버리는 가거댁²⁵⁾,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정책으로 고충을 겪는 복례 가족, 또 이를 대신 호소하다 옥에 갇힌 장창대는 모두 정약전의 이웃이고, 정약전은 이들의 이웃으로 변모해 간다. 별장과 거래를 하며 옥

24) 정약전은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학초를 두었으나 학초는 정약전에 흑산도에 유배온 이후 죽는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죽는데, 이 때문에 정약전과 정약용은 정약전 머느리의 양자 문제로 서간을 통해 토론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이미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정학소를 둔 상태였다. 학소는 나주 정씨 족보 권8, 66쪽에는 정학무(鄭學武)로 등재되어 있다.

25) 금송정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목도한 정약전은 첫 번째 유배지였던 우이도에서 『송정사의』라는 글을 남긴다. 영화에서는 이것을 모티프로 삼아 흑산도의 일상으로 각색하였다.

에 갇힌 장창대를 구해주는 사건은 정약전이 장창대에게도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수직적이었던 조선의 신분제도는 유배자로 흑산도에 머물게 된 정약전 안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모된다. 그는 영화에서 종종 자신의 옛 신분을 통해 구축된 친분을 이용하여 별장과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자신들의 이웃을 구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실제로 그가 흑산도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 안에서 맺어진다. 이는 영화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서학, 천주교의 인간관계를 내면화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관의 표출은 영화 <자산어보>가 이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정약전은 영화에서 “임금도 상놈도 구별없는 천주교적 평등세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세상을 정치적 구도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 안에서 구축해 가는 인물이다. 영화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저술과정을 통해 정약전의 평등세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평등 세상으로 향한 그의 좌절과 성공은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도 정약전을 과거의 인물이 아닌 현재적 인물로 소환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2) 우정과 탐구를 통한 스승으로 : 지식의 교환과 창출

영화 <자산어보>는 흑산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이웃의 모습으로 정약전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이 실학자 정약전의 모습, 더 적극적으로는 천주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까지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생존의 서사다. 영화는 흑산도에서 유배자로 살아가는 정약전의 일상을 생존의 서

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이 영화를 유배서사로만 볼 수 없는²⁶⁾ 이유이다. 이웃이라는 수평적 관계의 획득은 다시 새로운 계약 관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사제지간으로의 전환이다.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교환을 통한 지식의 교환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과정이 전개되면서 정약전은 흑산도 주민들의 이웃에서 벗이자 스승으로 변모한다. 여기서 중심인물이 정약전과 장창대이다.

흑산도에서 도착한 정약전은 과부 가거택의 집에 얹혀 지내던 장창대를 알게 된다. 창대는 흑산도에 사는 청년으로,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났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지내면서, 물고기들의 맛을 보고 바다 생물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 한다. 정약전은 창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창대는 자신은 사학죄인을 도울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후 두 인물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영화는 『자산어보』를 저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는다.

조선시대 유배죄인들은 실제로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위한 도움을 얻었다. 유배인은 죄인이지만 그의 원래의 신분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지역 사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탐구를 위해 장창대에게 스승의 길을 자처한다. 이웃으로 구축된 수평적 관계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리학의 지

26) 김선미는 영화 <자산어보>를 유배 서사로 본다. 그는 유배서사의 구성요소인 유배지, 유배인을 중심으로 <자산어보>의 유배서사로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화 <자산어보>가 유배서사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유배의 긍정적인 면과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영화 <자산어보>를 유배서사만으로 분석하는 데는 이 영화의 감동과 주제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김선미의 논문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 영화에서 유배는 오히려 주제를 위한 계기와 배경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김선미, 「영화 <자산어보>의 유배 서사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8권(제1호), 대중서사학회, 2022.

식과 창대가 알고 있는 물고기 지식을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이것은 거래이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표명함으로써 장창대와 자신 사이에서 관계 형성을 막는 ‘사학죄인’이라는 걸림돌을 타개하고자 한다. 그는 지식의 상호 교환행위를 위한 “거래”로 새로운 사제관계 안에서 자신의 지식과 창대의 지식을 교환한다.

정약전은 먼저 창대의 이웃이 되었고, 이후 지식의 교환으로서의 사제관계를 구축한다. 학생이 선생을 찾아오는 방식도 아니었고, 선생으로부터 학생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수직적인 지식의 전수도 아니었다. 스승인 정약전이 학생인 창대를 찾아 그를 몇 번이나 부르고, 창대의 욕망을 이용하여 장창대가 잘 알고 있는 흑산도 어류의 지식을 자신이 이미 체득한 성리학의 지식과 교환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이다. 그런 면에서 평등한 관계이고 우정의 관계와도 같다. 이들의 관계는 영화 <자산어보>의 갈등과 긴장의 서사를 견인하는 힘이며,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면서 감독에 의해 창조된 인물 정약전을 구현한다.²⁷⁾ 이를 위해 영화에서 부각된 인물이 장창대이다.

장창대 역시 실존 인물이다. 장창대는 정약전의 저술 『자산어보』 서문과 정약전의 시에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선 『자산어보』 서문에 기술된 장창대는 다음과 같다.

섬에 장창대 덕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사양한 채 독실히 옛 서적을 좋아하였다. 다만 집이 가난하고 책이 적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음에도 공부한 것이 폭넓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품이 조용하고 정밀하여 무릇 직접 듣거나

27) 영화는 창대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비중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한다.

본 풀과 나무, 새와 물고기는 모두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여 그 생리를 알았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후대 사람들이 상고하여 증험할 자료로 삼았다.²⁸⁾ (밑줄 논자)

이 기록에 따르면 창대의 본명은 장덕순이다. 그의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다만 가난하지만 독서를 좋아했고, 성품이 조용하고 정밀하여 사물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는 인물로 소개된다. “그의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약전의 평가는 영화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사람들은 장창대를
남들보다 뛰어난 선비라 하지.
옛 책을 언제나 손에 들고
오묘한 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초저녁부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바다 소리가 들려오누나.
어찌하면 한낮부터 밤이 다하도록

28) 정약전, 권경순·김광년 옮김, 『자산어보』, 더스토리, 2021, 15쪽.

정명현의 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섬 안에 덕순 장창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면서 독실하게 옛 서적을 좋아했다. 집이 가난해 책은 많지 않은 점을 볼 때, 그가 비록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은 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꼼꼼해 귀와 눈에 수용되는 모든 풀 나무 새 물고기 등의 자연물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고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이들의 성질과 이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뢰할 만했다. 결국 나는 그를 초청하고 함께 숙식하면서 함께 궁리한 뒤, 그 결과물을 차례 지워 책을 완성하고서 이를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지었다.” - 정약전·이청, 앞의 책, 30쪽.

이치의 근원을 깊이 더듬어 볼까. (「장창대에게 부치다(寄張昌大)」)²⁹⁾

정약전이 장창대에게 준 시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유배 중에 자주 시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연세대본 『여유당집』이 발견되면서 정약전의 시 31제 41수를 찾을 수 있었다.³⁰⁾ 정약전은 섬마을의 나무꾼 고기잡이와 어울려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는 시를 지을 수 있는 인물, 흑산도에서는 지식인 층에 속했던 이들도 있었다. 장창대도 그 중 한 명이었다.³¹⁾ 그러나 그와 주고받은 시는 많지 않고, 창대에게 준 두 편의 시만 전해진다. 「장창대에게 부치다(寄張昌大)」에서 정약전은 장창대를 『자산어보』 서문에서와 같이 책을 즐기는 선비로 칭하면서, 한낮부터 밤이 다하도록 함께 ‘이치의 근원’을 궁구(窮究)한 사이였음을 고백한다. 정약전은 자신의 글에서 장창대의 선비적 자질을 강조한 데 비해 영화에서는 창대를 입체적인 캐릭터로 등장시키면서, 정약전과 장창대의 새로운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다.

나주 바다 서남쪽에 한 선비 기이하니
평생 본 적 없지만 서로 마음 알았네.

29) 정약전, 「장창대에게 부치다(寄張昌大)」, 허경진, 『손암 정약전 시문집』, 민속원, 2015, 82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人說張昌大。迢迢逸士林。古書恆在手。妙道不離心。
忽忽初更話。悠悠隔海音。何當窮日夜。到底理源深。”

30) 『여유당집』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전시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은 ‘김영원,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남명학연구』, 3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2’를 참고할 것.

31) 허경진, 앞의 책, 28-29쪽.

엄자릉처럼 인간사 초개같이 여겨
 동강에 물러나 낚시줄이나 손질하네.(「장창대에게 주다(贈張
 昌大)」³²⁾

이 시에서 ‘나주 바다 서남쪽에 한 선비’는 장창대를 이르는 말이다. 정약전은 서로 마음을 알았던 사이라고 고백한다. 시에서 엄자릉은 후한 때 숨어살던 선비(隱士)였던 엄광을 이른다. 엄광은 광무제(光武帝)의 벗이었지만, 광무제가 천자가 된 이후 광무제가 여러 차례 그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은사(隱士)로 지냈던 인물이다. 이 시에서 정약전은 장창대를 엄자릉과 같은 인물로 섬에 숨어살면서 낚시줄이나 손질하며 지내는 선비라고 노래한다. 영화는 정약전이 시로 표현했던 장창대와 이 지점에서 다르다. 정약전이 시문을 통해 전한 장창대는 학문을 좋아하지만 출세의 욕망보다는 오히려 인간사를 초개같이 여기는 초탈한 선비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영화에서 장창대는 정약전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벼슬로 입신하고자 과거에 응시, 진정한 관리가 되겠다고 흑산도를 떠난다. 이웃으로 동료로 장창대와 함께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세상을 『자산어보』로 집필하고자 해던 정약전은 장창대와 갈등 구조 안에서 제자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부각된다. 출세를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끝내 저버리고 성리학의 길을 가는 장창대의 떠남과 실패, 그리도 흑산도로의 귀환의 여정을 통해서 영화에서 정약전은 비로소 장창대의 스승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영화의 감동은 유배의 서사를 통해서보다는 이와 같은 사제지간의 서사를 통해 확보된다.

32) 정약전, 「장창대에게 주다(贈張昌大)」, 허경진, 앞의 책, 7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羅海西南一士奇。生無半面兩心知。嚴陵視履人聞事。却向桐江理釣絲。”

창대는 진사시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을 때까지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정약용처럼 정약전이 『목민심서』와 같은 책을 쓰지 않는지가 불만이다. 결국 벼슬길에 나아가서야 스승을 이해할 수 있었고, 스승 정약전이 떠난 자리로 돌아와 스승의 뜻을 이어가는 인물이 된다. 영화에서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검은색 무명천으로는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냐”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편지는 출세나 성리학을 통해서보다는 일상에서 무명인일지라도 다른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정약전의 가르침이었다. 이로써 영화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은 창대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성리학의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위한 가르침을 그는 창대에게 전수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만이 아닌 영화 <자산어보>가 새로 쓴 스토리텔링으로 가능했다.

영화 <자산어보>는 지식의 교환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그것을 흑산도에서 벗과 같은 스승으로 살아갔던 정약전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벗을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영화 중 정약전의 가르침 역시 제자를 벗으로 호명하면서 그를 기꺼이 자신의 책의 공동저자로 기록하고, 그와 함께 쓴 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정약전이 제자 창대에게 전한 가르침이었다. 영화 결말 장면에서 출세의 길에서 좌절하고 흑산도로 돌아오는 창대의 귀향은 정약전의 유배의 길과 유사하지만, 정약전의 유배처럼 어둡게 시작하지 않는다. 창대는 스승을 통해 깊어졌고, 마침내 스승의 뜻을 아는 제자가 되어 ‘검은색 무명천’의 세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스승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나는 마침내 그를(창대)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 붙였으니,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후대 사람들이 상고하고 증험할 자료로 삼았다. 다만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이로 인해 후세의 군자들이 이를 보완한다면 이 책이 병을 치료하고 이롭게 활용하며 재화를 다스림에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응당 밀천이 될 것이며, 또한 이로써 시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널리 참조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하고자 할 뿐이다. (『자산어보』 서문, 밀줄 논자)³³⁾

인용은 『자산어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정약전은 자신의 책 『자산어보』가 창대라고 하는 지역민과 함께 한 연구하였다고 밝혔다. 장창대라는 이름을 서문에 밝힘으로써 장창대는 『자산어보』와 함께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그는 기꺼이 창대를 자신의 동료로 호명했으며, 그와 함께 흑산도에서 탐구한 지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다. 옛 서적의 고증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에서 불리는 이름을 기록했고 혹은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創名). 또한 이 책의 목적이 백성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지 않았음도 고백한다. 그보다는 백성들의 일상을 위한 책이 『자산어보』였다. 병을 고치고 재화를 운영하는 데 밀천이 되고, 『시경』에 나오지 않은 사물들의 명칭까지도 모아 이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정약

33) 정약전, 권경순·김광년 옮김, 『자산어보』, 더스토리, 2021, 15-16쪽.

전의 저술정신은 이 시대 문화콘텐츠 개발에서도 중요하다.

문화콘텐츠는 한 사람에 의해 창작되는 전통적인 예술과 다르다. 문화콘텐츠는 기획을 하는 사람과 구현을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며, 창작이라는 용어보다 생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³⁴⁾ 문화콘텐츠는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수반하는 문화 상품의 한 부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논리 속에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문화콘텐츠는 자본의 생산성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로의 성격과 목적을 현재에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을 이어가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드러난 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local)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읽고, 지역민과 함께 연대하며,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지 않은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병을 치유하여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복원하고, 생존을 위한 재화구축과 유리되지 않으며, 새로운 시와 사물의 명명까지 아우르며, 지배 담론의 서술전략과는 다른 편집과 대상, 저술 방식을 실천했던 정약전. 그이야말로 이 시대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의 모범이었다. 정약전은 성리학, 실학과 서학, 그리고 자신의 견문을 통합하여 새로운 책, 『자산어보』를 지었다. 그것이 정약전이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로 호명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이다.

정약전 관련 역사의 원천자료에서 스승으로서의 모습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 <자산어보>는 스승 정약전의 모습을 창조하였다. 영화에서 새로 탄생한 스승 정약전의 모습은 문화콘텐츠로서 영화 <자산어보>가 전한 주제이자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34) 송성욱,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80쪽.

가장 중요한 서사 전략이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선택의 이유가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할 때³⁵⁾ 이러한 서사 전략이야말로 ‘그냥’의 선택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³⁶⁾으로 바꾸어 낸 힘이었다.

4. 나가며

정약전은 현재에도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새로운 매체를 통해 계속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지역도 문화콘텐츠로 변화되고 있다.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학문적 저술을 넘어 소설이나 영화 등 각종 콘텐츠로 계속 호출되는 힘은 무엇보다도 이 인물이 당대에 남겼던 『자산어보』에서 비롯되었다. 『자산어보』는 당시의 지배 담론과 다른 새로운 방식과 내용을 담은 혁신적인 콘텐츠였다. 이것이 2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산어보』 관련 콘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중에서도 영화 <자산어보>는 『자산어보』를 새로운 매체로 탄생시킨 문화콘텐츠의 대표작이다.

본고에서는 원천자료로서 정약전 관련 정약용과 정약전이 남긴 글과 문화콘텐츠인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역사적 인물이 영화라는 문화콘텐츠로 변화되는 과정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5) 김정우, 『문화콘텐츠와 선택의 동기』,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22, 9쪽.

36) 위의 책, 101쪽.

영화 <자산어보>는 역사적 원천자료로서의 기록을 토대로 각색과 변이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제작된 작품이다. 특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증을 넘어 스승 정약전의 형상화를 통해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저술 정신을 담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를 담은 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약전은 천주교 때문에 흑산도로 귀양 간 유배자, 사학죄인, 혹은 정약용의 형에서 흑산도 사람들의 이웃이자 벗, 또 스승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촉망받던 학자와 정조의 신하에서 유배자로, 유배자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스승으로, 생존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간을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삶과 학문으로 개척해 나가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의 서사화는 영화 <자산어보>가 이룬 문화콘텐츠로서의 성과다. 동시에 영화 <자산어보>는 역사에서의 원천자료를 어떻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통해 제작되지만, 무엇보다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인문학적 연구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 관련 저술과 인문학에서의 연구성과 및 소설, 여행기 등의 인문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제작된 영화다. 이를 통해 영화 <자산어보>가 탄생시킨 정약전은 19세기 조선의 정약전을 복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 문화콘텐츠가 담아야 할 인문 정신을 보여 준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정치와 종교 및 사상의 탄압 속에서도 지역민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수평적이면서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지 않은 콘텐츠의 개발자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지식과 경험이 공존하는 방법론을 택하며 세상을 탐구하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고자 했던 영화

〈자산어보〉로 탄생한 스승 정약전의 가르침은 영화 속 인물 장창대에게 그러하였듯이 수많은 콘텐츠의 생몰과 함께하는 현대인들, 특히 문화콘텐츠 제작자들과 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기초자료

- 이준익 감독, <자산어보>, (주)씨네월드, 2021.
이강희, 김형만·김정섭 옮김, 『운곡잡저(雲谷雜摺)』, 신안문화원, 2004.
_____, 김형만·김정섭 옮김, 『유암총서(柳菴叢書)』, 신안문화원, 2005.
정약용, 『여유당전서』, 규장각 소장.
_____, 『여유당집』, 연세대학교 소장.
_____, 박석무 역주, 『다산산문선』, 창비, 2014 개정증보판.
정약전·이청,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茲山漁譜)』, 서해문집, 2016.
정약전, 권경순·김광년 옮김, 『자산어보(茲山漁譜)』, 더스토리, 2021.
허경진, 『손암 정약전 시문집』, 민속원, 2015.

□ 단행본

- 김영주, 『자산 정약전(장편소설)』, 이리, 2011.
김일옥, 『물고기 선생 정약전』, 개암나무, 2016.
김정우, 『문화콘텐츠와 선택의 동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김해동, 『정약전과 자산어보 1~2』, 휴먼어린이, 2018.
김 훈, 『흑산』, 학교재, 2011.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개정판.
오세영, 『자산어보 1~2』, 문예춘추사, 2021.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1~5』, 청어람미디어, 2002.
한승원, 『흑산도 하늘길』, 문이당, 2005.
한창훈,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문학동네, 2010.
_____,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문학동네, 2014.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옮김,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 참고논문

- 김선미, 「영화 <자산어보>의 유배 서사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8권(제1호), 대중서사학회, 2022, 13-32쪽.
김영원,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남명학연구』, 3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2, 281-302쪽.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39-54쪽.
송성욱,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75-89쪽.
이남희, 「문화원형사업과 공연문화콘텐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원불교사상연구원, 2009, 261-298쪽.
조은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콘텐츠 : 스토리콘텐츠의 가치와 전망」, 『콘텐츠 문화』, 1,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12, 99-126쪽.

□ 기타자료

조연경, 「인터뷰 ② : 창작과 날조 사이, 이준익 감독 밝힌 역사물의 가치」, 『일간스포츠』,
2021.03.27. (검색일자: 2022.10.05.)

ABSTRACT

A Study on Jeong Yak-jeon, a character reproduced as cultural contents

Kim, Yunsun³⁷⁾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figure Jeong Yak-jeon being reborn as a person of cultural content. Jeong Yak-jeon (1758-1816) was a figur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eong and King Sunjo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called a Neo-Confucianist, Silhak, Fisheriesist, and Biologist. In addition, he was a Catholic who was immersed in calligraphy and led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Catholic Church. During the Sinyu-persecution(1801), Jeong Yak-jeon was sentenced to exile in Heuksando Island and died as an exile in Uido Island and Heuksando Island for 16 years. Above all, Jasan-eobo, the representative work of Jeong Yak-jeon, is also a work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academic value as an encyclopedia of fish and algae in Heuksando Island.

However, since the 2000s, Jeong Yak-jeon has been produced as more creations in cultural contents than as an object of study.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37) Korea University

of Jeong Yak-jeon characters who have been reborn in various ways since the 2000s, focusing on Jeong Yak-yong's records, Jeong Yak-jeon's writings, and the movie Jasan-eobo . Through this, a historical figure named Jeong Yak-jeon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possibilities, and aspect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contents of this era, especially in the movie Jasan-eobo. In the conclusion, we tried to make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in which cultural contents based on historical objects or historical figures such as Jasan-eobo should proceed.

Keywords: Jeong Yak-jeon, Jasan-eobo, Jeong Yak-yong, Cultural Contents, Heuksando, Uido, Catholicism

김 윤 선

전 자 우 편 : teresa67@korea.ac.kr

논문 접수일 : 11월 27일

심사 완료일 :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 12월 21일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유형 연구

박미희¹⁾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유형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펭TV>는 EBS의 어린이 교양 예능 프로그램으로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와 TV와 모바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펭TV>가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여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목이 향유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전제하였다.

<펭TV>의 제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제목 기능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제목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펭TV> 2021년 업로드된 정규 에피소드 50개의 제목을 방송 제목과 비교하여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출연자 강조, 상황 진술, 내용 요약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출연자 강조와 내용 요약의 제목은 콘텐츠 기초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략적인 요약을 활용한 제목은 향유자의 콘텐츠 향유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효과적으로 에피소드의 중심 사건을 반대 결과로

1) 단국대학교 강사

나타내거나 주요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단순 상황만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진술 형태의 제목은 향유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콘텐츠 향유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주제어 : 〈자이언트 팽TV〉, 제목 유형, 제목 효과, 출연자 강조, 상황 진술, 내용 요약

1. 서론

2019년 4월 첫 방송된 EBS <자이언트 펭TV>(이하 <펭TV>로 표기함)는 펭수라는 이름을 가진 펭귄 캐릭터를 앞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 펭수가 210cm의 키에 거대한 몸으로 다른 펭귄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스타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한국으로 온 후 EBS 연습생이 되어 겪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펭수는 남극에서 온 거대한 펭귄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기존 인기있던 EBS 캐릭터와 상반되는 성격을 보이며 주요 향유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향유자 범주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펭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은 물론 펭수 자체로서도 광고,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등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영향력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펭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²⁾

<펭TV> 인기의 주요 요인이 펭수라는 캐릭터에 있음은 자명하다. 펭수는 귀엽고, 착하고, 정의롭고 밝은 기존 유아 및 아동 콘텐츠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달리 다채로운 성격을 보이며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며 슬픔, 화남, 기쁨 등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³⁾ 펭수의 이러한 성격은 2,30대 성인 향유자들의 감정을 대변하면서 향유자 범주를 확장할 수 있었고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 연구는 '김윤경, 「'펭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이화어문논집』, 제54권, 이화어문학회, 2021, 335쪽'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 김희경, 「펭수의 멀티 페르소나 연구」, 『반영과 재현』, 제2권, 현대영상문화연구소, 2021, 31쪽.

했다. 그 결과 <펑TV>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어린이로 한정되었던 소재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였다.⁴⁾

<펑TV>가 갖는 변별성은 펑수뿐만이 아니다. <펑TV>는 “TV와 모바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어린이 교양예능”⁵⁾이라고 설명하며 첫 방송부터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있지만 방송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며 향유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매체는 TV가 유일하여 개인의 채널 선택권은 드물었지만 초고속 인터넷 회선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간·공간 제약이 없어지면서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개인 단위 시청 패턴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⁶⁾ 이러한 점에서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여 콘텐츠 향유가 가능한 <펑TV>는 시청 패턴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개인 채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어린이 향유자는 기존 매체인 TV를 중심으로 <펑TV>를 향유하고 개인 채널 선택권에서 자유로운 성인 향유자는 개인이 편한 시간에 <펑TV>를 향유한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방송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펑TV>의 향유층을 넓히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펑TV>의 변별적 특성 가운데 플랫폼의 확장에 주목

4) <펑TV> 초기의 내용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거나 어린이 출연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연봉 협상이나 업무 수행과 같은 확대된 성인 향유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또한 <6시 내고향>,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같은 주요 향유층이 어린이가 아닌 프로그램을 적극 차용하여 재미 요소를 확보하기도 한다.

5) EBS <자이언트 펑TV> 홈페이지, <https://home.ebs.co.kr/giantpeng/etc/1/htmlMenu>

6) 이병찬, 「MZ세대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 『혁신성장』, 2021-34, (주)NICE디앤비, 2021, 3쪽.

하였다.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함께 유튜브의 성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 콘텐츠 시청 환경이 변화하였고 개인 채널 선택권이 마련되면서 콘텐츠를 향유하는 중심축이 유튜브를 비롯한 OTT로 이동하였다.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은 기존 미디어 권력을 개인에게로 분산시키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어 제작자는 물론 향유자의 개인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러한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기반으로 팽수의 독특한 캐릭터가 부각될 수 있었으며 여타의 인플루언서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콘텐츠 전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팽TV>를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어 향유자에게 선택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튜브의 콘텐츠들은 제목이나 썸네일을 활용해 향유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다. 또한 유튜브는 방송 시간에 따라 확인할 수 일반 시청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언제든지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보다 오랜 기간 향유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연구는 <팽TV>가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유튜브 환경에서 향유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용 스크린의 확산은 새로운 수요의 물꼬를 트며 폭넓은 선택권과 접근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이 곧 ‘화폐 가치’가 되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광고를 판매하는 기반이 된다.⁷⁾ 이러한 점에서 향유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7) 로버트 킨슬·마니 페이반, 신솔잎 옮김, 『유튜브 레볼루션』, 더퀘스트, 2018, 49쪽.

이 매우 중요한데 “헤드라인은 소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포장하는 핵심”⁸⁾이다. 이에 <펑TV>가 향유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콘텐츠 향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펑TV>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상이어도 방송⁹⁾ 제목과 유튜브 채널 제목이 다르다. 방송 제목은 대부분 명사구로 처리하여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며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여준다. 반면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송 제목이 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거나 펑수나 제작진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발화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3일에 업로드된 에피소드 200의 방송 제목은 “펑수의 여름방학”이며 부제로 “펑수, 뒤늦은 여름방학을 떠나다”라고 설명한다. 9월이라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여름방학의 시기에서 벗어난다 점을 알려주고 ‘떠나다’라는 동사를 선택하여 펑수의 일상이 펼쳐지는 방송국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일한 에피소드의 <펑TV> 제목은 “참..참치잡이 배에 펑수 팔아버렸습니다”이다. 제목만 보았을 때에는 영상 전반의 평온하고 여유로운 정서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제작진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사건으로 위기감만 드러난다. 이 제목으로 향유자는 펑수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흥미를 갖고 영상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펑TV>의 제목이 방송 제목과 차이를 보이고 유튜브 환

8) 팀 스테이플스·조시 영, 이윤진 옮김, 『유튜브 7초에 승부하라』, 매일경제신문사, 2020, 168쪽.

9) 유튜브 채널과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동일한 관계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펑TV>”로 표기하거나 “방송”으로 약칭하며 별도의 설명 없이 <펑TV>로 표기하는 것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펑TV>를 뜻한다.

경에서 향유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유형을 분류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목의 기능

국어사전에 따르면 제목은 “작품이나 강연, 보고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을 뜻한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제목은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하여 향유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목의 효율성으로 제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대상에서 논의되었다.¹⁰⁾

제목의 기본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할 경우 향유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부각되지만 반대로 향유자 취향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어 향유자가 관심이 없거나 흥미롭지 않은 내용을 다룬다는 정보를 통해 콘텐츠 선택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도 있다. 제목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지만 대상을 수용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¹⁾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콘텐츠 선택 자율성이 높은 유튜브 환경에서는 제목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기보다 향유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제목의 기능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
- 10) 제목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권미영, 「강연 제목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연구」, 『텍스트 언어학』, 제48권, 텍스트언어학회, 2020, 48쪽’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1) 김석모, 「작품 제목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 『예술과 미디어』, 제15권(제1호), 한국영상 미디어협회, 2016, 10쪽.

조원형(2006)에서는 신문 기사 중간 제목의 유형과 기능을 논의하면서 기사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표제에는 “다양한 수사법과 언어유희가 사용되고 특유의 어법”이 보인다고 하며 그 예시로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내용을 “한국 美쳤다”라는 표제로 나타내어 독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눈끌기 전략으로 설명한다.¹²⁾ 향유자의 흥미를 끌어 콘텐츠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언어 유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윤후남(2011)에서는 영어권 영화의 번역 과정에서 어떤 기능이 강조되는지 밝히기 위해 영화 제목의 기능을 Nord가 제안한 1)변별적, 2)메타텍스트적, 3)교감적, 4)지시적, 5)호소적, 6)표현적으로 구분하였다.¹³⁾ 변별적 기능과 메타텍스트 기능은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교감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연결성을 전제한다. 표현적 기능은 발신자의 태도를 반영하며 호소적 기능은 수신자에게 특정 방식을 반응하게 한다.

허상희(2012)에서는 학생들에게 받은 이메일의 제목을 본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1)정보 제공, 2)의도 표현, 3)친교, 4)감정 표현으로 분류하였다.¹⁴⁾ 정보 제공과 의도 표현은 보내는 사람의 입장이 전제되고 친교 기능과 감정 표현은 받는 사람을 고려한 것으로 보았다. 이메일은 읽는 사람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목 기능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콘텐츠 측면에서 접근할 때 향유자 고려하는 점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 차이를 적용할 수

12) 조원형, 「신문 기사 중간제목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20권, 텍스트언어학회, 2006, 458쪽.

13) 윤후남, 「영화제목의 기능과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제9권(제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1, 139쪽.

14) 허상희, 「대학생들의 전자편지 제목 분석」, 『우리말연구』, 제30권, 우리말학회, 2012, 262-263쪽.

있다.

김석모(2016)은 제목이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작품과 관계하는 양상 그리고 감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감상자의 시각적 인식에 개입”한다고 보았다.¹⁵⁾ 제목은 제작자와 향유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특정한 맥락을 반영한다.

권미영(2020)에서는 세바시 유튜브 채널 인기 동영상을 중심으로 강연 제목을 살펴 제목의 기능을 1)식별, 2)화제·주제 표시, 3)유인, 4)분석·평가, 5)기타로 구분하였다.¹⁶⁾ 이 분류에 의하면 식별의 기능과 화제·주제 표시는 제목의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며 유인의 기능은 향유자의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분석·평가의 기능은 향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며 기타 기능은 친밀감이나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정서적인 내용을 다룬다.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제목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은 향유자를 전제한다. 이메일에서는 수신자가 꼭 읽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대방이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야 하는데 수신자는 제목을 통해 글을 읽을 것인가를 결정한다.¹⁷⁾ 이와 같은 기능은 모든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목은 대상의 고유성을 토대로 식별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구별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목은 콘텐츠를 향유하는 향유자를 전제하며 향유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15) 김석모, 앞의 논문, 18쪽.

16) 권미영, 앞의 논문, 55쪽.

17) 허상희, 앞의 논문, 248쪽.

둘째, 제목은 내용적인 측면을 전달한다. 이는 정보적 차원에서 제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목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보로 수많은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표현하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¹⁸⁾ 특히 수신자에게 낯선 것일 때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제목은 실제 세상의 현상에 의해 정해진다.¹⁹⁾ 따라서 콘텐츠가 전달하려는 바를 함축적으로 드러내어 향유자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향유자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제목은 정서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제목은 사물이나 세상에 대한 발신자의 태도를 드러낸다.²⁰⁾ 감정 표현은 내용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²¹⁾ 그러나 향유자에게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감은 강력한 공유 도구가 될 수 있다.²²⁾

넷째, 제목은 향유 대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한다. 제목이나 명칭은 예외 없이 작품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해석을 특정한 맥락으로 제한²³⁾하여 향유자가 콘텐츠를 향유하는 방식에 개입하기도 한다. 향유자는 제목을 통해 콘텐츠 내용을 예상하고 향유한다. 이러한 예측과 기대감이 향유자이 특정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

18) 허상희, 앞의 논문, 247쪽.

19) 윤후남, 앞의 논문, 141쪽.

20) 위의 논문, 141쪽.

21) 권미영, 앞의 논문, 63쪽.

22) 팀 스테이플스·조시 영, 앞의 책, 72쪽.

23) 김석모, 앞의 논문, 18쪽.

3.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유형²⁴⁾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 <펭TV>가 2021년 1년 동안 업로드한 정규 에피소드 50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²⁵⁾ 정규 에피소드는 매주 금요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동시에 TV에서는 금요일 7시 30분에 방송된다. <펭TV>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정규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관련 부가 영상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련 부가 영상 향유를 유도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튜브 채널과 EBS 방송에서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정규 에피소드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제목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 채널의 정규 에피소드 제목은 방송 제목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와 경쟁하는 환경에서 <펭TV>가 향유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방송 제목은 펭수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펭수의 상태를 설명하는 명사구의 형태로 제시된다. 반면 <펭TV> 제목은 방송 제목과 비교하여 길이가 길며 대개 문장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러 콘텐츠 가운데 향유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펭TV>의 50개 제목을 살펴본 결과 제목 유형은 출연자 강조, 상황 진술, 내용 요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24) 제목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수정하지 않고 원 표기대로 제시한다.

25) 방송 일정에 따르면 총 52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2021년 1월 1일 업로드된 166회부터 2021년 12월 31일 업로드된 217회 가운데 8월 3주차와 4주차에 해당하는 198회, 199회가 누락된 상태이다.

1) 출연자 강조

출연자 강조는 <펍TV> 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를 제목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방송 제목은 영상에 펍수 이외의 출연자가 등장하더라도 주인공 펍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펍TV>에서는 출연자를 펍수로만 규정하지 않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목에 활용한다. 이런 경우 펍수에 호감을 갖지 않는 향유자라 하더라도 특별 출연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면 제목을 통해 <펍TV> 영상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 특별 출연자 강조

<펍TV>는 펍수 혼자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출연자들과 관계를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출연자가 없어도 제작진이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EBS의 다른 캐릭터가 출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아이돌이나 연예인, 화제성이 높은 인물이 영상에 등장할 경우에는 제목에 출연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펍수가 해외 진출을 위해 영어를 배우는 에피소드 175의 방송 제목은 ㄱ이고 <펍TV> 제목은 ㄴ이다.

ㄱ. 펍수의 영어 도전기

ㄴ. ‘어데 존씨고?’를 영어로 하면?(Feat. 존박)

ㄱ은 펍수에 초점을 두고 펍수가 영어를 배운다는 행위를 축약하여 다른 출연자에 대한 정보 없이 펍수 행위만을 전달하고 있다.

ㄴ은 질문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Feat. 존박”이라는 표기로 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발화된 내용에서도 핑수가 아닌 존박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핑수가 아닌 출연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피소드 175의 출연자 정보가 제목에 드러나면서 존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향유자의 콘텐츠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수 선미가 출연하여 EBS 연습생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핑수 역시 GP라는 아이돌 연습생 캐릭터를 강조하는 에피소드 174의 방송 제목은 ㄷ이고 <핑TV>의 제목은 ㄹ이다.

ㄷ. EBS 연습생 2기 선미

ㄹ. 선미야, 데뷔가 하고 싶어? | EBS 연습생 2기 선미(SUNMI) X 1기 핑수 꼬리(TAIL) 합동 무대 ✨ 최초공개 ✨

방송과 <핑TV> 모두 제목에서 출연자 선미를 언급하고 있다. ㄷ에서는 특별 출연자가 선미라는 것과 EBS 연습생 2기라는 역할은 공개되었지만 내용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다. 반면 ㄹ에서는 핑수의 발화로 보이는 질문이 우선되고 EBS 연습생 신입과 선배의 합동 무대가 진행된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된다. 또한 선미의 신곡인 “꼬리”에 대한 홍보도 암시한다. 그리고 “최초공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희소성을 강조한다. 방송과 <핑TV> 모두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핑TV>의 제목이 에피소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콘텐츠 식별을 강화한다.

(2) 펑수 강조

연습생인 펑수의 하루를 담은 에피소드 217의 방송 제목은 **ㅁ**이고 <펑TV>의 제목은 **ㅂ**이다.

ㅁ. 연습생 펑수

ㅂ. EBS 3년차 연습생, 펑수의 심경고백...

ㅁ은 간략하게 펑수의 지위만 내세우고 있어 영상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펑수가 연습생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제목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펑수를 지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ㅂ은 펑수의 연습생이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다. ‘3년차’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펑수가 연습생으로 보낸 시간을 설명하고 말줄임표와 “심경고백”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펑수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탄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유자가 이 제목을 통해 펑수가 매우 결정적인 내용을 폭로할 것이라 예상하며 영상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2) 상황 진술

<펑TV>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목 유형은 상황의 진술이다. 제목은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함축 요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제목은 상황 진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펑TV>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상황 진술은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객관적이거나 사실적 진술이 아닌 전략적으로 선택된 특정 장면이

나 사건을 단편적으로 다룬 진술 활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진술도 활발히 나타난다.

(1) 특정 순간 기반

국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를 기리고 공군비행사로 참전한 김경오가 출연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복원하는 에피소드 187의 방송 제목은 ㄱ이고 <펍TV>의 제목은 ㄴ이다.

ㄱ. 펍수네 사진관

ㄴ. 펍수품에서 눈물 흘린 사연은?

ㄱ은 사진관이라는 특정 공간이 제목에 드러나면서 영상 내용이 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연자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도 사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에피소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ㄴ의 경우는 등장인물이나 소재에 대한 어떠한 정보 없이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다는 순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다. 누가 출연하고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특정 사건만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참전용사 김경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온 어린이와 군인이 꿈이라는 어린이 두 명이 출연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작가도 출연한다.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누가 울었는지도 알 수 없다. 에피소드 초반에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참

전용사가 등장한 이후에도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전용사는 전쟁 당시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사진을 다시 찍은 후에야 눈물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목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ㄴ이 진술한 상황은 에피소드 전체 흐름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선택된 특정 순간을 부각하여 상황을 진술하여 향유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누가 울었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될 때 향유 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펑수 심리 기반

펑수가 541m 높이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에피소드 201의 방송 제목은 ㄷ이고 <펑TV>의 제목은 ㄴ이다.

ㄷ. 펑수의 담력 강화 프로젝트

ㄴ. 응. 1도 안 무서워.




이 에피소드는 펑수와 담당PD가 놀이공원에서 만나 놀이 기구를 타는 것으로 시작한다. 회전목마, 후름라이드, 유리 바닥 걷기 등 점차 공포감이 높아지는 체험이 이어진다. ㄷ은 이러한 점을 ‘담력 강화’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나타낸다.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상황 전반에는 담당PD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와 반대로 펑수는 담담하게 체험하여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ㄴ은 펑수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발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제목이 ‘담력 강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펑수가 할 수 없는 난이도의 체험이 주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에피소드의 최종 미션은 팽수가 541m 높이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최종 미션에서는 그간의 체험을 무사히 마친 팽수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에피소드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초반의 팽수 심리 진술은 반어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제작진 심리 기반

에피소드 212는 팽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방송 제목은 ㄹ이고 〈팽TV〉의 제목은 ㅂ이다.

ㄹ. 대신출근 콜센터

ㅂ.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뭐야...  ...웅성웅성
 

이 에피소드는 ‘대신출근’이라는 부제를 갖고 2부로 구성되었는데 콜센터 업무는 1부에 해당한다. ㄹ은 에피소드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낸다. 팽수가 콜센터에 가는 이유는 ‘대신출근’이라는 단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가 ‘콜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ㅂ은 ㄹ과 소재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긴박한 상황의 대화들을 제시한다. 우려가 섞인 제작진의 심리로 보이는 발화 내용이 제목으로 표현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표현한다. ㅂ을 통해 향유자는 에피소드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예상하게 되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호기심

을 가질 수 있다.

팽수가 수행해야 하는 콜센터 업무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아 대응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전화가 연결되어 팽수의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팽수는 콜센터 업무에서도 “교육용 콘텐츠라는 태생과 어울리지 않는 돌직구, 거침없고 솔직한 언변”²⁶⁾의 고유한 캐릭터를 유지해 민원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고 부정적 반응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제작진의 심리가 제목으로 표현된 것이다. B에서 사용한 질문과 혼란스러운 의성어들이 팽수의 업무가 매끄럽게 수행되지 않음을 암시하며 에피소드 진행의 긴장도를 높인다.

(4) 출연자 심리 기반

대신출근 2부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213은 팽수가 외교부로 대신 출근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방송 제목은 S이고 〈팽TV〉의 제목은 O이다.

S. 대신출근 2부

O. 우리 회사에 엄청난 신입이 왔다...

S은 이미 콜센터 업무를 수행했던 ‘대신출근’의 연속선상에 있고 두 번째 업무를 다룬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S의 형태로는 에피소드 형식에 대해서는 인지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전 에피소드가 ‘콜센터’로 공간을 상징하

26) 김윤경, 앞의 논문, 345-346쪽.

는 단어를 활용해 업무에 대한 예상이 가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팽수는 외교부에 출근하여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에 참여하고 행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팽수는 문서 작성이나 회의 방식, 결재 체계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아 외교부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회의에 들어가서도 “상대가 누구이건, 성별이 어떻건, 지위가 무엇이건 간에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팽수의 모습”²⁷⁾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최종 결재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결재해달라고 조르는 등 외교부 직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외교부 직원들, 즉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출연자의 심리를 진술한다.

3) 내용 요약

제목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내용의 함축으로 <팽TV>에서도 에피소드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활용한다. 에피소드의 핵심 내용이 간략하게 제목으로 드러날 경우 향유 맥락을 구축하여 내용의 예측이 수월하다. 그러나 예측에 따른 뻔한 이야기가 전개될 경우 향유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요약한다 하더라도 여러 전략을 활용하여 향유자가 끝까지 향유를 유지할 수 있는 제목이 요구된다.

(1) 결과 포함

내용 요약의 가장 기본 형태는 전체 내용의 결과까지 포함해 요

27) 김희경, 앞의 논문, 41쪽.

약하는 것으로 에피소트 전체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에피소드 184는 펭수가 골프를 배우는 내용을 다룬다. 방송 제목은 ㄱ이고 <펭TV>의 제목은 ㄴ이다.

ㄱ. 운동펭 골프

ㄴ. 골프천재만재역재

펭수는 펭권의 펭을 활용해 펭권이라는 정체성을 부각하는 언어 유희를 즐기는데 ㄱ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운동하는 펭권 펭수’를 표현하는 “운동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라는 구체적인 종목을 제목에 드러내고 있어 에피소드의 중심 소재가 골프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ㄱ이 소재에 대한 측면을 부각하는 제목이라면 ㄴ은 펭수가 골프를 배운 결과를 부각하는 제목이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프로 골퍼에게 펭수가 골프를 배우게 되는데 실내에서 샷 연습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필드에 나가 실력을 뽐내게 된다. 프로 골퍼가 예상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서 ㄴ과 같이 에피소드의 결과가 제목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골프를 배운 결과뿐만 아니라 자존감 높은 펭수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늘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당당하다 못해 오만해 보이는 펭수의 성격 상 처음 필드에 나가 예상 밖의 실력을 보이면서 천재를 뛰어넘는 자신을 지칭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ㄱ과 ㄴ 모두 에피소드의 중심 소재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제목 표현의 초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펭TV>의 제목이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목에서 전달

한다. 향유자는 팽수가 ‘천재만재억재’로 표현된 제목을 통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를 기대하며 콘텐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2) 반대 결과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의 기본은 전체 내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요약은 원 내용에 대한 사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반대 결과를 제목에 제시하여 향유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제목과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으로 향유자의 향유를 유지할 수 가능성이 높다.

팽수가 여러 종목의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에피소드 195의 방송 제목은 ㄷ이고 <팽TV>의 제목은 ㄹ이다.

ㄷ. 팽수의 기네스 도전

ㄹ. 나 강림. 세계 신기록 달성

ㄷ은 팽수가 기네스에 도전한다는 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팽수는 도넛 쌓기, 오리발 신고 달리기, 차에 사람 많이 타기, 대형 트럭 끌기 등 여러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결국 신기록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ㄷ은 팽수의 도전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도전 결과와는 무관하게 도전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ㄷ은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제목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ㄹ은 “세계 신기록 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실제 에피소드와는 반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에피소드의 내용과 반대되는 결과를 제목에 드러내어 세계 신기록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향유자의 기대감을 높인다. 향유자는 도넛 쌓기를 시작으로 여러 종목을 계속 실패하는 펭수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에서 비롯된 기대감으로 영상을 끝까지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

(3) 전개 내용

에피소드 전개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에피소드 196의 방송 제목과 같다. 극적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조하는 입장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상황만 요약하는 것이다.

펭수가 풍선을 달고 날기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실내스카이다 이빙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에피소드 177의 방송 제목은 □이고 <펭TV>의 제목은 ▣이다.

□. 플라이 펭수

▣. 펭수가 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에서는 “플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펭수가 난다는 상태를 드러낸다. □을 통해 에피소드의 소재와 그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 펭수가 날 수 있는지 실험했다는 상황만 제시한다. 제목만으로는 실험의 결과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에피소드의 중심 사건을 ‘펭수가 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유자는 결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영상을 끝까지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피소드에서 전개되는 상황만을 단순하게 제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향

유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향유를 지속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중심 사건 왜곡

신문의 부제에서도 글 전체의 핵심 주제가 아닌 독자의 관심이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지엽적인 내용이라도 부각할 수 있는데 독자는 특정 세부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²⁸⁾ 이와 마찬가지로 중심 사건 왜곡은 주요 사건이 아닌 주변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동(물)계 올림픽을 표방하여 패럴림픽 종목을 소개하고 특별 출연자와 아이스링크에서 여러 경기를 진행하는 에피소드 173의 방송 제목은 ㄱ이고 <펍TV> 제목은 ㄴ이다.

ㄱ. 스포츠 캠프에 입소한 펍수

ㄴ. 펍수는 피겨 점프를 성공했을까?

이 에피소드에는 범이뿐만 아니라 동계 올림픽을 진행하는 진행자를 비롯해 패럴림픽 선수들과 우지원, 김병지 등 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출연자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ㄱ은 소박한 형태의 “스포츠 캠프”로 이 상황을 설명한다. 실제로 에피소드에서는 진행자가 ‘동계 올림픽’으로 이 상황을 거창하게 호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규칙의 게임을 진행하는 데 그쳐 ㄱ은 사실성에 기반한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ㄴ은 펍수가 피겨 점프를 도전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결

28) 조원형, 앞의 논문, 485쪽.

과를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결과 없이 단순하게 전개 내용을 제시할 경우 향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콘텐츠 향유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겨스케이팅은 동계 올림픽에서 다른 경기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의 중심 사건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제목이 가능했던 것은 피겨점프를 시도하는 펑수의 피겨스케이팅은 쿠키 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쿠키 영상은 추가로 제공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향유할 내용은 아니다. 〇은 이러한 추가 영상을 제목에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주요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목은 펑수가 트레이너 계란을 만나 훈련하는 에피소드 178에서도 나타난다. ㄱ은 방송 제목이고 ㄷ은 〈펑TV〉의 제목이다.

ㄱ. 계란이네 민박

ㄷ. 펑수 증성화 수술 했어요?

ㄱ은 펑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트레이너 계란의 집이며 ‘민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계란의 집이 전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출연자와 공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ㄷ은 펑수에게 증성화 수술을 했냐는 질문을 제목으로 활용한다. 이 질문은 펑수가 계란의 훈련을 받기 전 의사에게 기초 진단을 받는데 여기에 포함된 질문 중 하나이다. 에피소드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향유자는 펑수의 증성

화 수술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왜곡하여 제목으로 제시할 경우 향유자의 예상과 다른 의외성이 부각되어 재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제목 효과

앞에서 살펴본 <펭TV>의 제목 유형을 토대로 제목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기초 정보 제공

제목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제목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보는 출연자를 부각하거나 소재나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술을 통해 전달된다.

- ㄱ. 배구선수들과 “피카츄 배구” 해봤습니다🏐 -출연자 강조
- ㄴ. 트와이스 입덕은 사이언스? -출연자 강조
- ㄷ. 갯벌지옥에서 개뿔짓 -전개 내용 요약
- ㄹ. 여름 단발병 퇴치 영상 by 165만 원 헤어 -결과 요약

ㄱ은 배구 국가대표들과 펭수로 캐릭터를 변경한 온라인 배구 경기를 하는 에피소드 202의 제목으로 출연자와 중심 사건을 제목에 배치하여 에피소드의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

ㄴ은 트와이스가 출연하여 팬이 되는 순간의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신곡 〈사이언스〉를 홍보하는 에피소드 210의 제목이다. 출연자와 신곡이 제목에 명시되어 에피소드 전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ㄷ은 충남 태안의 갯벌 마을을 찾은 핑수와 범이가 낙지를 잡으려다 실패하는 에피소드 176의 제목이다. 공간에 대한 정보와 결국 낙지를 잡지 못하고 뱀에 빠지기만 하는 두 출연자들의 모습을 언어 유희를 활용하여 ‘개뿔짓’으로 표현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공간과 행위의 구체성으로 에피소드의 주요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ㄹ은 망한 머리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헤어디자이너 기우쌤에게 핑수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에피소드 193의 제목이다. 이 에피소드는 2021년 7월 9일에 업로드되었는데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바람을 토대로 ‘퇴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핑수의 변화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암시한다.

에피소드의 중심 내용을 출연자, 공간, 중심 사건 등을 활용하여 향유자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향유 맥락 기반을 확보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시될수록 에피소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목의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다.

2) 콘텐츠 향유의 유지와 지속

향유자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향유하기로 결심하였더라도 향유자는 자유롭게 향유를 중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자가 콘텐츠를 끝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향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의외성을 부각하여 콘텐츠 향유가 지속되도록 의도적으로 결과를 반대로 요약하거나 중심 사건을 왜곡한 내용을 제목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에피소드의 주요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순간을 부각하는 것도 향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콘텐츠 향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ㄱ. 이 노래에 눈물나면 할미할비 인증 -특정 순간 진술
- ㄴ. 1개냐 2개냐 3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전개 내용 진술
- ㄷ.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팽수 심리 진술
- ㄹ. 7000평 윈터프린스 농사 수익 공개 -중심 사건 왜곡

ㄱ은 비대면 상황으로 팽수가 회사 회의, 수업, 졸업식에 참여하는 에피소드 169의 제목이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제목에서는 마지막에 배치된 졸업식의 배경 음악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설정하였다. 에피소드의 중심 사건도 아닌 배경 음악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설정하여 향유자는 호기심을 갖고 노래가 나올 때까지 콘텐츠 향유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ㄴ은 어린이들과 여러 주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에피소드 190의 제목이다. 출연자들이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에피소드인데 토론 주제로 엉덩이는 몇 개인가에 대한 질문이 언급된다. 그러나 제목에서는 토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삭제하여 향유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ㄷ은 마술사 최현우가 출연하여 간단한 마술을 선보이고 시청자를 초대해 마술쇼를 벌이는 에피소드 193의 제목이다. 에피소드의

중요 소재나 출연자를 제목에서 배제한 채 팽수가 느끼는 특정 시점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설정하였다. 최현우의 마술 비법을 제작진 모두가 눈치챘으나 팽수만이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팽수가 발화할 수 있는 내용이 제목으로 설정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초점이지만 팽수가 순간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에피소드의 내용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제목이다.

큰 제주 감귤 농장에 가서 새롭게 개발한 윈터프린스라는 품종을 소개하는 에피소드 214의 제목이다. 이 에피소드는 감귤의 새로운 품종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농가의 수익과 관련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농사 수익과 관련한 내용은 팽수가 직접 판매에 나서는 상황과 연관되는데 이 부분이 부각되어 제목에 활용되고 있다. 에피소드의 주요 사건을 왜곡하여 향유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수익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콘텐츠 향유를 유지하도록 한다.

에피소드의 주요 사건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상황으로 진술하거나 특정 사건을 초점화하여 의도적으로 에피소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제목은 향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다. 향유자가 기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끝까지 향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향유 과정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3) 향유자와의 공감대 형성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진술을 통한 제목은 향유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 출연자들의 심리를 직접 발화하는 형태로

제목을 설정하면서 향유자의 감정적 공유를 유발한다.

- ㄱ. 노브레인 서바이벌 아니라고 -출연자(제작진) 심리 진술
- ㄴ. ㄹ짚 펭티비 췌작빈 인제요 멋참겠아서 이거 몰래얼릭 -제작진 심리 진술
- ㄷ. 아니 문을 열고 세차한다고??!! -팽수(제작진) 심리 진술
- ㄹ.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팽수 심리 진술

ㄱ은 녹색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홍보하기 위해 장학퀴즈 형식으로 팽수와 광희가 경쟁하는 에피소드 185의 제목이다. 퀴즈를 푸는 상황에서 팽수와 광희는 정답을 비껴가며 틀리는데 제목의 발화 내용은 진행자 김일중이나 제작진의 심리를 대변하며 답답한 상황을 강조한다. 향유자 역시 에피소드를 보면서 답을 못 맞추는 팽수와 광희의 상황이 안타깝고도 웃길 수 있는데 ‘노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과거 프로그램을 환기시키면서 감정적 공유를 강화한다.

ㄴ은 비공개 영상을 공개한 에피소드 188의 제목이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정규 방송되지 않은 내용들을 공개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팽수 몰래 올리는 긴장된 상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제작진의 심리 상태의 진술은 향유자에게는 희귀한 동영상으로 인지되면서 콘텐츠의 희소성에 따른 향유 가치를 높일 수 있다.

ㄷ은 팽수가 세차의 달인에게 세차를 배우는 에피소드 206의 제목이다. 세차의 달인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실력은 차 문을 열어둔 채 강한 물줄기를 분사하여 바퀴와 차 아랫부분을 닦아내는 것이다. 달인의 세차를 지켜보는 팽수와 제작진이 느낀 신기롭고 경

이로운 마음이 그대로 제목에 반영되어 향유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제목에서 세차의 달인이 보여줄 행동은 예측되지만 향유자는 에피소드를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팽수와 제작진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게 된다.

큰 팽수가 호빵 메뉴 개발에 참여하는 에피소드 215의 제목이다. 팽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지만 시식단에 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시식단은 호빵 회사 직원 두 명과 제작진 두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팽수의 호빵은 제작진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팽수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발화 내용이다. 팽수의 서운한 마음을 제목에 활용하여 향유자는 팽수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여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심리 상태를 반영한 제목은 향유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 출연자들이 에피소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전제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제목에서 진술한 심리 상태에 공감하며 콘텐츠에 향유하면서 콘텐츠 몰입을 강화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의 제목 유형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팽TV>는 EBS의 어린이 교양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팽수라는 캐릭터와 TV와 모바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갖고 향유층을 확장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팽수의 독특한 성격화가 흥

행 요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펍TV>가 인기를 얻을 수 있던 이유로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한 향유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튜브 채널은 미디어 콘텐츠의 향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다. 기존 TV 중심으로 향유되던 콘텐츠의 중심 이동이 변화되고 향유자의 콘텐츠 선택 가능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어린이 교양 예능 프로그램인 <펍TV>가 성인 향유자에게까지 향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수많은 콘텐츠와 경쟁하면서 <펍TV>가 향유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동일한 에피소드여도 방송과 <펍TV>의 제목이 다르게 설정된다는 점이 이러한 전제의 타당성을 방증한다.

<펍TV>의 제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제목 기능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제목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목은 향유자를 전제하여 내용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반영하고 향유자의 향유 태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펍TV>가 2021년 업로드한 정규 에피소드 50개의 제목을 방송 제목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목은 출연자 강조, 상황 진술, 내용 요약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출연자 강조 유형에서는 펍수 이외의 특별 출연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목에 제시하는 것이다. 상황 진술 유형에서는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진술이 아닌 의도적으로 선택된 특정 순간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진술된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심리를 진술하는 제목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제목의 기본 기능인 내용 요약의 유형은 향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제목으로 드러난다.

출연자 부각과 내용 요약의 제목은 콘텐츠 기초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향유 맥락을 확보하여 제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콘텐츠 향유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피소드를 전략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심 사건의 결과를 반대로 드러내거나 주요 사건을 왜곡시켜 향유자의 예측과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으로 의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상황만을 묘사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제목은 향유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콘텐츠 향유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유튜브 영상이 썸네일과 연계성을 갖고 제목이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썸네일과의 관련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팽수의 캐릭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플랫폼 변화에 주목하고 향유자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한 제목 유형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로버트 킨슬·마니 페이반, 신솔잎 옮김, 『유튜브 레볼루션』, 더퀘스트, 2018.
팀 스테이플스·조시 영, 이윤진 옮김, 『유튜브 7초에 승부하라』, 매일경제신문사, 2020.

□ 참고논문

- 권미영, 「강연 제목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48권, 텍스트언어학회, 2020, 47-75쪽.
김석모, 「작품 제목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 『예술과 미디어』, 제15권(1호), 예술과미디어학회, 2016, 9-40쪽.
김윤경, 「'펍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이화어문논집』, 제54권, 이화어문학회, 2021, 333-361쪽.
김희경, 「펍수의 멀티 페르소나 연구」, 『반영과 재현』, 제2권, 현대영상문화연구소, 2021, 29-49쪽.
윤후남, 「영화제목의 기능과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제9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1, 133-153쪽.
조원형, 「신문 기사 중간제목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20권, 텍스트언어학회, 2006, 463-496쪽.
허상희, 「대학생들의 전자편지 제목 분석」, 『우리말연구』, 제30권, 우리말학회, 2012, 241-268쪽.

□ 기타자료

- 이병찬, 「MZ세대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 『혁신성장』, 2021-34, (주)NICE디앤비, 2021.
EBS <자이언트 펍TV> 홈페이지, <https://home.ebs.co.kr/giantpeng/>

〈부 록〉

〈자이언트 펭TV〉 제목 유형

	회차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제목	유형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 제목
1	166	새벽에 7시간이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게 머선 일이고?!	3-3	소원을 말해봐
2	167	[단독] 펭수 로봇을 공개합니다 제작기간 2개월 / 제작비용 8천 ₩ FLEX	1-2	인공지능 펭수
3	168	죄송합니다. 앞광고 좀 하겠습니다	2-3	광고 감독 펭수
4	169	이 노래에 눈물나면 할미할비 인증	2-1	온라인 습격사건
5	170	개집사??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2-2	펭집사
6	171	180cm 대어 낚시 성공	3-4	빙어의 신 펭수
7	172	13년 만에 헤어진 친구를 찾았습니다	2-4	펭귄 동요단
8	173	펭수는 피겨 점프를 성공했을까?	3-4	스포츠 캠프에 입소한 펭수
9	174	선미야, 데뷔가 하고 싶어? EBS 연습생 2기 선미(SUNMI) X 1기 펭수 꼬리(TAIL) 합동 무대 ✨최초공개 ✨	1-1	EBS 연습생 2기 선미
10	175	'어데 존씨고?'를 영어로 하면? (Feat. 존박)	1-1	펭수의 영어 도전기
11	176	갯벌지옥에서 개벌짓	3-3	6시 펭고향
12	177	펭수가 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3-3	플라이 펭수
13	178	펭수 중성화 수술 했어요?	3-4	계란이네 민박
14	179	(주)펭수 주식 가격은? (feat. 슈카)	1-1	(주)펭수
15	180	[Vlog] 펭수 / 10세 / 취준(최준아님) / 12시28분기상 / 모닝루틴 / 미라클점심(아점) / 흥합헤어	3-3	취준생 펭수
16	181	저 목욕하는 펭귄입니다	2-2	목욕의 신
17	182	우리집 준호 2021년 직캠 최초 공개 by EBS	1-1	준호 집으로 가자
18	183	골프천재만재역재	3-1	운동펭 골프
19	184	S전자 면접 보러 간 펭수	3-3	펭수 대기업 면접보다
20	185	노브레인 서바이벌 아니라고	2-4	장학퀴즈
21	186	지금까지 펭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펭빠.	3-3	저 세상 간 펭수
22	187	펭수 품에서 눈물 흘린 사연은?	2-1	펭수네 사진관
23	188	츠짚 펭티비 젓작빈 인제요 멧참겠아서 이거 몰래얼릭	2-4	펭수의 연습생 일지

	회차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제목	유형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 제목
24	189	전 세계 상위 1%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3-1	-
25	190	1개냐 2개냐 3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3-3	무쓸모 토론
26	191	좋은소식과 나쁜소식이 있습니다	3-3	펭수의 늪방
27	192	여름 단발병 퇴치 영상 by 165만 원 헤어	3-1	인생 헤어 찾기
28	193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2-2	펭수 매직쇼
29	194	여름 PLAYLIST I 영화 13도 냉동고 라이브 (펭수 X 안테나)	1-1	펭긴 어게인
30	195	나 강림. 세계 신기록 달성	3-2	펭수의 기네스 도전
31	196	[납량특집] 손가락 귀신이라고 들어봤어?	1-1	돌아온 따라 귀신
32	197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FULL 공개합니다	2-3	새들의 고향에 간 펭수
33	200	참..참치잡이 배에 펭수 팔아버렸습니다	2-3	펭수의 여름방학
34	201	응. 1도 안 무서워.	2-2	펭수의 담력 강화 프로젝트
35	202	배구선수들과 "피카츄 배구" 해봤습니다🏐	1-1	-
36	203	블랙핑크 제니 커버 메이크업 완벽재현	3-1	뷰티 모델 펭수
37	204	부리 한번 다물어봤습니다!	2-2	묵언 수행
38	205	한국인 없는 한글날 특집...	3-1	공포의 옷놀이
39	206	아니 문을 열고 세차한다고??!!	2-2	세차의 달인
40	207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3-3	펭테리어
41	208	아이키 나와! 약자 지목 찌댄스 대결(HOOK 출연👊)	1-1	스트릿 펭귄 파이터
42	209	저어...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2-2	철새 동호회
43	210	트와이스 입덕은 사이언스?	1-1	덕통사고
44	211	필라테스는... 펭귄을... 찢어	3-3	필라테스펭
45	212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 👤 뭐야... 👤 👤 ...웅성웅성 👤 👤	2-3	대신출근 콜센터
46	213	우리 회사에 엄청난 신입이 왔다...	2-4	대신출근 2부
47	214	7000평 윈터프린스 농사 수익 공개	3-4	윈터 프린스 지옥
48	215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나!?!	2-2	호빵 연구원 펭수
49	216	1년에 하루만 영업합니다. 재즈카펑	3-3	재즈카펑
50	217	EBS 3년차 연습생, 펭수의 심경고백...	1-2	연습생 펭수

ABSTRACT

A Study on the Title Type of YouTube Channel 〈Giant Peng TV〉

Mi Hee, Park²⁹⁾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title type and effect of the YouTube channel 〈Giant Peng TV〉. 〈Peng TV〉 is a children's cultural entertainment program of EBS. The distinctiveness of this program can be found in the Pengsoo character. Another is that it crosses TV and mobile, offline and onlin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Peng TV〉 can enjoy broadcasting and YouTube channels simultaneously. And it was premised that the titl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oice of the enjoyer.

In order to analyze the title type of 〈Peng TV〉,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the title function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tle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titles of 50 regular episodes of 〈Peng TV〉 uploaded in 2021 were compared with the broadcast titles to clea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could be categorized into highlighting the cast, stating the situation, and summarizing the contents.

29) Dankook University

The title of the cast emphasis and content summary is effective in conveying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content. In order to maintain and continue the enjoyment of content, a title that strategically summarizes the central event of an episode is effective. Strategic methods include explaining opposite outcomes, distorting key events, and describing simple situations. The title reflecting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performers forms a bond of sympathy with the audience. Therefore, it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immersion in content enjoyment.

Key words : 〈Giant Peng TV〉, title type, title effect, highlighting the cast, stating the situation, summarizing the contents

박 미 희

전 자 우 편 : beaorigin@gmail.com

논문 접수일 : 11월 27일

심사 완료일 :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 12월 21일

『옷소매 붉은 끝동』으로 본 고전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

이상우¹⁾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옷소매 붉은 끝동』의 원텍스트를 분석해 고전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체에 따라 주된 향유층이 다르고, 향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매체에 따라 원작이 각색되고 변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사건, 인물 관계, 시공간적 배경과 같은 원작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 다양한 매체에서 성공가도를 달렸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작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의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 아울러 역사 기록을 포함한 고전의 가치와 재매개화를 통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옷소매 붉은 끝동, 고전의 가치, 캐릭터, 의빈(宜嬪), 정조(正祖), 원텍스트

1) 한성대학교 강사

1. 서론

최근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K-문화는 단기간에 형성된 현상이 아니다. 한류라는 표현으로 치환하자면, 1990년대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 반향을 일으킨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하겠다.

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화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한류 생성기로서,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TV 드라마 <질투>를 시작으로 일부 드라마가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클론, H.O.T 등의 1세대 아이돌들이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으로 진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류 심화기로서 2000년대 중간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TV 드라마가 한류의 중심에 있었으며, 대표작으로 <겨울연가>와 <대장금>을 들 수 있다. 드라마에서 파생된 콘서트, 캐릭터 상품 판매, 촬영 현장 방문을 위한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인기가 확산되었다. 세 번째는 한류 다양화기로서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로 K-Pop이 한류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전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한다.²⁾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 한류는 매체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OTT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선풍적인 인기 이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킹덤>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작품들에 대해서는 채언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다양한

2) 김정우 외, 『한류 3.0의 확산과 대중문화』, 황금알, 2016, 19-26쪽.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와 캐릭터의 매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오징어게임>의 경우 한국 고유의 놀이 문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칫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킹덤>의 경우 서양 문화권에서 익숙한 좀비를 소재로 사용하긴 했으나 조선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있어 낯선 거부감을 줄 수 있다.³⁾

문화에서는 국적성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⁴⁾라고는 하지만, 향유자층의 국적, 문화, 성격, 나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한 국가의 특정 문화에 대한 수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는 향유자층이 한류 초창기처럼 특정 국가와 특정층의 소비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⁵⁾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나 소재 등에 있어 특정 문화의 색채가 강할 경우 진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바로 보편성이다.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인물, 갈등, 이러한 요소들이 잘 엮힌 스토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해외 팬들이 ‘유사한 특이성’ 혹은 ‘기이한 동질성’을 발견하는 이유⁶⁾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원진은 <킹덤>과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관습적인 좀비나 데스게임 장르와 차별화되는 K-Drama 특유의 강렬한 메시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았다. 특히 해외 팬들이 K-Drama에 환호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기존 정체성을 의문에 부치고 변이나 생성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정치적 혁명성’이란 메시지적 특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K-Drama가 제기하는 계급과 소득 격차의 형평성 문제는 K-스토리텔링에서 새로운 공간 미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킹덤>, <설국열차>, <기생충>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원진, 「K-Drama <킹덤>이 전시하는 토속적 미래학: 순종의 열망과 잡종의 변이 혁명」, 『영상문화』, 제39권, 한국영상문화학회, 2021, 291쪽.

4) 배기형·김치호,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25권,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231쪽.

5) 한류 1.0과 2.0의 향유자들은 개별 스타 중심의 팬덤 형성에 초점을 두고 한류를 즐겼다면, 한류 3.0의 향유자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정우 외, 앞의 책, 25쪽.

6) 배기형·김치호, 앞의 논문, 238쪽.

이상과 같은 콘텐츠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장르와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옷소매 붉은 끝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2017년 4월 처음 출간된 후,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에서 웹소설로 제공되기도 하였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웹툰으로 연재 중에 있다. 또한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MBC 17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져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⁷⁾ 아울러 선판매 된 해외 20여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사극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⁸⁾

최근 영화계에서 <기생충>이나 <미나리> 등이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았고, 전술하였듯 OTT에서도 한국 작품들이 연일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포함한 고전을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⁹⁾ 가장 최근 조선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킹덤>이 유일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이 OTT의 초국가적인 파급력에 힘입지 않고도 세계 각지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웹툰, 웹소설이라는 타매체로 재매개화 되었다는 점¹⁰⁾에서 원작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꼈다.

7)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58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4쪽.

8) 강하루, 「『옷소매 붉은 끝동』 선판매된 해외 20여개국서 호평 일색」, 『뉴스인사이드』, 2022.01.06.(검색일자: 2022년 11월 14일)

9) 이전에도 <대장금>이나 <허준> 같은 드라마는 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OTT라는 플랫폼의 등장은 수용자의 범위를 전세계적, 초국가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매체들과 차이가 극명하다. 이에 기존의 그것과는 다르게 논의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10) 재매개화에 대해서는 윤복실, 「OTT 드라마 <킹덤>의 서사 전략 연구 -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3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106-109쪽.

매체에 따라 주된 향유층이 다르고, 향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매체에 따라 원작이 각색되고 변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사건, 인물 관계, 시공간적 배경과 같은 원작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 다양한 매체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작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의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 아울러 역사 기록을 포함한 고전의 가치와 재매개화를 통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옷소매 붉은 끝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총 2편이 있다. 먼저 박영희는 여주인공의 모델이자 실존 인물인 의빈 성씨에 주목했다. 역사적 사료에 나타난 그녀의 삶, 작품 속에 나타난 의빈과 독서의 상관관계, 궁녀 출신인 의빈의 상황 등을 조명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작가가 주려는 메시지를 찾고자 했다.¹¹⁾ 김문희는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양상 및 그 효과와 의미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소설, 웹툰, 웹소설, 드라마 등 모든 매체를 검토한 후, 고전 소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¹²⁾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에 더해 『옷소매 붉은 끝동』이 성공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매력의 원천을 보다 깊이 탐색함으로써 원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모티프와 소재로서 고전이 갖는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11) 박영희, 「『옷소매 붉은 끝동』에 나타난 의빈 성씨의 삶」, 『에듀테인먼트연구』, 제4권(제3호),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2022, 50-51쪽.

12) 김문희, 앞의 논문, 185-187쪽.

2. 선택과 운명의 역설

강미강 작가에 의하면, 『옷소매 붉은 끝동』은 신분의식이 강하고 완고한 가치관을 견지했던 정조를 궁녀와 후궁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의빈 성씨의 이야기로, 정조에게는 왜 하필 그녀여야만 했는지, 나름대로 삶이 있었던 인물인 의빈 성씨에게는 ‘주어진’ 왕의 사랑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풀어낸 내용이다.¹³⁾

주인공인 의빈 성씨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한 인물이었다.¹⁴⁾ 이와 같은 그녀의 가치관은 작품 초기부터 그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으며,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오히려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성은 자칫 인물을 평면적으로 만들어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적 배경인 시대 상황과 의빈의 처한 불가피한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가치관의 변화는 오히려 그녀를 현실과 타협한 채 왕실의 일원으로서 범범하게 살아간 여타 인물들과의 차별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빈의 가치관 때문에 작가는 전술한 <작가 후기>에서 의빈 성씨에게 ‘주어진’ 왕의 사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왕은 “의무적으로 사모해야 할 지존에 불과하다.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알지 보답할 줄은 모르는 상대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

13)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2』, 청어람, 2022, 561-562쪽.

14) 박영희는 궁녀와 후궁으로서 여성의 삶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제도적 불합리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녀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시와 경멸로 일관되어 있었으며, 왕실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지만, 그 노력과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덕임은 이러한 궁녀의 삶의 부당함을 부단히 항변한 동시에 그 부당함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려고 애썼고, 그 결과 그녀의 일생은 의지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삶은 인간적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궁녀의 운명에 순응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훌륭한 드라마라고 평했다. 박영희, 앞의 논문, 61-64쪽.

는 그 이상일 수 없다.”¹⁵⁾ 궁녀로 입궁한 순간부터 이는 불변의 진리였으며, 누구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의빈은 왕의 호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궁녀였다면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중시하는 인물인 그녀였기에 가능한 물음이었다. 왕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초기 의빈과 그녀의 벋들이 나눈 다음의 대화는 이러한 상황과 의빈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건 전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야. 그냥 단순한 호감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나아갈지. 널 그냥 두고만 보실지 아님 취하실지……”

“내가 전하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안 물어봐?”

“그딴 걸 누가 신경 써.”

“전하께서 내게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너도 그래야 하는 거고, 전하께서 널 안으려 하시면 당연히 안겨야 하는 거야. 네가 싫고 좋고 할 문제가 아니지.”

지극히 현실적인 충고였다.

“계집은 아무것도 못 해. 너도 알잖아.”

“어렵네.”

덕임이 말했다. 폭염처럼 뜨겁던 가슴은 현실 앞에 차갑게 식어버렸다.¹⁶⁾

눈치 빠른 경희는 이미 덕임을 향한 왕의 마음을 눈치 채고 있었

15)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22, 371쪽.

16) 위의 책, 337-338쪽.

다. 덕임 역시 낚새는 느끼고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용문에서 경희의 말들은 궁녀의 입장과 세간의 인식을 경희의 입을 통해 단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하의 마음’이다. 그것이 단순한 호감에서 끝나든 취하게 되든 선택권은 오롯이 왕에게 있는 것이다. 덕임은 자신의 마음을 묻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이에 대한 경희의 대답은 짧지만 의미가 있다. ‘그딴 걸’이라는 표현으로 궁녀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임을, ‘누가’라는 표현으로 덕임 외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인 그녀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궁녀인 덕임에게 선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왕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운명인 것이다. 현실을 인식한 덕임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선택권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입장 차이라는 말로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이러한 왕과 덕임의 사랑에 있어 덕임이 주체였기 때문에 ‘주어진’을 강조한 것이다.

전술했듯 위와 같은 그녀의 가치관은 평생을 견지한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그녀의 가치관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보다 뚜렷한 모양을 갖추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왕과의 애정 서사, 각각의 캐릭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덕임의 생각시 시절부터 막 계례를 마친 때까지의 어린 시절로, 〈1부 동궁과 생각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2부 왕과 궁녀〉로 덕임과 왕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및 해소를 담은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3부 왕과 후궁〉은 승은을 입은 덕임과 왕의 감정에 있어 갈등은 축소되었

으나, 대외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둘의 마음을 공고히 해 나가는 부분이다. 특히 승은을 입은 후 문효세자를 낳은 의빈의 엄마로서의 모습은 작품 중반까지 볼 수 없었던 사뭇 진지한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왕과 의빈의 사랑 이야기 중심에서 확장된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된다.

덕임은 1753년 계유년(癸酉年) 생으로 10살인 1762년 입궐한다.¹⁷⁾ 작품은 1764년 그녀의 나이 12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궁궐에서 길을 잃은 덕임은 의열궁의 관을 모셔놓은 빈전(嬪殿)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곳에서 홀로 있는 영조와 마주치게 된다. 덕임을 본 영조는 요절한 의열궁과의 소실인 응주를 생각하며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된다. 둘의 만남은 관 속의 여인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에는 무척 고운 사람이었단다.”, “처음 보았을 때는 숨이 멎을 뻔했지.”¹⁸⁾라며 영조가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함께 지낸 세월에 익숙해 작별 인사를 어찌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나는 따라갈 수조차 없구나. 발인을 직접 보고 싶다 했더니, 왕이 후궁의 관을 따르는 법도는 없다며 어찌나 물어뜯던지!”, “임금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넌 아마 깜짝 놀랄게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평범한 배웅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한탄한다. 이는 죽은 후궁에 대한 영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신하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 빈전에 온 것, 궁녀 출신인 그녀에게 의열(義烈)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려 한 것 등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덕임은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궐한 이유를 묻는 영조에게 “궁녀

17) 위의 책, 17-18쪽.

18) 위의 책, 16쪽.

가 되면 아버를 도와 빛을 갈 수 있고, 오라비들 과거 뒷바라지도 수월하게 할 수 있”¹⁹⁾다고 대답한다. 고작 10살의 나이에 집안의 경제를 짊어져야 할 신세를 담담하게 말해 오히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궁녀로서의 삶은 집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덕임의 바람도 있었다. 입궐 전 덕임은 아름다운 궁체로 쓰인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을 읽고 궁녀가 되어 궁체를 쓰고 싶다고 생전 어머니에게 말한 적 있다. 영조에게도 <홍계월전>을 보여 주면서 “이 예쁜 글씨는 궐에서 쓰는 궁체 아니옵니까. 소인은 사가에 지낼 적부터 배우고 싶었사옵습니다.”²⁰⁾라고 한다.

이어지는 궁체에 대한 서술에서는 궁체는 곧 궁녀의 삶을 압축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덕임의 미래임을 독자들에게 암시한다.

한 장 가득 적힌 글씨는 몹시 우아했다. 세간에서는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필체였다. 둥글둥글하면서도 글자마다 생김새가 똑 떨어지며 세련된 조형미가 돋보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가독을 쉽게 하는 고마운 필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모든 궁녀들이 다 똑같이 쓰는 글씨답게, 궁체는 개성도 인격도 모두 말소된 것처럼 그저 반듯하고 예쁘기만 했다.²¹⁾

궁체를 우아하여 세간에서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필체로 묘사했다. 이는 곧 세간에서의 궁녀에 대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간택을 받든 못 받든 한 평생 왕의 여자로 궁궐에서 살아가

19) 위의 책, 18쪽.

20) 위의 책, 19쪽.

21) 위의 책, 19-20쪽.

는²²⁾ 궁녀는 세간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존재다. 세련된 조형미는 몸과 마음가짐을 항상 정갈히 유지해야하는 궁녀의 처신을, 가독성을 좋게 하는 기능성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궁녀의 삶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작가의 말대로 그것뿐이다. 누구나 다 똑같이 쓰는 글씨답게 개성도 인격도 모두 말소된 것처럼 반듯하고 예쁘기만 하다. 궁녀의 삶을 그녀들의 서체를 통해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입궐 전과 입궐 후에도 궁체를 동경했던 덕임이지만 이는 궁녀의 삶을 잘 몰랐을 때의 얘기이다. 궁궐에서의 삶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동경과 환상은 점점 부서지게 된다. 영조와의 만남은 영조와 의열궁의 운명을 들려주면서 덕임의 미래를 암시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열궁에 대해서는 작중 인물들이 금기로 인해 언급을 자중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덕임의 상황들과 유사한 지점들로 인해 오버랩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조의 세자 시절 그와 만나 “너의 길은 어디냐?”는 물음에 덕임은 “소인이 걸어야 할 길은 궁인의 길이옵니다. 저하께서 걸으실 길보다는 훨씬 하찮겠지만, 나름대로 헤쳐 나갈 가시밭길이지요.”라고 답한다. “하긴, 그게 내게 주어진 길이겠지.”라고 말한 세자에게 “아니옵니다. 소인이 선택한 길이지요.”²³⁾라고 답한다. 세자의 말대로 궁녀로서의 삶은 궁궐의 법도에 따라 ‘주어진’ 길을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 하지만 덕임은 그 역시 본인이 ‘선택’한 길임을 강조한다.

22) 모시던 왕이 승하하거나, 죄를 지어 출궁되는 경우도 있다. 영조의 죽음으로 그의 후궁이자 덕임의 절친인 복연도 출궁했던 기간이 있다. 또한 덕임도 1권 후반부에서 정조의 승을 거절하고, 출궁되어 현록대부(縣錄大夫) 사저의 궁인이 된 기간이 있다.

23) 위의 책, 106쪽.

덕임과 동궁 시절 정조와의 첫 만남은 모친인 혜빈(惠嬪)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궁인에 대한 정조의 적대감은 유년시절부터 한결 같았다. “소자는 소환(小宦)과도 어울리지 않는데 궁녀라니요.”²⁴⁾, “한날 궁인이 어찌 나를 이기겠느냐.”²⁵⁾ 등 모친의 명령이었음에도 싫은 티를 감추지 않았다. 혜빈은 덕임을 눈여겨봤고, 이후 동궁의 탕약시중을 들게 해 둘을 만나게 한다.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되고, 동궁의 마음엔 덕임이 자리 잡게 된다.

동궁이 스물넷 된 해에 대외적으로 그는 괴이할 정도로 여인을 멀리하며 빈궁을 찬밥 취급하여 발길을 끊은 지 오래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느 날, 총애 받는 궁료들과 전각에서 서연(書筵)을 할 때에 여자에 논하게 되고, 덕임은 서연을 하는 동안 곁을 지키는 번(番)을 맡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 날 주제는 여인에 대한 것이었다. 서연이 파하자 뒷정리를 하던 덕임에게 말을 걸어 나눈 대화는 동궁에게 덕임이 어떤 존재로 새겨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여인은 과연 감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물었다.”

“현모양처를 두고도 난봉꾼 행세를 하는 사내가 분명 달기와 포사보단 많을진대 오직 여인의 허물만을 탓하고 싶어 하시니, 행여 사내 역시 제아무리 관저의 덕을 갖춘 부인을 둔들 마찬가지로 감화될 수 없다 아뢰면 노여워하시겠지요.”

“분수를 모르는 계집이다.”

“감화된다고 함은 성별을 떠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옵니다. 고조는 여후를 다스렸으며 끝내 감화시키지는 못하였

24) 위의 책, 36쪽.

25) 위의 책, 39쪽.

습니다. 그런데 서경덕은 황진이를 온전히 감화시켰지요. 한편 경번당(景樊堂, 허난설헌의 별칭)은 끝내 못한 지아비를 감화시키지 못했지만, 고구려의 공주 평강은 온달을 대장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황진이와 온달이 상대의 덕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옵니다. 따라서 여자만의 천성적 결점이라 매도할 수는 없사옵니다.”

“너는 아주 맹랑한 계집이다.”

“그래서 거슬린다.”²⁶⁾

악녀의 대명사로 꼽히는 중국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비였던 달기(妲己)와 서주(西周) 유왕(幽王)의 총희(寵姬)였던 포사(褒姒)는 여성으로서 어심(御心)을 어지럽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 많은 사서(史書) 및 역사적 기록물에서도 이들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덕임은 이들보다 현모양처를 두고 난봉꾼 행세를 하는 역사에 채 기록되지 못한 사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물며 『시경』, 〈관저(關雎)〉 편에서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를 인용해 관저의 덕을 갖춘 여인이라한들 난봉꾼들은 감화될 수 없음을 남녀의 입장을 바꿔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발언이 동궁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임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분수를 모른다는 일갈에도 불구하고, 덕임은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천하는 통일했으나, 여후(呂后)는 감화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마흔이 넘는 늦은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한 서경덕은 황진을 감화시켰고,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꼽히는 난설헌도 지아비는 감화시키지 못했다. 반면 평강공주는 온달

26) 위의 책, 185-188쪽.

을 대장부로 탈바꿈시켜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린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에서 덕임은 ‘스스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신의 선택을 중시하는 덕임의 가치관과도 상통한다.²⁷⁾ 이러한 덕임의 맹랑함에 세자 역시 더 이상의 언쟁은 하지 않는다. ‘거슬린다.’는 세자의 발언은 결국 그녀가 마음에 걸린다는 뜻이다. 한낱 궁인의 입장에서 국본(國本)에게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인물은 보기 어렵다.

내 사람이 되고 싶냐는 동궁의 물음에도 “그저 스스로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²⁸⁾는 덕임의 강단은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 될 남자와 “궁녀로 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²⁹⁾다는 덕임의 자조 섞인 말로 평할 수 있는 와과의 신분 차이는 이들의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1부의 마지막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막을 내린다.³⁰⁾ 2부는 연로한 영조의 승하로 시작한다. 세자는

27) 작중 <월하선전>에 대한 덕임의 평가도 참고할 만하다. <월하선전>은 “함흥감사의 아들인 직경이 아름다운 기녀 월하선에게 반해 끄꿍대다가 집안의 뜻으로 혼인한 최남자를 비롯한 모든 걸 버리고 몰래 도망 나와 살다가, 과거에 장원급제한 덕에 임금의 특별한 성은으로 최 남자와 월하선 둘 다 양팔에 끼고 해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직경이 월하선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함흥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백미로 꼽힌다. 다만 덕임은 책장을 덮자마자 불쌍한 최 남자는 무슨 죄냐고 욕이 절로 나왔다.” - 위의 책, 147쪽. 일반적으로 최 남자와 혼인 후에도 월하선을 잊지 못한 직경의 마음에서 애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애정소설이지만, 덕임은 혼인 후에 기생을 잊지 못해 도망간 남편이 출세한 뒤 용서를 빌어 기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최 남자의 입장에서 소설을 평했다. 최 남자에게는 직경과 결혼할 때에도 월하선과 같이 살자고 했을 때에도 전혀 주체적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28) 위의 책, 237쪽.

29) 위의 책, 143쪽.

30) “그와 마주할 때마다 속에서 일어나는 익숙잖은 느낌 때문에 얼굴을 붉힌 것을, 동궁이 보지 못해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동궁의 시린 얼굴에 언뜻 번진 붉은 웃음을 미처 보지 못했으니, 다행이라함은 너무나 선부른 감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 위의 책, 253쪽.

스물 다섯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왕위에 오르기도 공녀를 향한 그의 편견은 변하지 않았지만, 덕임에게만큼은 예외였다. 신료들에게는 때때로 살갑게 대하면서 궁인들에게는 마냥 통명스러우냐는 덕임의 물음에 왕은 “미천한 족속은 오직 꾸짖어 가르침이 옳다. 살갑게 대해줄수록 기어오르고 말을 흘리며 방자하게 굴 뿐이지.”³¹⁾라며 냉정하게 말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가움보다 덕임을 향해 투정을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편, 하가(下嫁)한 왕의 손아래동생은 청연이 바깥 걸음을 일삼고 아녀자의 도리를 자주 어겨 근심이 크다며, 매제(妹弟)이자 부마(駙馬)인 광은부위에게 지아버로서 엄히 다스리고, 필요하면 매를 들어도 좋다는 사적인 편지를 덕임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덕임은 자식을 낳고 어머니까지 된 어엿한 사대부가의 부인에게 자못 가혹한 처사라고 직언한다. 덕임은 왕의 동생인 일궁자가의 행태는 여인들이 으레 보이는 산후병의 증후이며, 이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이니 지아버가 그저 달래주기만 해도 효험을 볼 것이라며 사전을 아뢴다. 하물며 자신의 처방에 효험이 없으면 벌을 받겠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이후 그들의 대화에서 왕은 덕임을 향한 마음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압적으로 드러낸다.

“성상의 뜻대로 처분하소서.”

“하면 임금과 왕실을 농락한 죄를 물어 네 옷고름을 풀어야겠구나.”

잘못 들었거나 싶었는데 용안은 평온하기만 했다.

“한 번 승은을 입으면 더 이상 일개 공녀일 수 없는 몸이 된다. 뒷방으로 물러나 허송세월해야 한단 말이지. 끝끝내 후궁 품계를 얻지 못하

31) 위의 책, 294쪽.

거든 멸시나 받는 밥버러지로 씹어야 할테고.”

“그것이 너에게는 죽기보다 더 무서운 일 아니냐?”

“그래, 이제는 나도 널 좀 알게 되었지.”

“당장이 아닌 십 년 후에라도 내가 내킬 때에 벌을 줄 수 있다. 어차피 너는 응해야 하는 손바닥 위의 존재니까. 내가 굳이 널 취할 필요조차 없다. 야밤에 잠시 침전에 불렀다가 내보내기만 해도 널 끝이다.”

덕임은 자신의 숨통을 옥죄는 족쇄를 보았다. 왕과 궁녀라는 이름으로 묶인 보이지 않는 족쇄는 숨이 멎는 날까지 벗어날 수 없을 만치 억했다.³²⁾

왕은 누구보다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덕임의 입장도 잘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격차를 굳이 면전에서 입 밖으로 내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덕임은 무조건 복종해야 할 임금에게만은 질질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고집으로 도박을 선택한다. 자신의 처방이 효험을 보면 반대로 상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선왕의 승하로 출궁된 절친한 벗 세 명 중 한 명인 복연을 다시 궁으로 불러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될 사람은 늘 스스로 정했던³³⁾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궁궐에서 세 명의 벗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궁녀는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벗은 소인이 가진 전부이니까요.”³⁴⁾라는 언급이나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렇게 딱 네 사람이 좁디좁은 삶에 펼쳐진 가장 충만한 우주였다.”³⁵⁾는 대목만 봐도 덕임에게 벗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짐작할

32) 위의 책, 301-302쪽.

33) 위의 책, 53쪽.

34) 위의 책, 303쪽.

35) 위의 책, 550쪽.

수 있다.

벗이라는 말과 의미가 생소한 왕에게 있어 이러한 그녀의 무모한 제안은 의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고작 그런 걸 위해 목숨을 거느냐?”고 반문했고, 자신에게 덤비는 까닭도 청연이 벗이기 때문 이냐는 물음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긍정한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할 수 있느냐?”

어딘지 절박한 구석이 있는 하문이었다.

“그러하옵니다.”

이번에는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지만 덕임은 일부러 말했다.

“응당 그리해야만 하니까요.”

미약하나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었다.

“그리해야만 한다라……”

그 하찮은 언행이 어째서인지 왕을 상처 입혔음을 느꼈다.³⁶⁾

벗을 위해 목숨까지 걸며, 스스럼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에 상처받는다. 비록 그녀의 운명을 말 한 마디로 좌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어찌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할 수 있느냐는 물음과 “그리해야만 한다라……”라는 문장 앞뒤에 놓인 말줄임표에는 이러한 왕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덕임에게 왕이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이후, 이를 눈치 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왕의 측근이자 총신인 홍덕로, 덕임의 벗 중 하나이면서 눈치가 빠른 편인

36) 위의 책, 303쪽.

경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덕임도 스스로 왕에 대한 감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왕과 자신의 사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왕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애정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요, 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들의 빈도는 높아진다.

혹시 나 또한 왕에게 호감이 있어 특별한 건 아닐까? 아니, 아닐 것이다. 그녀는 일말의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단호하게 부정했다. 의무적으로 사모해야 할 지존에 불과하다.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알지 보답할 줄은 모르는 상대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그 이상일 수 없다.³⁷⁾

왕에 대한 호감을 ‘일말’의 가능성으로 일축하고 필요 ‘이상’으로 ‘단호’하게 부정한다. 사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의무적이라는 수식어가 그녀가 부정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덕임에게 있어 사랑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³⁸⁾, 당연히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감정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했기에 왕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호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이런 부정은 자못 고집스런 행태로도 이어진다.

37) 위의 책, 371쪽.

38) 덕임은 어린 시절 “나 하나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아비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오로지 먼 발치의 임금만 섬겨야 할 궁녀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가져보기도 전에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미련을 떨치면서 스스로 선택한 인생 속으로 다시금 씩씩하게 걸어갔다.” - 위의 책, 82-83쪽.

“난 절대로 당하고만 살진 않을 거야.”

제 운명을 남의 손에 쥐여 주었던들 저항은 할 수 있다. 적어도 그가 보지 않는 곳에선 스스로 뜻대로 살고 싶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싶다. 왕이 그토록 싫어하는 잡문을 열심히 읽을 것이다. 손이 다 닳아지도록 필사까지 해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마구 퍼뜨릴 것이다. 아무리 지존이라도 나 하나는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찮고 소소한 저항이라도 그가 싫어하는 일을 몰래 한다는 데서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덕임은 왕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은 그의 손아귀에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뜻대로 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주체적인 그녀의 가치관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기엔 너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하찮고 소소할지언정 왕이 싫어하는 일을 그녀가 스스로 선택해 몰래 한다는 데서 오는 묘한 승리감으로라도 정해진 운명의 족쇄에 대한 위로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잖아.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겨지고.”³⁹⁾, “뭘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도 날 마음대로 하진 못하게 할 거야.”⁴⁰⁾라는 덕임의 대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덕임에게 출궁을 명하면서 두 사람의 감정 다툼은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왕은 곤경에 처한 덕임이 자신이 아닌 자전(慈殿)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배신이라고 받아들인다.

39) 위의 책, 411쪽.

40) 위의 책, 445쪽.

“넌 내가 궁인을 동정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임금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개의치 않지.”

“내가 너를 선택했다! 심지어 네가 누구도 아닌 나한테 올 것이라 예상했다고. 그런데 너는 나를 배반했어!”

“어차피 소모품일 뿐인 소인을 지금 죽이소서. 믿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주셨다 하지 마시고, 속으로 다른 궁리를 하면서 겉으론 아니 그런 척 기롱하지 마시고, 차라리 당장 깨끗하게 끝내소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왕뿐만이 아니었다.

받을 줄만 알 뿐 보답할 줄은 모른다. 임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한 사람의 사내는 될 수 없다. 지아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연인은 될 수 없다.

“소인은 계집으로서 전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궐을 떠나라.”

“씩 끼지란 말이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⁴¹⁾

왕은 덕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러 번 들춰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그녀에게 상처받았다. 또한 본인이 아닌 자전의 도움을 구한 것을 배반이라고 일갈했다. 덕임 역시 왕의 행동을 이해타산적인 정치가로 치부한다. 왕의 마음을 알고 있던 덕임은 그를 이길 순 없지만, 적어도 상처 입히는 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궁녀의 본분으로 지존을 사모하지만, 한 명의 여인으로서는 사모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단언하면서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⁴²⁾ 이 사건에 대해

41) 위의 책, 562-564쪽.

42) 이 사건에 대해 덕임과 함께 쫓겨난 총신 흥덕로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역겨운 저의 위선도, 냉정하고 우선 순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전하의 입장도 전부요.”, “그래서 더 싫습니다.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벗의 목숨도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지존이시고, 설령 저를 다정히 대해주신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 돌아

작가는 두 사람의 마음을 “왕은 자신이 아무리 냉정하고 이해를 따지더라도 임금이니까 마냥 받아주기를 원했다. 공녀는 늘 비굴하게 숙이고 참아야 하는 관계를 원치 않았다. 결국 서로에게 실망한 두 사람은 제각기 갈 길을 떠났다. 이후 반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⁴³⁾라고 서술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결국 왕과 공녀라는 두 사람의 정해진 운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별은 길지 않았다. 새로운 후궁을 모시는 공녀로 덕임이 차출된 것이다. 어명을 전하러 온 덕임의 스승 서상궁은 “자전계선 네가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 전하께서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윤택하셨고, … 네 하찮은 감정이 아니라, 이 나라 지존께서 널 의중에 두고 계신다는 거!”⁴⁴⁾라며 덕임이 궁궐 복귀에 대해 설명하지만, 덕임은 “제가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요?”⁴⁵⁾, “제 감정은 하찮지 않습니다.”⁴⁶⁾라며 출궁 후에도 변하지 않은 그녀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궁궐로 복귀한 후 후궁의 공녀로서 왕을 대면한 덕임에게 왕은 “그래. 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느냐만.”⁴⁷⁾이라며 냉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내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는 근본적인 갈등은 고대로 남아있었다.”라며 두 사람의 운명의 간극은 전혀 좁

서실 수 있는 임금이니깐요. 저는 참으로 하찮은 계집이라서 저를 업신여기고, 기만하고, 금방이라도 내칠 만큼 잔인한 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다 보면 저만 자꾸 위선자가 되어 버린다고요.” 이에 대해 흥덕로는 그녀의 마음을 역올한 것이 아닌 상처를 받았다고 평하면서 실제로 원망하는 마음보단 어떻게든 원망할 핑계를 찾는 데 더 급급한 것 같으며 그녀의 의중을 꿰뚫어 본다.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2』, 30-31쪽.

43) 위의 책, 43-44쪽.

44) 위의 책, 51쪽.

45) 위의 책, 51쪽.

46) 위의 책, 52쪽.

47) 위의 책, 84쪽.

힐 수 없는 하늘로부터 품부(稟賦)받은 극복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들의 갈등은 왕이 그녀를 취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다. 자신을 침전(寢殿)에 들이라는 명을 받은 후, 서상궁에게 남녀의 교합에 대한 조언을 듣던 덕임은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기녀 행세를 하라는 것으로 들려 “전 그런 궁녀가 아닙니다!”⁴⁸⁾라며 역정을 낸다. 이런 그녀의 심정에 대해 작가는 “노류장화처럼 다뤄지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다. 대감마님 원할 적에 냉큼 잠자리를 덮히는 비천한 종년과 다를 것도 없다.”⁴⁹⁾라고 설명한다. 노류장화(路柳墻花)는 문자 그대로 길가의 버들과 담장의 꽃으로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것으로, 흔히 기생을 비유하는 말이다. 힘과 권력으로 여성을 취하는 것은 양반이든 대감이든 하물며 왕이라 할지라도 덕임에게 있어서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상궁은 “그런 궁녀가 아닐 수는 없다.”, “너더러 요부가 되라는 게 아니다. 그냥 ……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 뿐이야.”⁵⁰⁾라며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준다. 어려서부터 덕임을 봐왔던 서상궁이었기에 덕임의 성격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적인 말로 포장된 위로가 아닌 궁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명분을 솔직하게 내세운 것이다.

침전에 든 덕임에게 왕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난 너를 마음에 두었다.”

“더 이상은 아닌 척 할 수 없다. 그리고 싶지도 않아.”

48) 위의 책, 180쪽.

49) 위의 책, 181쪽.

50) 위의 책, 181쪽.

“날 연모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

“떠난다고 하지 마라. 내가 없는 곳에서 울지 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옆에 있어라.”

“……덕임아.”

“덕임아.”⁵¹⁾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강압적이고도 지극히 위압적인 고백으로 보일 수 있다. 지존인 자신이 마음에 두었고, 덕임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덕임은 자신의 소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한다는 왕으로서 궁녀에게 내리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다. 두 사람이 남녀라는 변할 수 없는 성별처럼 왕과 궁녀라는 변할 수 없는 굴레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가 이름을 불러준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왕이 세자이고 덕임이 생각하던 시절, 자신의 이름을 세자에게 묻는 덕임에게 세자는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연신 오답을 말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인에게는 중요하옵니다.”

“제 이름은 값지게 여기는 궁인은 처음 보는군.”

“아니, 반가의 규수 중에도 그런 이는 없겠지. 으레 여인의 이름은 오로지 지아비를 따를 뿐이니까.”⁵²⁾

실제 역사에서도 여성으로서 이름을 기록에 남긴 사례는 비록 왕

51) 위의 책, 190쪽.

52)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102쪽.

실의 일원이었다 할지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⁵³⁾ 그러나 가진 것이라곤 몇 명의 벗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름은 덕임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이다. 항아(姮娥), 궁녀, 궁인 같은 누구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 그녀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증명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이름이 불렸을 뿐인데. 흔하고 하찮은 이름일 뿐인데. 그러나 처음이었다. 그가 이름을 부른 것은. 벽도 거리도 온데간데없다.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다가와 버렸다.”⁵⁴⁾라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밤 결국 덕임은 승은을 입게 된다.

그 이후 덕임은 상궁과 같은 지위인 정5품 궁녀인 상의(尙儀)에 봉해지고, 바로 훗날의 문효세자를 잉태한다. 승은 이후에는 왕과의 감정적 갈등보다 후궁으로서 덕임의 고뇌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새로운 갈등 요소의 등장인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후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정치적 입장, 원자(元子)를 낳은 생모로서의 입장 등 복잡다단한 일들에 얽히게 된다. 이 역시 덕임이 원하던 주체적인 삶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은 임금의 입김 한 번에 먼지로 사라졌다. 어렵사리 쌓아왔건만 아주 쉽게 무너지는 모래산이었다. 이름도, 꿈도, 노력도 전부 사라지고 후궁만 남았다. 평생 이름조차 불러볼 수 없을 아들을 낳은 후궁. 임금의 사랑에만 목매다는 후궁. 자신이 어떤 딸이었고 어떤 궁인이었는지는 상관없다. 왕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없다. 오로

53) 보통 여성은 남편의 행장(行狀), 제문(祭文), 신도비명(神道碑銘) 등에도 여성은 “어머니 연안 이씨(母夫人延安李氏)”, “딸은 군수 조전주에게 시집갔다(女適郡守曹殿周).”와 같이 이름 없이 본관이나 성씨, 혹은 누구에게 시집 갔는지 정도의 정보 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인용문은 ‘김수항, 『문곡집(文谷集)』, 제19권, <영안위 홍공 묘지명(永安尉洪公墓誌銘)>’.

54)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2』, 190쪽.

지 왕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가 생애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애초에 존재 이유가 그 정도였다는 뜻이.⁵⁵⁾

위와 같은 서술은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도 결국 오롯이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가치관과 상충하게 된다. 그녀는 딸로서, 궁인으로서, 왕의 정인으로서도 온전하게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마음 아파한다. 또한 “후궁의 적은 정궁이나 또 다른 후궁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펍 우스웠다. 후궁의 적은 임금이다. 죽이고 살리고, 사랑하고 내치고, 모든 처분을 움켜쥔 사람은 오직 지존뿐이다. 그 진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더더욱 우습다.”⁵⁶⁾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슬프다 못해 조소가 나올 정도의 허탈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물론 승은을 입은 일반적인 후궁의 마음가짐은 아니며, 덕임이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윽고 둘째로 딸을 낳았으나,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연약해서 쉽게 잃기 마련이다.,” “새로 하나 가지면 된다. 상심하셨을 주상이나 극진히 모셔라.”⁵⁷⁾라는 효강혜빈의 말에 이것이 왕실에서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면서도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에 위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 찾아오는 왕의 행차를 여러 번 물리치고, 원자의 문후마저도 거절했다. 갓 태어난 딸에게 입히려고 지어둔 옷만 산송장처럼 종일 들여다본 그녀는 왕마저도 겨우 여아의 죽음일 뿐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했다. 딸의 죽음 이후에도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볼 수밖에 없는 왕에게 속해 버

55) 위의 책, 281쪽.

56) 위의 책, 284쪽.

57) 위의 책, 350쪽.

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꼈다.

어느덧 원자는 세자에 책봉되고, 증전의 양자로 입적된다. 덕임은 생모로서 의미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세자도 덕임을 어마마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들을 출산하게 됐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어머니이되 어머니일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자 역시 홍역으로 인해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후 덕임은 셋째를 회임하지만, 출산하지 못한 채 왕의 곁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 된다.

왕은 묘소와 사당을 나란히 지어 아들과 어미를 함께 두었다. 그리워서 자주 찾았으며, 거동할 때면 친히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사당과 묘역을 한참 둘러보다가 환궁했다. 삼년상 동안 매년 필요한 제문(祭文)을 직접 썼으며, 비문(碑文)도 친히 지었다. 후궁에게 어제신도비(御製神道碑)를 내린 일은 흔치 않았다.⁵⁸⁾

덕임을 잃은 왕의 슬픔은 컸으며, 오래 갔다. 작품에서 왕은 인용문과 같이 덕임을 위해 이례적인 일들을 행했다. 실제로도 <의빈 성씨 즐기>에 의하면,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喪禮)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後庭)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데가 더욱 없게 되었다.”⁵⁹⁾

58) 위의 책, 430쪽.

59) [의빈 성씨의 즐기],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9월 14일 갑신 2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국사를 의탁할 데가 더욱 없게 되었다.’는 말은 의빈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들이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조판서 유언호(兪彦鎬)가 사직 상소를 윤희하지 않자 의빈의 제문을 짓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히 신칙하고 제문을 지어 올리자 용서하라고 명하고, 체직한 사례⁶⁰⁾, 의빈의 신위를 모신 혼궁(魂宮)의 동향대제(冬享大祭)를 친히 행하고 육상궁에 나아간 일⁶¹⁾, 의빈의 유언대로 문효세자 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장사 지낸 일⁶²⁾, 그녀의 기일에 도위(都尉)를 보내 치제(致祭)하게 한 일,⁶³⁾ 서형수(徐澄修, 1749~1824)에게 의빈의 만장(輓章)을 짓게 한 일⁶⁴⁾ 등 대체로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기록에서도 의빈을 향한 정조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 역시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사람은 ‘선택’과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존재이며,

-
- 60) [유언호가 제문을 지어 올리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1월 5일 을해 1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011005_001,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 61) [혼궁의 겨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육상궁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1월 6일 병자 1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011006_001,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 62)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르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1월 20일 경인 1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011020_001,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 63) [효창묘(孝昌墓)에는 관원을 보내 섭제(攝祭)하고 의빈묘(宜嬪墓)에는 도위(都尉)를 보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정조 11년(1787년), 9월 12일,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C%9D%98%EB%B9%88%EB%AC%98&secId=IT_AA,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 64) 서형수, 『명고전집』 제1권, <의빈 만장 5수. 명을 받들어 지어 올렸다(宜嬪輓章 五首 承命製進)>. 만장이기 때문에 다소 의례적인 표현임은 감안해야겠지만, 첫 번째 수 결구인 ‘아름다운 마음은 감히 사사로운 은혜를 바라지 않았네(芳心不敢幸恩私)’와 같은 구는 소설 속 덕임의 성격과도 상통한다. <https://db.itkc.or.kr/search/group?q=query%E2%80%A0%E5%AE%9C%E5%AC%AA%E8%BC%93%E7%AB%A0>, (검색일자: 2022년 11월 30일)

이러한 운명은 캐릭터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궁궐이라는 비밀상적인 공간에서 극대화된다. 궁녀로 입궐했을 때부터 왕의 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덕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삶에서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을 가장 중시한다. 반면 태어났을 때부터 국본이자 후일 지존이 될 운명인 왕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이며, 모든 궁녀의 유일한 남자이다.

양극의 입장에 있는 두 사람이지만,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덕임의 마음을 갈구했으며 덕임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도 그가 하찮게 여기던 고작 궁녀의 마음만큼은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덕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삶 속에서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철저하게 예와 법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궐이라는 공간은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고도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 덕임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며,⁶⁵⁾ 정조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체제에 가장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둘의 관계는 양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옷소매 붉은 끝동』으로 본 고전의 활용 가치와 현실

서론에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 성공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성공이란, 기실 상업적인 것을 말한다. 다양한 미디어매체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작품을 향유하고,

65) 덕임의 주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문희, 앞의 논문, 153-154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소비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업적 성공은 소위 작품성만으로는 쉽지 않다. 원작의 재매개화 과정에서 매체에 따른 각색과 변화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계로 확대된 향유자들의 취향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창작자의 역량만으로는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원작이 졸작이어서는 다방면에서 변화를 꾀한다한들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것이 OSMU에서 OS가 중요한 이유이며, 본고에서 『옷소매 붉은 끝동』을 주목한 계기이다.

의빈과 정조라는 양 극단의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설정은 실제 역사에서 차용했다. 특히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라는 바탕 위에⁶⁶⁾ 작가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차용했다고 해서 역사적 고증의 정확성이 곧 작품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다면, 향유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개연성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확률은 낮아진다. 이는 곧 향유자들의 몰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의빈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의 여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다. 오히려 주체성 강한 현대물에서의 여주인공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캐릭터의 매력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사극물에서 때로는 희극적인 장치로,

66) 작가는 오랫동안 역사적 문헌을 두루 섭렵하여 철저히 역사적 고증을 거쳤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정조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충실하게 역사적 고증을 거친 원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드라마의 구성이 역사적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탄탄했다고 볼 수 있다. 박영희, 앞의 논문, 50쪽.

67) 김문희는 고전소설을 읽은 덕임의 시각을 당대 조선시대 독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녀의 시각은 현대 독자들이 조선시대 국문장편소설을 읽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며, 당대의 가부장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성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문희, 앞의 논문, 173-174쪽.

때로는 진지한 면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한다. 의빈은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기록이 많지 않아 사실상 작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그녀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캐릭터들은 당대 사회의 산물인 한편, 시대를 뛰어넘는 원형적 보편성을 함축하고 있다.⁶⁸⁾ 여러 창작물과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캐릭터들도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들에서 영감을 받아 변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에서의 캐릭터들이 지속적으로 재탄생 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도 등장하는 소설 〈소설인규옥소선〉의 옥소선과 〈포의교집〉의 주인공 초옥은 여성이 사랑의 주체가 아닌 욕망의 대상이었던 시대에 때로는 당돌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제 사랑의 길을 펼치고자 했다.⁶⁹⁾ 작중 의빈의 캐릭터 역시 기존작들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인물들 간의 대립각, 갈등과 해소 등의 과정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향유자들은 신선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전이 콘텐츠의 원형으로서의 소재와 모티프로써 갖는 가치와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 이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당대를 비롯해 현대에도 꾸준히 활용되는 〈춘향전〉을 대표적인 예로

68)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11쪽.

69) 〈소설인규옥소선〉과 〈포의교집〉의 옥소선, 초옥에 대해서는 위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들 수 있겠다. 소설의 이본이 100여 종을 훌쩍 넘겼으며,⁷⁰⁾ 이러한 여러 이본의 존재는 당대의 인기를 체감케 해준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그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판소리,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매개화가 이루어졌다. <심청전>과 <홍길동전> 역시 마찬가지이다.⁷¹⁾ 더욱이 최근 학계에서도 고전 연구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⁷²⁾ 역시 자료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에서는 더욱이 캐릭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⁷³⁾ 그렇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의 재발견과 재창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미 검증된 캐릭터를 통한 익숙함과 새로운 면에 대한 향유자의 기대감을 자극해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전술했듯 OTT의 활성화로 이제 콘텐츠는 내수 시장에만 신경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의 견실함이요, 이는 곧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탄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양한 K-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킹덤>이나 <옷소매 붉은 끝동>의 성공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고전의 통용 가능성을 보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

70) 이에 대해서는 김창룡, 『열녀춘향수절가라-춘향전 완판 33장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6, 7-20쪽.

71)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을 고전소스로서 드라마화 한 것에 대해서는 ‘김지혜, 「고전소스를 활용한 드라마콘텐츠의 캐릭터 변용 양상 연구-고전소설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72) 안대회 외,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4-9쪽.

73) 동물, 혹은 판타지적 세계관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기실 인간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적인 표현 방식으로 다룬 것이며, 이는 결국 인간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수법의 일환이다.

존에 고전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성공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급변한 미디어 매체의 향유 방식과 전세계의 향유자들을 대상으로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고는 급변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 속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옷소매 붉은 끝동』에 주목했다. 웹소설과 웹툰, 드라마로 재매개화 된 『옷소매 붉은 끝동』의 드라마는 선판매 된 해외 20여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콘텐츠는 제공하는 매체에 따라 주된 향유층이 다르고, 향유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매체에 따라 원작이 각색되고 변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사건, 인물 관계, 시공간적 배경과 같은 원작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 다양한 매체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작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원작 소설의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 아울러 역사 기록을 포함한 고전의 가치와 재매개화를 통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의빈과 정조라는 양 극단의 입장과 운명인 인물들의 설정은 실제 역사에서 차용했다. 특히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라는 바탕 위에 작가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차용했다고 해서 역사적 고증의 정확성이 곧

작품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창작을 한다면, 향유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개연성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확률은 낮아진다. 이는 곧 향유자들의 몰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의빈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의 여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다. 오히려 주체성 강한 현대물에서의 여주인공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의 매력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사극물에서 때로는 희극적인 장치로, 때로는 진지한 면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한다. 의빈은 실존 인물이지만, 기록이 많지 않아 사실상 작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그녀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에서는 더욱이 캐릭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의 재발견과 재창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미 검증된 캐릭터를 통한 익숙함과 새로운 면에 대한 향유자의 기대감을 자극해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역사 기록을 포함한 고전문학은 창작자들에게 있어 캐릭터들의 보고(寶庫)이며, 이는 곧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기초자료

김수항, 『문곡집(文谷集)』, 제19권.

□ 단행본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2』, 청어람, 2022.

김정우 외, 『한류 3.0의 확산과 궁중문화』, 황금알, 2016.

김창룡, 『열녀춘향수절가라-춘향전 완판 33장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6.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안대희 외,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참고 논문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58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3-189쪽.

김지혜, 「고전소설을 활용한 드라마콘텐츠의 캐릭터 변용 양상 연구-고전소설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영희, 「옷소매 붉은 끝동에 나타난 의빈 성씨의 삶」, 『에듀테인먼트연구』, 제4권(제3호),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2022, 49-65쪽.

배기형·김치호,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25권,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227-249쪽.

윤복실, 「OTT 드라마 <킹덤>의 서사 전략 연구 -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43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103-123쪽.

이원진, 「K-Drama <킹덤>이 전시하는 토속적 미래학: 순종의 열망과 잡종의 변이 혁명」, 『영상문화』, 제39권, 한국영상문화학회, 2021, 291-317쪽.

□ 기타자료

강하루, 「『옷소매 붉은 끝동』 선판매된 해외 20여개국서 호평 일색」, 『뉴스인사이드』, 2022.01.06.(검색일자: 2022년 11월 14일)

서형수, 『명고전집』,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Viewed in 『The Red-Sleeves』 the Value of Classics and Scalability

Lee, Sang-woo⁷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to discuss the value of classics and Scalability that has recently received favorable reviews at home and abroad in 『The Red-Sleeves』. Different media have different levels of enjoyment and have a different way of enjoying. Therefore, the original work is adapted and transformed depending on the media. but Events, figures, spatio-temporal backgrounds are retained. so 『The Red-Sleeves』 i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success in a variety of media,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original first. So in this article, Let's analyze the original novel 『The Red-Sleeves』 to find out the reason for the success,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value and scalability of classics

Keywords: The Red-Sleeves, value of the classics, character, Ewebin(宜嬪), Jeongjo(正祖), original textCultural education by stages

74) Hansung University

이 상 우

전 자 우 편 : geniusysw@naver.com

논문 접수일 : 11월 28일

심사 완료일 :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 12월 21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분석

이주현¹⁾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누리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향후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 두 종류의 교재를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두 교재 모두 텍스트 교재와 영상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실 환경에서의 수업과 독학 상황 모두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하였다. 두 교재는 모두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한글을 배우는 부분이 없어 학습자들은 자막을 통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법의 제시, 학습량 등의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문법이나 표현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 교재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기, 정확한 문법 설명과 적절한 난이도 조절,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1)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원 강사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교재 분석, 세종학당, 영상 교재

1. 서론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류의 시작은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사랑이 뭐길래>를 비롯하여 드라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겨울연가>와 K-POP의 성공으로 중화권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선풍적인 인기를 나타내는 말로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류는 드라마나 대중가요뿐 아니라 뷰티, 패션, 음식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를 필두로 한 K-POP의 성공은 물론이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곧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한국에 유학을 온 한국어 학습자 중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한 후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가진 학습자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호치민 시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고²⁾ 미국에서도 대학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과목 중 한국어의 등록생 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등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³⁾

2) 안동준, 「베트남 호찌민 한국어 수강생, 1년 만에 3배 ↑...“한류, 이제 ‘한글’이다」, 『YTN』, 2022년 10월 15일(검색일자: 2022년 10월 20일)

3) 왕혜숙,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 학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16(제0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232쪽.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어가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바로 세종학당이다. 세종학당은 2007년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외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세종학당은 현지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82개국에 24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⁴⁾ 또한 현지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K-POP, 드라마, 태권도, 국악, 문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9년을 기준으로 현장 수강생은 72,000명, 세종학당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수는 200,000명을 넘어섰다.

한류 콘텐츠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되는 것 외에도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중섭·최은정(2017)⁵⁾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은 대중문화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노출 이후 언어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를 막 접하기 시작한 한국어 학습 입문자나 초급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

4)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40101310>

5) 김중섭·최은정,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한글학회, 제318권, 2017, 214-215쪽.

를 제공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콘텐츠의 내용이나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 〈K-WAVE 한국어〉, 〈두근두근 한국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개선하는 데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한류와 한국어 교육

1) 한류와 한국어 학습자

한류는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그 반경을 넓혔고 오늘날 한류는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한류의 시작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류는 영화, 드라마, K-POP 등 장르를 불문한 연속적인 성공으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세종학당 학습자 1만2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습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대답한 학습자가 각각 23.1%, 16.2%로 전체에서 2번째, 4번째에 해당했다. 이렇게 한류를 통해 한국,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배우려

는 학습자들을 ‘잠재적 학습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⁶⁾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잠재적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속 가능한 학습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오문경(2013)⁷⁾에서는 한류가 그 동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류와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한류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김정하(2018)⁸⁾에서는 한국어 학습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한류 콘텐츠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는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라고 하였다. 나카무라 마유(2012)⁹⁾는 <겨울 연가> 이후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류를 통해 생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어 학습 의욕이 생겼다”는 응답이 32.4%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또 일본에서 한글 능력 검정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자 수 추이를 조사했는데 응시자 수가 급증한 시기와 <겨울연가>로 인해 한류가 인기를 얻은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

흔히 교육의 3요소를 교사와 학습자, 교재라고 말한다. 그중 교

-
- 6) 조항록, 「국제어로서의 한국어의 실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5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0, 149쪽.
 - 7) 오문경,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 연구 : 한류 기반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63쪽.
 - 8) 김정하, 「한국어 학습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58-62쪽.
 - 9) 나카무라 마유, 「일본에서의 한류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 삿포로 한국어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44-46쪽.

재는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교육의 객체인 학습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교재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의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의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처럼 교재는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리 외(2019)¹⁰⁾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형 교재 5종을 분석하여 통합형 한국어 교재에서 활용한 한류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한류 콘텐츠를 노래, 영화, 드라마,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통합형 교재에 제시된 콘텐츠 현황¹¹⁾

노래	영화	드라마	기타
김광석 - 이등병의 편지 (1993)	공동경비구역JSA(2000) 오로라공주(2013) 아홉 살 인생(2004) 클래식(2003) 괴물(2006) 그림자 살인(2009)	대장금(2003) 주몽(2006) 겨울연가(2002)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	대장금 공연 (2012) 애니메이션 뽀로로 (2017)
윤민수 - 술이야(2006)	내 머리 속의 지우개 (2004) 과속스캔들(2008) 지구를 지켜라(2003) 아저씨(2010) 동감내기 과외하기 (2003)	옥탑방 왕세자(2012) 아내의 유혹(2008)	

10) 김수리 외, 「한국어교육에서의 한류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 및 과제 : 통합형 한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제2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80-81쪽.

11) 위의 논문 80쪽.

또한 통합형 교재에서 전통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는 주로 초급에서 제시된 반면 한류콘텐츠는 중급 이상에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애리(2007)¹²⁾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접한 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의욕이 향상되고 한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밝혔고 김정하(2018)¹³⁾에서는 홍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어를 아직 접한 적 없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의향이 있는 이유 1위로 ‘한류를 즐기기 위해서’를 꼽았다.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 초급 단계에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학 기관의 통합형 교재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누리세종학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인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는 한국어 학습 입문자,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면서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의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교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활용 수 있는 여러 한국

12) 남애리, 「일본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의식 변화 연구 : 한류 드라마의 언어적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64쪽.

13) 김정하, 앞의 논문, 42쪽.

어 교재 중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¹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류를 이끌고 있는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어 교재들은 적지 않지만 실물 교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한국어를 접한 학습자에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비해 그 내용에는 한류 콘텐츠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뿔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류를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재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고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에 학습자의 흥미,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에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급 학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중 <K-WAVE 한국어>는 다양한 작품을 활용한 교재는 아니지만 ‘도깨비’, ‘상속자들’ 등 해외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끈 드라마들과 ‘트와이스’, ‘있지’ 등 해외에 커다란 팬덤이 있는 가수들을 등장시켜 익숙함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이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두근두근 한국어>는 <K-WAVE 한국어>만큼 해외에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20편 이상의 드라마를 활용하여 조금 낯선 작품이라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이 선호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는 시간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두근두근 한국어>는 2012년에 만들어졌고 <K-WAVE 한국어>는 2021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

14) <K-WAVE 한국어>는 1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근두근 한국어> 4권 중 초급에 해당하는 1, 2권을 분석하기로 한다.

는 두 교재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BTS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이세인(2020)¹⁵⁾의 분석 틀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인 항목은 연구 대상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교재 2종을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외적 구성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환경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습 상황, 교재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내적 구성을 분석한다. 내적 구성은 교수 요목, 단원 구성을 분석하여 교재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4. 교재 분석 결과

1) 외적 구성

(1) 학습 상황

먼저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지 학습 상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K-WAVE 한국어>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가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총 1권의 교재가 있으며 학습자가 교사 없이 독학할 수 있도록 한 단원에 하나씩 영상 자료가 있다. 영상 자료는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15) 이세인, 「BTS콘텐츠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학용 교재 개발의 실제」, 『한국언어문화학』, 제17권(제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146쪽.

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드라마나 K-POP의 가사나 가수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며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각 영상은 5분 이내로 만들어졌으며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감안하여도 학습 시간이 길지 않다. <두근두근 한국어>는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매개로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WAVE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 단원에 하나씩 영상 자료가 있다.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은 한국인 아나운서가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영상의 길이는 10분 이내이며 <K-WAVE 한국어>에 비해 교재의 내용이 많아 학습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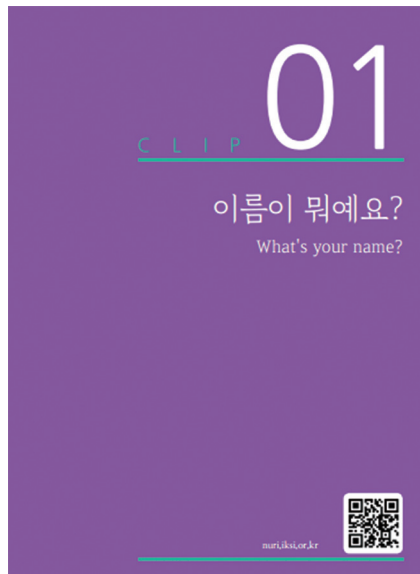
(2) 교재 구성

〈표 2〉 교재 구성 정리

	〈K-WAVE 한국어〉	〈두근두근 한국어〉
주 교재	텍스트 교재, 영상 자료	텍스트 교재, 영상 자료
보조 도구	QR코드	X
영상 자료 지원 언어	한국어(음성) /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자막)	한국어(음성) / 영어(자막)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 두 교재 모두 교사가 없어도 학습자들이 독학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독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영상 자료 없이는 학습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는 텍스트 교재뿐 아니라 영상 자료도 주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을 주교재로 활용한 것은 두 교재 모두 동일하지만 <K-WAVE 한국어>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각 단원의 처음 부분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QR코드를 배치해 학습자가 쉽게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1] <K-WAVE 한국어>의 QR코드¹⁶⁾

또한 <K-WAVE 한국어>는 아직 한국어가 서툰 초급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영상에 영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한다.¹⁷⁾ 반면 <두근두근 한국어>는 영어 자막 외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근두근 한국

16) 장향실 외, 『K-WAVE 한국어』, 세종학당재단, 2021, 7쪽.

17) 강성철, 「세종학당재단, 한류 콘텐츠로 배우는 'K-WAVE 한국어' 공개」, 『연합뉴스』, 2021년 5월 3일(검색일자: 2022년 11월 20일)

어)에서는 한국어의 발음을 자막으로 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WAVE 한국어>와 <두근 두근 한국어> 모두 따로 한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내적 구성

(1) 교수 요목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형 교재에 비해 수준이 낮다. 또한 문법과 읽기, 쓰기의 비중이 줄었고 상황에 맞는 표현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K-WAVE 한국어>는 1권이지만 전체 과정이 52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다음은 <K-WAVE 한국어>의 교수 요목(1~20단원)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K-WAVE 한국어>의 교수 요목(1~20단원)

단원	제목	주제	기능	문법 및 표현	문화
1	이름이 뭐예요?	자기소개	자기 소개하기	~이에요/예요	한국인의 이름
2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밥과 관련된 인사
3	뭐 하고 싶은데?	특별한 날	희망 말하기	-고 싶다	성년의 날

4	물이 검이 된다!	옛날이야기	소개하기	~이/가 되다	한국의 도깨비
5	또 만나러 올 거니까	소원	소원 말하기	-(으)러 오다	소원 빌기 (별/보름달에 소원 빌기, 탑돌이 등)
6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장소	출발점과 도착점 말하기	~부터 ~까지	한국의 편의점 (판매 물건, 무인 시스템, 택배, ATM)
7	기사님, 저 횡단보도에 세워 주세요.	교통	교통수단 이용하기	-아/어 주세요	한국의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8	고려 남자의 신부가 되어 줄래?	청혼	의향 묻기	-(으)래요?	한국의 역사: 고려, 코리아(Korea) 명칭의 유래
9	이제 완벽해졌네.	대학생 문화	변화 표현하기	-아/어지다	한국의 대학생 문화 (개강 파티, 대학교 축제, 동아리 활동)
10	덕분에 외국도 가 보고	(특별한) 경험	경험 말하기	-아/어 보다	서울의 광화문, 광화문 광장
11	내가 싫으니까	거절	이유 말하기	-(으)니까	한국인의 거절 문화
12	걱정하지 마.	명절 금지 표현하기 -지 마(세요) 한국의 명절: 설날, 떡국, 세배	금지 표현하기	-지 마(세요)	한국의 명절: 설날, 떡국, 세배
13	여기보다 네가 더 안전한 거 맞아?	도움	제안하기	~보다	한국의 긴급 전화번호 (112, 119, 120)

14	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으면	희망	희망 표현하기	-(으)면	사랑에 대한 속설
15	저, 시집갈게요	시집/장가	의지 표현하기	-(으)르게요	결혼 관련 표현: 시집가다, 장가가다
16	너 보러 와도 되는 핑계	여가 생활	허락하기	-아/어도 되다	한국인의 여가 생활
17	나 때문에 무슨 일 생길까 봐!	다툼	이유 말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의 흔한 아르바이트
18	나도 뭘 몰랐으면 좋겠다.	친족 호칭	친족 호칭하기	-(으)면 좋겠다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19	말이 짧다고?	반말과 높임말	반말하기	-아/어	경어법 예절
20	너, 어제 용꿈 꿴구나!	꿈	감탄 표현하기	-구나, -군요, 꿈	용꿈, 돼지꿈, 태몽

총 52단원의 문법 및 표현을 분석한 결과 12개 정도의 표현을 제외하고 모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1~2급으로 제시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¹⁸⁾ 초급 이외의 문법 및 표현이 많지는 않으나 일부 표현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4급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문법의 난이도는 적절한 편이지만 아쉬운 것은 문법의 설명이다. 학습자의 흥미 유지를 위해 문법의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학습자가 쉬운 문법을 사용할 때도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법 및 표현 제외.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명 예요/이에요

‘~예요/이에요’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해요.

‘~예요/이에요’ is used to talk about the name of an object or a person.

- 저는 공유예요. I am Gong Yu.
- 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This person is a teacher.
- 가: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나: 이것은 한국어 책이에요. This is a Korean book.

[그림 2] <K-WAVE 한국어>의 문법 제시¹⁹⁾

‘예요/이에요’라는 다른 형태의 문법을 제시하면서 언제 ‘예요’를 쓰고 언제 ‘이에요’를 쓰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영상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는 문법 학습 이후 콘텐츠의 상황에 맞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은 <두근두근 한국어>의 교수 요목을 정리한 표이다.

19) 장향실 외, 앞의 책, 8쪽.

〈표 4〉 〈두근두근 한국어〉 1권의 교수 요목

단원	단원명	기능	어휘	문법	문화
1	드림하이	인사하기	안녕, 안녕하세요?	-아/-야 -이에요/예요	한국의 인사법
2	제빵왕 김탁구	감사. 사과하기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		존댓말과 반말
3	닝쿨째 굴러온 당신	호칭부르기	호칭, 속담을 이용한 표현		한국의 나. 너
4	닝쿨째 굴러온 당신	애정표현하기	좋아하다. 싫어하다	-을/를-이/가	결혼과 시대
5	miss A 〈굿바이 베이비〉	감정표현하기	좋은 감정 즐겁다. 재미있다 나쁜 감정: 재미없다. 슬프다	과거의 았/였/였	K-pop AE
6	꽤도 흥길동	날씨 표현하기	가온 날씨	부정의 안	한국의 사계절
7	풀 하우스	격려하기	위로, 격려	때문에 -기 때문에	한국의 만화
8	겨울연가	약속하기	약속	요구의 ‘-아/어/여주다’	한국인의 우리 의식
9	소문난 칠공주	아픔 표현하기	질병, 신체, 증세		군대 문화
10	슈퍼주니어 〈요리왕〉	맛 표현하기	미각	허락, 허용의 ‘-아/어/여도 되다’	한국의 거리음식
11	오작교 형제들	희망 표현하기	희망	-고싶다. -(으)면 좋겠다. 았/였/였으면 좋겠다	전설 오작교
12	미안하다 사랑한다	부탁하기	부탁, 수용	부탁의 -아/어/여 주다	한국인의 정

〈표 5〉 〈두근두근 한국어〉 2권의 교수 요목(1~10단원)

단원	단원명	기능	어휘 및 문법
1	매리는 외박중	축하하기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2	이름이 뭐예요?	자기소개하기	-이에요/예요 -V가 뭐예요?
3	아이리스	‘알아요’ ‘몰라요’ 표현하기	알다. 모르다
4	학교 2013	‘배워요’ ‘가르쳐요’ ‘공부해요.’ ‘다녀요’ 표현하기	배우다 가르치다. 공부하다. 다니다
5	내 딸 서영이	인사하기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녀왔습니다
6	내 딸 서영이	‘좋아요’ ‘싫어요’ 표현하기	~이/가 좋다/싫다
7	개그콘서트: 네 가지	외모 묘사하기(1)	똥똥하다 날씬하다 작다 크다
8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외모 묘사하기(2)	예쁘다. 안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9	난폭한 로맨스	시간표현하기	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10	난폭한 로맨스	‘몇과 시간’ 표현하기	명, 숫자(고유어 계열)

〈두근두근 한국어〉 1권의 12단원 〈두근두근 한국어〉 2권의 40단원까지 총 52개 단원의 문법 및 표현을 분석한 결과 〈두근두근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한 문법과 표현 모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초급으로 제시한 범위 안에 있었다. 이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라도 난이도에 대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상 자료에서의 문법 설명도 쉬운 편이고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52개 단원을 진행하면서 배우는 문법은 24개에 불과해 그 양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 2권에서 기존 어휘, 문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항목을 어휘 및 문법으로 합치면서 배우는 문법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두근두근 한국어〉로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1, 2권을 다 공부하고도 초

급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 교재는 문법, 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두 교재 모두 대학 기관의 통합형 교재에 비해 단원 수가 많은 편이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교재는 각각 52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능을 모두 익힌다면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3급의 학습 목표이다. 즉,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의 활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원 구성

〈표 6〉 〈K-WAVE 한국어〉, 〈두근두근 한국어〉의 단원 구성

〈K-WAVE 한국어〉	〈두근두근 한국어〉
단원명&단원소개 → 표현 → 문법 및 어휘 → 활용 → 한국문화	단원명&단원소개 → 콘텐츠 소개 → 표현 → 문법 → 한국문화 → 활용

〈K-WAVE 한국어〉, 〈두근두근 한국어〉 모두 단원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단원을 소개하고 콘텐츠를 통해 해당 단원에서 배울 표현을 들어본 후 문법이나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뒤의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학습한 문법의 활용을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단원을 마무리한다. 각 교재의 단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단원명/단원소개

먼저 〈K-WAVE 한국어〉는 해당 단원의 대표적인 표현을 단원명

으로 하여 그 단원에서 배울 표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첫 페이지에 영상 자료를 바로 재생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어 학습자들이 편하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소개에서는 각 단원의 목표 문법, 문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단원소개를 보고 단원의 내용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힘든 수준이다.



[그림 3] <K-WAVE 한국어> 단원명²⁰⁾



[그림 4] <K-WAVE 한국어> 단원소개²¹⁾

20) 장향실 외, 앞의 책,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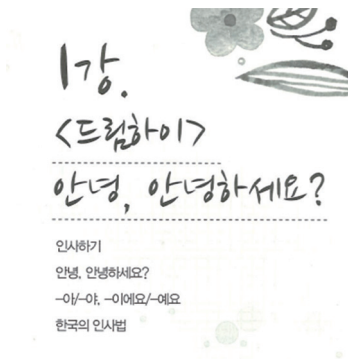
21) 위의 책, 8쪽.

〈두근두근 한국어〉의 단원명은 1, 2권 모두 해당 단원의 한류 콘텐츠를 이름으로 지어졌다. 학습자들이 아는 콘텐츠일 경우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해당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원소개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배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1강 드림하이	07
2강 제빵왕 김탁구	15
3강 넝쿨째 굴러온 당신	21
4강 넝쿨째 굴러온 당신	27
5강 miss A 〈굿바이 베이비〉	33
6강 쾌도 홍길동	39

[그림 5] 〈두근두근 한국어1〉 단원명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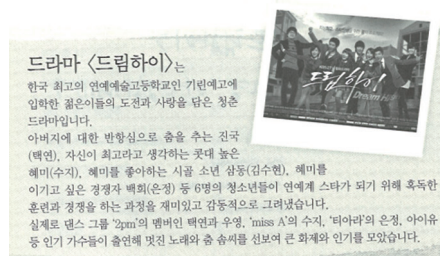
[그림 6] 〈두근두근 한국어1〉 단원소개²³⁾

22) 김성수, 『두근두근 한국어1』, 인쇄의 창, 2012,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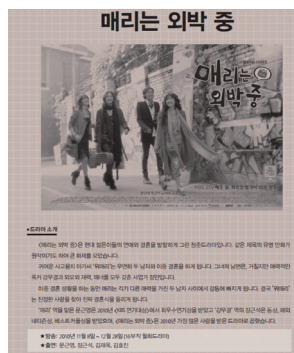
23) 위의 책, 7쪽.

② 콘텐츠 소개

두 교재는 모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이다.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모든 학습자가 아는 것은 아니므로 콘텐츠에 대한 소개가 있다면 배경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WAVE 한국어>는 콘텐츠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지만 굉장히 여러 종류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는 <두근두근 한국어>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더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림 7] <두근두근 한국어1> 콘텐츠 소개²⁴⁾



[그림 8] <두근두근 한국어2> 콘텐츠 소개²⁵⁾

24) 위의 책, 8쪽.

25) 민현식, 『두근두근 한국어2』, 채륜, 2014, 10쪽.

③ 표현

두 교재 모두 해당 단원에서 배울 문법이나 표현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먼저 한류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고 해당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을 학습자들이 정리해보도록 한다. 아직 학습자들이 해당 표현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2~3번 반복하면서 학습자들이 목표 표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아직 한국어 듣기가 어색할 학습자들을 위해 대사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면 두 교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K-WAVE 한국어>는 목표한 표현만을 학습하지만 <두근두근 한국어>는 목표하는 표현과 연관된 표현들도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학습하는 양이 많다.



은탁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Euntak What's your name?

도깨비 인제는 유정신, 또 언젠가는 유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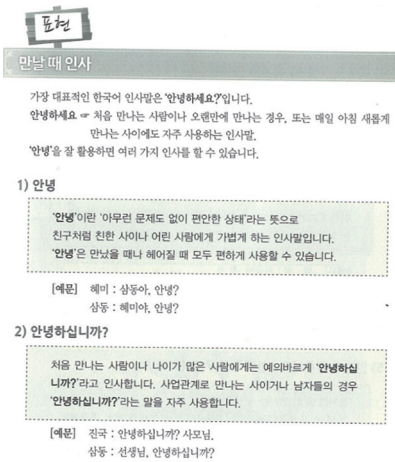
현재는 유신재. 진짜 이름은 김신.

Dokkaebi I was called Yu Jeongsin and Yu Jaesin.

And now, my name is Yu Sinjae. But my real name is Kim Sin.

[그림 9] <K-WAVE 한국어> 표현 제시²⁶⁾

26) 장향실 외, 앞의 책, 8쪽.



[그림 10] <두근두근 한국어1> 표현 제시²⁷⁾



[그림 11] <두근두근 한국어2> 표현 제시²⁸⁾

④ 문법

<K-WAVE 한국어>에서는 학습자들이 먼저 콘텐츠를 통해 해당 표현에 익숙해지게 한 후 그 표현에서 사용한 문법을 설명한다. 문법의 형태와 의미만을 설명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설명이 너무 간략하여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두근두근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법을 충분히

27) 김성수, 앞의 책, 9쪽.

28) 민현식, 앞의 책, 11쪽.

설명하고 있다. 문법을 설명하는 영상의 길이도 <K-WAVE 한국어>는 5분 이내지만 <두근두근 한국어>는 10분 정도로 그 길이가 길다. 다만 문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고 이어지는 문법 공부에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⑤ 활용

문법을 학습한 이후에는 배운 문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K-WAVE 한국어>는 배운 문법을 단순 활용하는 단답형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연습이 필요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성이다. 반면 <두근두근 한국어>는 배운 문법과 표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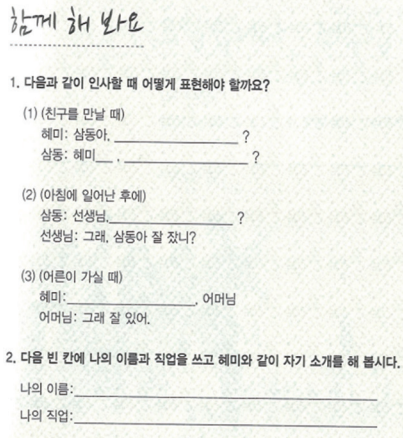
****연습하세요. Let's Practice! ****

▶ 다음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table and talk about what you want to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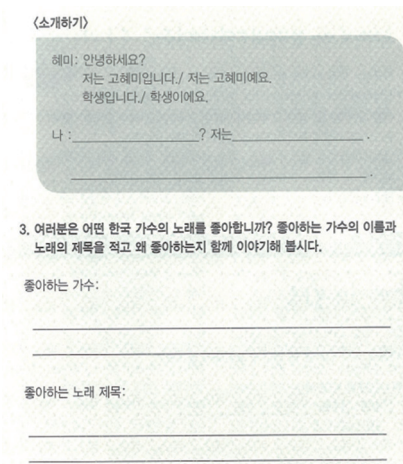
	언제 When	하기 원하는 일 What you want to do	어떻게 말해요? How would you say it?
1	주말 Weekend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I want to watch movies on weekend.
2	휴가 Vacation	제주도에 가다 Visit Jeju Island	
3	생일 Birthday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다 Invite friends over	
4	크리스마스 Christmas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다 Build a Christmas tree	

[그림 12] <K-WAVE 한국어>의 활용²⁹⁾

29) 장향실 외, 앞의 책, 11쪽.



[그림 13] <두근두근 한국어1>의 활용³⁰⁾



[그림 14] <두근두근 한국어1>의 활용³¹⁾

⑥ 한국 문화

두 교재는 문화를 소개하는 자세가 상당히 다르다. 먼저 <K-WAVE 한국어>는 해당 단원에서 다루었던 콘텐츠에 밀접한 연

30) 김성수, 앞의 책, 13쪽.

31) 위의 책, 14쪽.

관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문화를 문법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반면 <두근두근 한국어>에서는 콘텐츠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문화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연습 문제 위에 작게 다루고 있을 뿐이라 학습의 대상이라기보다 하나의 읽을거리로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누리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재인 <K-WAVE 한국어>와 <두근두근 한국어> 2종을 대상으로 교재의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을 분석하여 각 교재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두근두근 한국어>는 20편 이상의 드라마를 활용하였지만 지나치게 드라마에 편중되었다, 반면 <K-WAVE 한국어>는 드라마에 K-POP까지 활용하였지만 그 종류가 너무 적다. 지금 한류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다가 많은 작품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재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다. 두 교재는 모두 독학하는 학습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과 동시에 교사들

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한 교재이다.³²⁾ 하지만 <K-WAVE 한국어>는 수업용 교재라고 하기에 내용이 너무 적고 <두근두근 한국어>는 독학용이라고 하기에 학습량이 많다. 한류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 입문을 돕는 독학용 교재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재를 만든다면 더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확한 설명과 적절한 난이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흥미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문법이나 표현을 제시할 때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에 알맞은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면서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한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한 문법을 충분히 연습하지 못한다면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순한 연습만 반복하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한류 콘텐츠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장르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고 콘텐츠에 맞는 활동을 추가한다면 학습자들의 성취도와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두 종류의 교재를 분석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 교재를 사용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족한 부분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더 다양한 교재와 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

32) 두 교재 모두 교사용 지침서가 있고, <K-WAVE 한국어>의 경우 수업용 PPT까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성수, 『두근두근 한국어1』, 인쇄의 창, 2012.
민현식, 『두근두근 한국어2』, 채륜, 2014.
장향실 외, 『K-WAVE 한국어』, 세종학당재단, 2021.

□ 참고 논문

- 김수리 외, 「한국어교육에서의 한류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 및 과제 : 통합형 한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제2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79-81쪽.
김정하, 「한국어 학습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김중섭·최은정,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제318권, 한글학회, 2017, 199-219쪽.
나카무라 마유, 「일본에서의 한류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 삿포로 한국어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남애리, 「일본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의식 변화 연구 : 한류 드라마의 언어적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오문경,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 연구 : 한류 기반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왕혜숙,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 학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16권(제0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232-240쪽.
이세인, 「BTS콘텐츠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학용 교재 개발의 실제」, 『한국언어문화학』, 제17권(제3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2020, 135-167쪽.
조향록, 「국제어로서의 한국어의 실제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5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0, 129-155쪽.

□ 기타자료

- 강성철, 「세종학당재단, 한류 콘텐츠로 배우는 ‘K-WAVE 한국어’ 공개」, 『연합뉴스』, 2021년 5월 3일(검색일자: 2022년 11월 20일)
안동준, 「베트남 호찌민 한국어 수강생, 1년 만에 3배 ↑ ...“한류, 이젠 ‘한글’이다”」, 『YTN』, 2022년 10월 15일(검색일자: 2022년 10월 20일)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

ABSTRACT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Utilizing the Contents of the Korean Wave at Sejong Institute

Lee Joo Hyun³³⁾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Korean language textbooks using Korean Wave contents provided by the Nuri Sejong School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extbooks.

The two types of teaching materials, 〈K-WAVE 한국어〉 and 〈두근두근 한국어〉, were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compositions. First of all, both textbooks used text materials and video materials, but they wer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both teaching and self-study situations in the classroom environment. Both textbooks are aimed at beginners, but there is no part to learn Hangeul, so learners have to understand the content through subtitles. In addition,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presentation of grammar and the amount of learning. He also found that even if he studied grammar and expressions, he lacked practice to make use of them.

33) Duksung Women's University Global Education Center

Therefore, when develop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using Korean Wave content in the future, it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diversifying Korean Wave content, clearly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textbooks, correct grammar explanation, appropriate difficulty adjustment, and various activitie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textbooks, textbook analysis, Sejong Institute, video textbooks

이 주 현

전 자 우 편 : dlwngus709@naver.com

논문 접수일 : 11월 28일

심사 완료일 :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 12월 21일

문화영토연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②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③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④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 ⑤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1.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2.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명
- ② 이사 5명
- ③ 감사 1명

2.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 를 대행한다.
2. 이사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⑤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⑦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변경사유서 1부
-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 및 권한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3.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업무와 활동

제7조 (업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성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전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전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1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9. 심사 결과 '수정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③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④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 ⑤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1.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①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 ②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 ③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 ④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 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2.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제4조 연속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2.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다.
3.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메일주소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4. 제목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여한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제7조 인용

1. 인용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한다. 반면, 인용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로부터 5글자를 들여 써야 한다.
2. 인용하는 내용이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하여 신는다. 단, 원어를 병기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간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제8조 각주의 표기

1. 단행본

① 국문도서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10쪽.

② 외국도서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Martinus Nijhoff, 1973, p. 27.

※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 1인 이름을 표기한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

①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이제현, 「문화콘텐츠의 창작」,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가현출판, 2020, 16쪽.

②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 27.

3. 한글 번역본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36쪽.

4. 학위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소속 대학 및 학과,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0쪽.

5. 정기간행물 또는 저널 속의 논문

①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권(제○호), 학회명, 출판년도, ○쪽.

예)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71쪽.

②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표기), Vol.○, No.○, 출판년도, p. ○.

예)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p. 23.

6. 기타 자료

① 일간신문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② 온라인 기사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③ 온라인 자료

[제목], url, (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예)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7. 중복된 참고문헌 인용

①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10쪽.

②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명 명기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 예) 김숙자, 앞의 책 (앞의 글), 17쪽.
베르너 쾰바르트, 앞의 책, 23쪽.
- ③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하며, 논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17쪽.
조광조, 『문화와 소비』, 20쪽.
- ④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25.
- ⑤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Longaker, M. G., *op. cit.*, p. 16.

제9조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참고논문, 기타자료로 구분하고, 단행본을 참고문헌의 최상단에 표기한다.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단행본
 - ② 참고논문
 - ③ 기타자료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며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위 1과 같이 세분하는 대신, 국내문헌(가나다 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②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③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Adam Smith를 ‘애덤 스미스’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아담 스미스’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 ④ 복수의 저자가 쓴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을 인용할 경우 대표저자 한 사람만 표기한다.

예) 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대중문화와 소비』, 김시습 외 지음, 신예문화, 2020.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① 단행본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김시습·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신예문화, 2020.

조광조, 『문화와 소비』, 문화시티, 2019.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 동일 저자의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단행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② 참고논문

박선옥, 「스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63-192쪽.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 동일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논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③ 기타자료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
자: 0000년 00월 00일)

※ 동일 저자의 기타자료가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게시일 순서로 가장
빠른 자료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제10조

1.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책: (자판 입력)겹낫표(『 』)
- ② 작품: (자판 입력)낫표(「 」)
- ③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낫표(〈 〉)

2.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저자의 표시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
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12조 원고의 투고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논문의 투고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kish1691@naver.com]

제13조 투고료 및 원고료

1.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3.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인한다.

제15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의 간행(2021. 12. 31)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 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실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1.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1.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

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심의요청)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1.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2.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 ①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가 의심되는
논문에 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권 2호 논문 심사 경위

투고 마감일	2022년 11월 28일
총투고 논문 수	9편
심사위원 수	편당 3인 이상
심사 마감일	2022년 12월 13일
수정 논문 접수	2022년 12월 19일
총 게재 논문 수	5편
논문 게재율	55.5%

임원 명단

이사장	홍일식
이 사	손대오, 박종렬, 김정우, 김윤선
감 사	이대명
편집위원장	홍성걸(국민대) · 김정우(고려대)
	김윤선(고려대), 윤애경(창원대), 김찬기(한경대), 최영희(서울과기대),
편집위원	장은진(경성대), 장만호(경상대), 홍성구(경북대), 조은하(강원대), 오재혁(건국대), 김공숙(안동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배려가
文化領土研究院의 힘이요 채찍입니다.

(財)**文化領土研究院** 후원계좌
하나은행 : 187-910009-37605